ISBN 979-11-92212-49-4(93330)

이 연구결과는 「2024 사회적기업 기초 통계 분석」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음

2024 사회적기업 기초 통계 분석

연구기관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5.11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오단이(전주대학교 교수)
참여연구자 : 김형돈(성공회대학교 교수)
박진수(전주대학교 교수)
박지형(숭실대학교 교수)
정지영(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소장)

제 출 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수탁연구과제 『2024 사회적기업 기초 통계 분석』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 11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김 상 진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방향 1
제2절 주요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5년 4월 제출) 3
제3절 연구구성 6

제2장 주요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기업 현황 7
제1절 주요 사회적경제조직과 정부지원정책 7
제2절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8
1. 사회적기업의 분포 8
2. 사회적기업 지원금 12

제3장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분석 30
제1절 취약계층의 고용 30
1.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31
2.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38
제2절 사회서비스제공 45
제3절 사회적기업 의사결정구조 68
제4절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79

제4장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82
제1절 재정성과 : 수입구조 분석 82
1. 매출액 82
2. 영업이익(손실) 100
3. 당기순이익(손실) 109

제2절 지출 : 비용구조 분석 ····· 124
1. 매출원가 ····· 124
2. 판매비 및 관리비(경비 포함) ····· 131
3. 영업외비용 ····· 136
4. 노무비 ····· 141
제3절 기타 성과지표 ····· 152
1. 노동생산성 ····· 152
2. 일반인 근로자 고용효과 ····· 155

제5장 요약 및 결과해석 ····· 175

참고문헌 ····· 181

표 목차

<표 1-1> 연도별 사업보고서 제출 사회적기업의 수 ····· 3
<표 1-2> 2024 사회적기업 기초 통계 분석 연구보고서의 구성 ····· 6
<표 2-1>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수 ····· 9
<표 2-2>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의 수 ····· 11
<표 2-3>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 15
<표 2-4> 지역별 지원금 ····· 17
<표 2-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지원금 평균, 중위값 및 기업 수 19
<표 2-6>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지원금 비율 ····· 22
<표 2-7>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지원금 ····· 23
<표 부가분석 2-1> 지원금 총액 분석 ····· 26
<표 부가분석 2-2> 지원금 총액 분석 ····· 29
<표 3-1> 지역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및 기초생활수급자 수 ····· 33
<표 3-2> 인증연도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및 평균 ····· 34
<표 3-3>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 36
<표 3-4>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 37
<표 3-5>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평균 임금 ····· 39
<표 3-6>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시간 ····· 41
<표 3-7> 인증연도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 42
<표 3-8>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 43
<표 3-9>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 44
<표 3-10>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 및 비율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48
<표 3-11>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및 지역 인구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51

<표 3-12> 인증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 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52
<표 3-13> 인증유형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 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53
<표 3-14>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 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54
<표 3-1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 인원 중위값 추이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55
<표 3-16> 지역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58
<표 3-17> 지역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60
<표 3-18>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일반인/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기업 비율 :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 63
<표 부가분석 3-1>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 65
<표 부가분석 3-2>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지역, 표준산업분류별) ····· 67
<표 3-19> 지역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 수와 평균 개최 건수 ····· 69
<표 3-20>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의사결정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 70
<표 3-2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이사회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추이 ····· 72
<표 3-22>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기타 형태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 시계열 추이 ····· 73
<표 3-23> 지역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재투자 총액 ····· 78

<표 3-24> 인증연도, 인증유형 및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평균 금액 ····· 80
<표 3-2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평균 금액 추이 ····· 81
<표 4-1> 연도별 매출액 비중 ····· 86
<표 4-2> 연도별 공공매출액 비중 ····· 87
<표 4-3> 연도별 민간매출액 비중 ····· 88
<표 4-4> 지역별 매출액 ····· 91
<표 4-5> 연도별 영업이익(손실) 비중 비교 ····· 103
<표 4-6> 지역별 영업이익(손실) ····· 105
<표 4-7>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분포 ····· 110
<표 4-8> 지역별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평균 및 중위값 ····· 113
<표 부가분석 4-1> 재정성과 총액(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 117
<표 부가분석 4-2> 재정성과 총액 분석(지역, 표준산업분류별) ····· 122
<표 4-9> 연도별 매출원가 비중 비교 ····· 125
<표 4-10>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원가 비교 ····· 128
<표 4-1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매출원가 및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 ····· 130
<표 4-12> 연도별 판매비 및 관리비 비중 ····· 132
<표 4-13> 지역별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 및 중위값 ····· 134
<표 4-14>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 ····· 135
<표 4-15>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영업외비용 비교 ····· 138
<표 4-16>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외비용 ····· 140
<표 4-17> 연도별 노무비 비중 비교 ····· 142
<표 4-18> 지역별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 ····· 144
<표 4-19>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노무비 ····· 145
<표 부가분석 4-3> 지출총액(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 147

<표 부가분석 4-4> 지출총액(지역, 표준산업분류별) ····· 151
<표 4-20> 지역별 노동생산성 평균 및 중위값 ····· 153
<표 4-2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노동생산성 ····· 154
<표 4-22> 지역별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 ····· 154
<표 4-23>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 157
<표 4-24>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 158
<표 4-25>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 159
<표 4-26> 지역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 160
<표 4-27>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 161
<표 4-28>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 161
<표 4-29>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 162
<표 부가분석 4-5> 전체 유급근로자(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 163
<표 부가분석 4-6> 전체 유급근로자(지역, 표준산업분류별) ····· 172
<표 5-1> 2024 사회적기업 기초 통계 분석 요약 ····· 176
<표 5-2> 주요 지표별 평균 실적 및 양극화 지수 (2022~2024) ····· 178
<표 5-3> 사회적기업 및 소기업 수입-비용구조 요약 (2021~2024) ····· 180

그림 목차

[그림 1-1] 2024년 사업보고서(2025년 4월 제출) 오프라인 양식 ····· 4
[그림 2-1]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수 ····· 8
[그림 2-2]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 ····· 12
[그림 2-3] 연도별 항목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 ····· 13
[그림 2-4]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분포별 기업 수 ····· 14
[그림 2-5] 정부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의 비율 ····· 15
[그림 2-6] 일반지원금 구성비 ····· 16
[그림 3-1] 연도별 취약계층, 일반인 유급근로자 수 및 평균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 31
[그림 3-2]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별 사회적기업 비율 ····· 32
[그림 3-3] 인증연도별 평균 취약계층 유급 근로자 수 추이 ····· 35
[그림 3-4] 연도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유급근로자 평균 임금 ····· 38
[그림 3-5]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 40
[그림 3-6] 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및 사회적기업의 수 : 전체 사회적기업 ····· 46
[그림 3-7] 연도별 사회서비스 총 수혜 인원 및 중위값 : 전체 사회적기업 ····· 46
[그림 3-8] 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47
[그림 3-9] 연도별 사회서비스 총 수혜 인원 및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49
[그림 3-10]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규모별 제공기업 수 및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50
[그림 3-11] 연도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57
[그림 3-12] 연도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59

[그림 3-13] 사회서비스 유형 및 수혜대상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61
[그림 3-14] 사회서비스 유형 및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 61
[그림 3-15] 연도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 수 ····· 68
[그림 3-16] 연도별 이사회 참여 인원 비율 ····· 74
[그림 3-17] 연도별 기타 의사결정기구 참여 인원 비율 ····· 75
[그림 3-18] 연도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 ····· 76
[그림 3-19]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사회적 목적 재투자 총액 ····· 77
[그림 3-2] 연도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 및 비율 ····· 77
[그림 4-1] 매출 총액 ····· 82
[그림 4-2] 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 83
[그림 4-3] 공공매출 총액 ····· 84
[그림 4-4] 공공시장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 84
[그림 4-5] 민간매출 총액 ····· 85
[그림 4-6] 민간시장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 85
[그림 4-7] 연도 및 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 86
[그림 4-8] 연도 및 공공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 87
[그림 4-9] 연도 및 민간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 88
[그림 4-10] 연도별 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 89
[그림 4-11] 연도별 공공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 90
[그림 4-12] 연도별 민간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 90
[그림 4-13] 인증연도별 평균 매출액 ····· 93
[그림 4-14] 인증유형별 평균 매출액 ····· 94
[그림 4-15] 조직형태별 평균 매출액 ····· 95
[그림 4-16] 인증연도별 평균 공공매출액 ····· 96
[그림 4-17] 인증유형별 평균 공공매출액 ····· 97

[그림 4-18] 조직형태별 평균 공공매출액 ····· 97
[그림 4-19] 인증연도별 평균 민간매출액 ····· 98
[그림 4-20] 인증유형별 평균 민간매출액 ····· 99
[그림 4-21] 조직형태별 평균 민간매출액 ····· 100
[그림 4-22] 연도별 영업이익 총액 ····· 101
[그림 4-23] 영업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 102
[그림 4-24] 연도 및 영업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 103
[그림 4-25] 영업이익(손실) 평균 및 중위값 ····· 104
[그림 4-26] 인증연도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 106
[그림 4-27] 인증유형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 107
[그림 4-28]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 108
[그림 4-29]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총액 ····· 109
[그림 4-30] 당기순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 110
[그림 4-31] 연도 및 당기순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 111
[그림 4-32] 당기순이익(손실) 평균 및 중위값 ····· 112
[그림 4-33] 영업이익(영업손실) 및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발생 비교 ····· 112
[그림 4-34] 인증연도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 114
[그림 4-35] 인증유형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 115
[그림 4-36] 조직형태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 116
[그림 4-37] 연도별 매출원가 금액 ····· 124
[그림 4-38] 매출원가 분포별 기업 수 ····· 125
[그림 4-39] 연도별 매출원가 평균 및 중위값 ····· 126
[그림 4-40] 연도별 매출액(평균 및 중위값) 대비 매출원가 비중 ····· 127
[그림 4-41] 연도별 판매비 및 관리비 금액 ····· 131
[그림 4-42]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별 기업 수 ····· 132
[그림 4-43]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 및 중위값 ····· 133
[그림 4-44] 영업외비용 총액 ····· 136

[그림 4-45] 영업외비용 분포별 기업 수 ····· 137
[그림 4-46] 연도별 영업외비용 평균 및 중위값 ····· 137
[그림 4-47] 연도별 노무비 금액 ····· 141
[그림 4-48] 노무비 분포별 기업 수 ····· 142
[그림 4-49] 연도별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 ····· 143
[그림 4-50] 연도별 노동생산성 평균 및 중위값 ····· 152
[그림 4-51] 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 156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방향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왔다. 2024년 기준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 수는 3,762개로, 이는 5년 전인 2019년의 2,435개 대비 54.5% 증가하였으며, 고용인원·사회서비스 수혜인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과 사회적 문제 해결의 주요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다수 사회적기업의 규모가 작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제공형에 편중되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은 부족한 상황이며,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나타나 자생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3년에 발표된「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에서는 기존의 '획일적 육성' 지원에서 벗어나 '자생력 제고'를 중심으로 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① 판로·컨설팅 등 간접지원은 내실화하고 신규고용을 위한 인건비 등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
②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사회적가치·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을 차등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 공공·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③ 우수한 사회적기업의 규모화(scale-up)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ESG 경영 등과 연계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투자자가 수익률뿐만 아니라 ESG 경영관점에서 사회적성과 등을 기준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체계를 조성
④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돌봄 · 간병 · 가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기업 역할을 확대, 돌봄 · 간병 · 가사 분야 특화 컨설팅 및 모태펀드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경영역량을 강화

특히, 사회적 가치와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 체계를 도입하고, 민간 자본과 연계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성과 측정을 위한 사회적 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도입 및 경영공시 자료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객관적 성과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는 사회적기업 지원체계를 일반기업과 유사하게 조정함에 따라 일반기업과의 차별성을 파악하고 사회적기업만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자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의 객관적 현황과 사회적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비교를 통하여 사회적기업만의 특성을 도출하고, 기업규모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을 비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성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적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제2절 주요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5년 4월 제출)

사회적기업 기초 통계 분석은 사회적기업이 제출하고 있는 사업보고서 자료를 통해 분석을 진행한다. 인증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 회계연도 4월 말과 10월 말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 전년도 자료를 다음 해 4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2024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는 2025년 4월까지 제출이 완료되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사업보고서 양식은 총 네 차례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길현종 외, 2013, 2018), 본 연구에 활용된 사업보고서는 2017년 개편되어 현재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4월 제출 사업보고서 오프라인 양식은 [그림 1-1]과 같다.

2025년 4월 기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인증사회적기업은 3,699개소로, 전체의 97.5%에 해당한다. 최근 3년간 사업보고서 제출률은 평균 97.4%로, 사회적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자료로 평가된다. 한편, 대체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또는 반납, 휴폐업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1-1> 연도별 사업보고서 제출 사회적기업의 수

(단위 : 개소, %)

연도	사회적기업	제출기업	
	개소	개소	제출 비율
2022	3,534	3,441	97.4
2023	3,737	3,637	97.3
2024	3,762	3,669	97.5

[그림 1-1] 2024년 사업보고서(2025년 4월 제출) 오프라인 양식

① 기업 현황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변경[]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민법」에 따른 조합[]「상법」에 따른 회사[]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공익법인[]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농(어)업회사법인[]영농(어)조합법인[]기타[]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 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범위					연간 개최 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등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천원(천원)		

④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민간 지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그림 1-1]의 계속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천 원	공공시장	천 원
			민간시장	천 원
	매출총이익	천 원	매출원가	천 원
	영업이익	천 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 원
	영업외수익	천 원	노무비	천 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 원	영업외비용	천 원
	당기순이익	천 원	법인세 등	천 원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⑥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 원	시간
	비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 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천 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보건□사회복지□보육□환경□ 간병・가사 지원□산림□고용□청소□ 문화・예술□ 관광・운동□ 문화재□ 기타□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비취약계층			명
				명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⑩ 연계 현황	연계 기업	1.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2.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2.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월일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귀하

제3절 연구 구성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주요 현황과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표 1-2>의 순으로 구분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조직 전반의 현황과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제3장 및 제4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와 경제적성과를 제시할 것이다.

사회적성과와 경제적성과는 기존 연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표 1-2> 2024 사회적기업 기초 통계 분석 연구보고서의 구성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서론	· 연구 방향 · 주요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5년 4월 제출) · 연구의 구성
제2장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기업 현황	·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원제도 ·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분포, 지원금 및 기타 영업외수익)
제3장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 분석	· 취약계층 고용 · 사회서비스 제공 ·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 사회적 목적 재투자
제4장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과 분석	· 재정성과(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지출(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 영업외비용, 노무비) · 기타성과지표(노동생산성, 비취약계층 고용)
제5장 요약 및 결과해석	· 분석 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제2장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기업 현황

제2장에서는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의 개요 및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정리한 후, 인증사회적기업 일반 현황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를 활용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 중 후자인 인증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에는 조직 특성별 분포와 사회경제적 성과로 분류되기 어려운 지원금 및 기타 영업외 수익에 대한 정보가 제시될 것이다.

제1절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과 정부 지원 정책

사회적경제는 2017년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이후 시장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대체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2021년 정부 평가에서도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2016년 20,459개에서 2020년 31,724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취약계층 취업자 수도 사회적기업 기준 2016년 23,858명, 2020년 33,20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경제의 양적·질적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성숙기 문턱에서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계점으로는 매출의 높은 공공조달 의존도, 기부·자원봉사 등 시민 활동 연계기반 미흡, 글로벌 ESG 트렌드 대응 및 디지털·그린 전환 적응 역량 부족 등을 예시로 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1].

이에 2023년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 발표에서는 우수 사회적기업의 규모화 지원을 위해 사회적가치·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돌봄 · 간병 · 가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기업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 2023.09)[2].

1) 관계부처 합동(2021.12.1.). "문재인 정부 4년반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
2) 고용노동부(2023.09.01.). "제4차 사회적 기본계획('23~'27) 발표"

제2절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이하에서는 2024년 사업보고서 자료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인증사회적기업의 일반적인 특성과 사회적기업 지원금에 대해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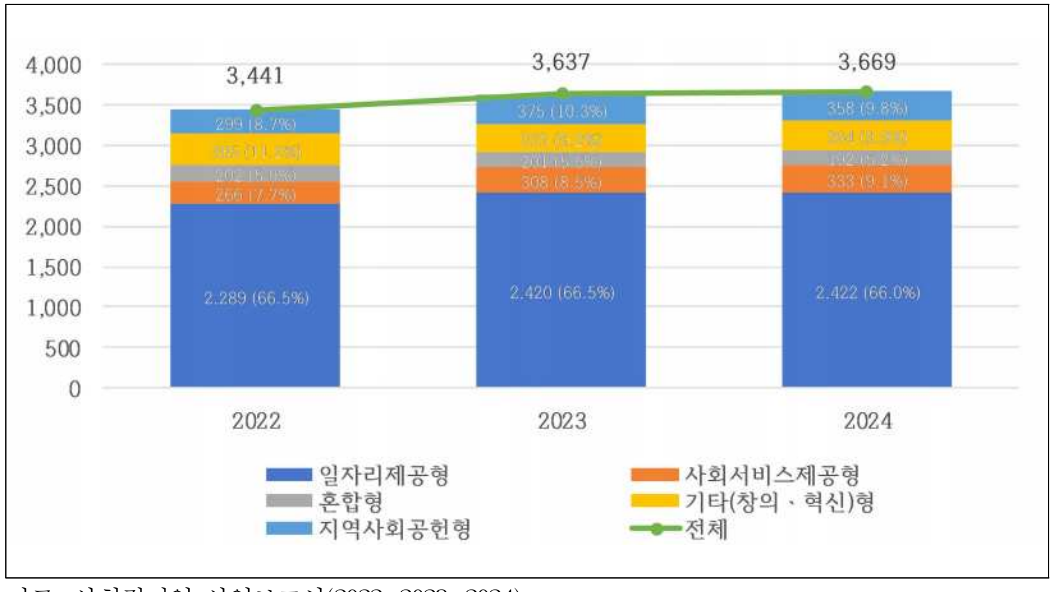
1. 사회적기업의 분포

먼저, 본 연구에 포함된 인증사회적기업의 수를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제시하면 [그림 2-1]과 같다. 202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총 3,669개소로 전년 대비 32개소 증가했다.

사업보고서 제출 인증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확인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19.1%)와 서울(15.9%)로 전체 인증사회적기업의 약 35.0%에 해당된다. 반면 사회적기업이 가장 적게 소재한 지역은 4.0% 미만을 기준으로 세종(0.8%), 제주(2.5%), 울산(3.1%), 대전(3.2%), 대구(3.6%)이며, 이외 다른 지역은 4.0~7.2%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수

(단위 : 개소)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표 2-1>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수

(단위 : 개소, %)

구분	개소	백분율
서울	583	15.9
부산	174	4.7
대구	131	3.6
인천	198	5.4
광주	153	4.2
대전	116	3.2
울산	113	3.1
세종	31	0.8
경기	702	19.1
강원	193	5.3
충북	150	4.1
충남	159	4.3
전북	219	6.0
전남	198	5.4
경북	265	7.2
경남	191	5.2
제주	93	2.5
전체	3,669	100.0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다음 <표 2-2>는 이들 인증사회적기업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한 결과이다. 먼저 인증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인증을 받은 기업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6~2024년에 인증을 받은 기업 수가 2,705개소(73.7%)로 2007~2015년에 인증을 받은 기업 수인 964개소(2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한편,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2021년과 2022년, 2023년에 비해 2024년의 인증사회적기업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업, 인증 반납 등으로 인한 인증연도별 기업 수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인증유형을 볼 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일자리제공형(66.0%)으로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는 기타(창의・혁신)형(9.9%)로 전년대비 0.4%p 감소, 지역사회공헌형(9.8%)은 전년대비 0.6%p 증가, 사회서비스제공형(9.1%)은 0.6%p 증가하였다.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일자리제공형이 결합된 혼합형(192개소, 5.2%)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인증사회적기업 중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71.2%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최근 3년간 인증유형을 살펴본 결과, 일자리제공형의 비중은 66% 수준으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지역사회공헌형 인증사회적기업은 꾸준히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혼합형 및 기타형 인증사회적기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는 상법상회사가 전체 인증사회적기업 2,464개소(67.2%)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상법상회사가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상법상회사의 설립이 다른 조직형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금 요건이나 인적 구성이 요구되는데, 자본구조가 취약한 기관들은 민법상법인의 형태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출자금 요건이 다소 낮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인증 초기에 상법상회사가 많았으며 특히 자활공동체가 이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곽선화 외, 2010). 한편, 추세를 보면, 일반/사회적협동조합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설립된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상당수가 지속적으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2>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의 수

(단위 : 개소)

구분		2022	2023	2024
인증연도	2007	33	32	31
	2008	97	92	90
	2009	46	46	44
	2010	124	116	113
	2011	91	90	90
	2012	105	102	97
	2013	176	161	152
	2014	187	175	161
	2015	208	192	186
	2016	209	198	188
	2017	218	197	182
	2018	276	259	243
	2019	354	331	312
	2020	407	394	365
	2021	487	470	436
	2022	423	412	386
	2023	-	370	357
	2024	-	-	236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289	2,420	2,422
	사회서비스제공형	266	308	333
	혼합형	202	201	192
	기타(창의・혁신)형	385	375	364
	지역사회공헌형	299	333	358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304	309	307
	비영리민간단체	61	54	53
	사회복지법인	74	74	71
	상법상회사	2,304	2,447	2,46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1	11	10
	영농조합법인	118	109	104
	일반/사회적협동조합	569	633	660
	기타	-	-	-
전체		3,441	3,637	3,669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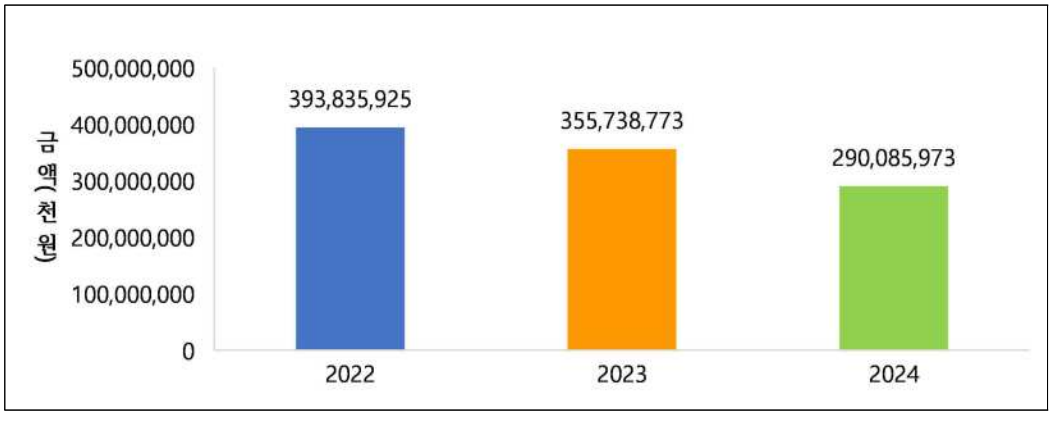
2. 사회적기업 지원금

이어서 인증사회적기업의 지원금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일부 정부보조금의 경우 영업외수익이라는 용어를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점을 고려하여(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본 성과분석에서는 지원금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정부지원 및 일반지원에 대해 분석하였다. 순수한 지원금 및 기타 영업외수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에 활용되는 지원금 및 기타 영업외수익에서 금융지원은 제외한다. 정부지원에는 일자리창출사업지원금, 전문인력사업지원금, 사업개발비지원금, 사회보험료지원금, 기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을 대상으로 하며 정책자금은 제외하였다. 민간지원에는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영업외수익 금액이 포함되며 민간금융지원은 제외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전체 지원금 총액의 추이를 확인해보면 다음 [그림 2-2]와 같다. 2024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은 약 2천 9백억 원으로, 2023년(약 3천 6백억 원) 대비 약 1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

(단위 : 천 원)



주 :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해보면 아래의 [그림 2-3]과 같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10.9% 감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24% 감소하였다. 기타 민간지원의 경우에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후원의 경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기업후원을 받은 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9.6% 감소하였다. 모기관지원의 경우 2023년은 전년 대비 약 88.1%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16.2% 감소했다. 일반기부는 2023년은 전년 대비 약 35.3% 증가하였고, 2024년은 전년 대비 약 10.0% 증가하였다.

기업후원과 일반기부 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 트렌드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후원과 기부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중개 역할 강화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 기타 민간지원으로 통합되어 관리되던 항목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기업후원, 일반기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한 점이 금액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후원 및 일반기부를 받은 기업의 수가 적어 세부 내용 및 상관관계에 대한 사항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 연도별 항목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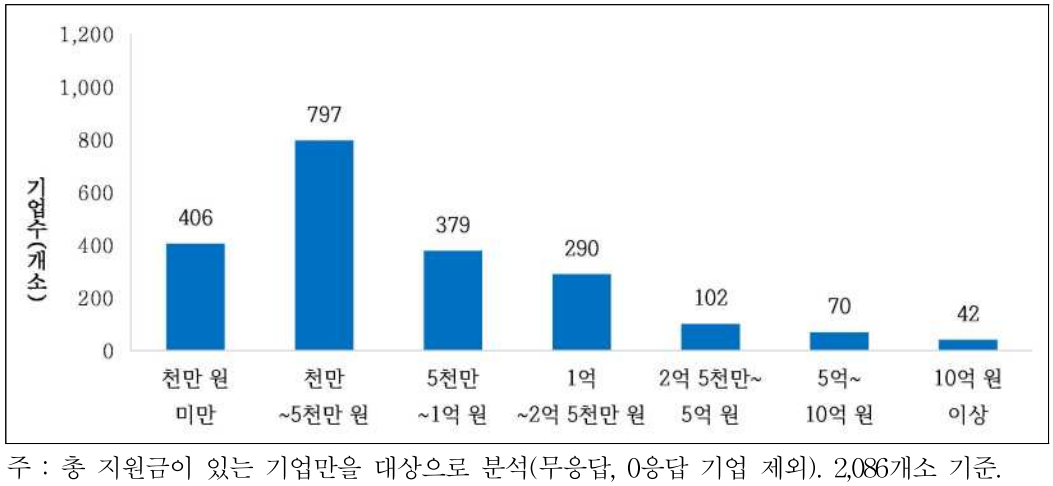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민간지원
2022	297,724,554	1,305,080	3,506,374	19,744,412	71,555,505
2023	265,189,687	24,900,889	6,595,058	26,715,838	32,337,301
2024	201,477,934	22,511,368	5,525,231	29,376,273	31,195,167

주 :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24년 정부지원 1,754개소, 기업후원 224개소, 모기관지원 89개소, 일반기부 362개소, 기타민간지원 897개소, 총지원금 2,086개소 기준.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다음으로 [그림 2-4]는 사회적기업 지원금의 금액 및 분포별 기업 수를 나타낸다. 사회적기업 중 2024년에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등 다양한 항목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인증사회적기업 3,637개소의 중 2,086개소(56.9%)로 나타났다. 지원금 액수는 천만 원~5천만 원이 797개소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그 뒤로 천만 원 미만이 406개소, 5천만 원~1억 원이 379개소, 1억 원~2억 5천만 원이 290개소, 2억 5천만 원~5억 원이 102개소, 5억 원~10억 원이 70개소, 10억 원 이상이 42개소 순이었다.

[그림 2-4]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분포별 기업 수

(단위 : 개소)



주 : 총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86개소 기준.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다음으로, 지원금을 총지원금과 개별항목(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민간지원)으로 구분한 뒤, 항목별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의 평균 및 중위값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 2-3>과 같다. 총지원금을 먼저 살펴보면, 2024년 총지원금 평균은 약 1억 3천 9백만 원, 중위값은 약 3천 9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총지원금(평균 약 9천 9백만 원, 중위값 약 3천 3백만 원)과 비교하였을 때 2024년에는 평균값과 중위값 모두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 중 정부지원의 평균 약 1억 1백만 원, 중위값은 약 3천 6백만 원으로 다른 지원금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업후원, 일반기부, 모기관지원, 기타 민간지원의 순으로 지원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후원금은 평균 약 1억 원, 중위값 약 1천만 원, 일반기부금은 평균 약 8천 1백만 원, 중위값

약 7백만 원, 모기관지원금은 평균 약 6천 2백만 원, 중위값 약 1천 3백만 원, 기타 민간지원금은 평균 약 3천 5백만 원, 중위값 약 7백만 원이었다.

<표 2-3>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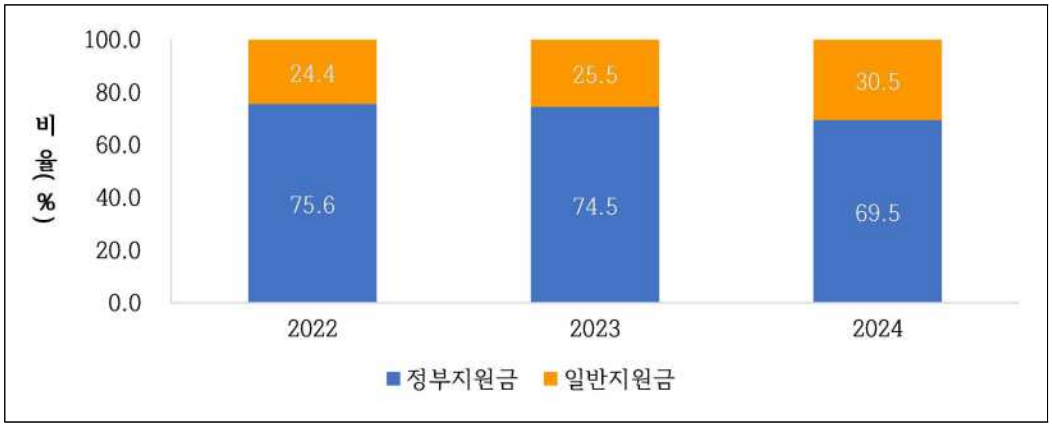
구분	2022		2023		2024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정부지원	108,067	54,420	105,192	50,242	114,868	36,039
기업후원	33,464	5,000	105,512	10,766	100,497	10,000
모기관지원	87,659	42,707	74,102	16,200	62,081	12,537
일반기부	60,380	10,460	72,597	6,448	81,150	7,480
기타 민간지원	28,361	6,136	9,398	145	34,777	6,600
총지원금	122,997	57,370	99,147	33,230	139,063	38,740

주 :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24년 정부지원 1,754개소, 기업후원 224개소, 모기관지원 89개소, 일반기부 362개소, 기타민간지원 897개소, 총지원금 2,086개소 기준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다음으로 전체 지원금 중 정부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그림 2-5]와 같다. 2024년 전체 지원금 중 정부지원금은 6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정부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의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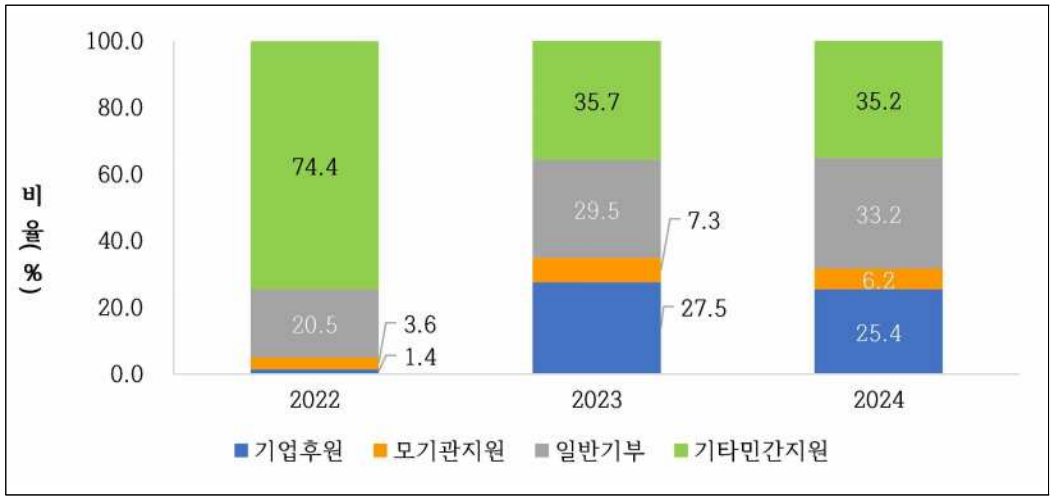


주 :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한편, [그림 2-6]에는 정부지원금 이외의 일반지원금의 비율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체비율에서 기타민간지원금은 2023년 35.7%에서 2024년 35.2%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일반기부는 2023년 29.5%에서 2024년 33.2%로 상승하였으며, 기업후원금은 2023년 27.5%에서 25.4%로, 모기관지원금은 7.3%에서 6.2%로 소폭 감소하였다. 모기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6%, 2023년 7.3%, 2024년 6.2%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일반지원금 구성비

(단위 : %)



주1 :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다음으로 전체 지원금 및 세부 지원금의 평균 및 중위값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2-4>와 같다. 먼저 지원금 총액의 평균을 살펴보면 기업 수가 15개소로 적은 세종을 제외하면 서울이 약 2억 4천 3백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전북 약 2억 1천만 원, 제주 약 2억 9백만 원, 대전 약 1억 7천 9백만 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제주 약 2억 원, 경남 약 1억 8천 5백만 원, 전북 약 1억 7천 5백만 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기업후원금은 서울 약 2억 6천 7백만 원, 경북 약 5천 3백만 원, 경남 약 5천 2백만 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기관지원금의 경우 제주 약 1억 4천 3백만 원, 광주 약 1억 3천 4백만 원, 경기 약 1억 1천 5백만 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기부금의 경우 대전

약 3억 1천 4백만 원, 서울 약 2억 2천 8백만 원, 제주 약 4천 5백만 원, 충북 약 3천 8백만 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민간지원금의 경우 전북 약 9천 3백만 원, 대전 약 6천 3백만 원, 서울 6천만 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4> 지역별 지원금

(단위 : 천 원, 개소)

지역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민간지원	총지원금
서울	평균	126,621	266,682	48,038	227,572	60,040	243,293
	기업 수	227	59	15	83	128	295
	중위값	30,000	14,000	40,000	20,622	11,826	44,200
부산	평균	92,118	22,554	17,957	6,418	14,274	89,587
	기업 수	74	5	6	16	27	84
	중위값	28,578	11,000	13,310	3,796	3,096	29,292
대구	평균	61,075	12,985	-	16,226	20,588	64,335
	기업 수	65	65	-	10	33	76
	중위값	30,002	11,000	-	1,629	5,334	36,054
인천	평균	78,473	11,515	47,108	5,822	18,042	79,561
	기업 수	91	11	7	14	33	104
	중위값	27,625	5,000	3,000	1,975	7,722	26,887
광주	평균	118,434	17,329	133,868	24,174	26,261	126,483
	기업 수	74	5	4	6	32	82
	중위값	37,413	5,000	45,737	8,563	11,448	40,494
대전	평균	92,936	26,926	3,598	313,559	63,109	179,245
	기업 수	59	7	1	15	23	66
	중위값	44,819	4,000	3,598	20,866	3,913	43,780
울산	평균	93,811	25,347	12,510	9,401	14,296	81,685
	기업 수	42	3	4	13	27	56
	중위값	39,068	16,590	11,380	2,780	2,455	31,126
세종	평균	80,698	-	254	2,460	37,030	80,158
	기업 수	13	-	1	2	4	15
	중위값	47,502	-	254	2,460	36,368	70,754
경기	평균	110,150	61,944	114,900	24,213	30,020	123,232
	기업 수	358	60	18	85	4	427
	중위값	37,697	9,904	14,800	5,785	6,620	42,902

<표 2-4>의 계속

지역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민간지원	지원금총액
강원	평균	116,040	13,632	39,688	17,375	43,248	119,122
	기업 수	87	13	5	17	32	102
	중위값	30,293	9,082	1,080	3,000	6,620	35,764
충북	평균	75,655	40,860	15,000	38,155	29,271	84,694
	기업 수	56	6	1	11	23	66
	중위값	30,429	6,581	15,000	25,741	11,456	37,705
충남	평균	82,597	16,103	78,544	21,711	13,209	83,574
	기업 수	84	8	5	17	59	103
	중위값	33,433	8,250	20,000	7,306	1,809	31,504
전북	평균	174,933	49,193	16,559	35,044	92,866	210,453
	기업 수	123	7	4	17	77	141
	중위값	31,000	5,000	11,150	7,320	7,107	27,760
전남	평균	79,409	2,099	23,000	9,301	10,674	77,668
	기업 수	94	5	5	9	16	101
	중위값	34,612	1,500	5,760	4,532	2,267	33,310
경북	평균	107,220	53,399	8,702	22,454	17,846	107,977
	기업 수	151	15	5	18	124	182
	중위값	44,340	10,800	9,975	8,683	4,123	45,382
경남	평균	184,575	51,627	10,200	23,532	13,914	165,029
	기업 수	101	7	2	17	51	122
	중위값	34,220	12,000	10,200	5,806	3,638	32,206
제주	평균	200,971	46,215	143,050	44,987	19,996	208,983
	기업 수	55	7	6	12	30	64
	중위값	65,203	29,680	161,000	7,559	10,063	58,258
전체	평균	114,868	100,497	62,081	81,150	34,777	139,063
	기업 수	1,754	224	89	362	897	2,086
	중위값	36,039	10,000	12,537	7,480	6,600	38,740

주 :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다음으로 지원금 평균과 중위값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지원금 평균과 중위값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나누어 확인해보면 다음 <표 2-5>와 같다. 먼저, 인증연도를 확인해보면 지원금 총액에 있어서 2007년 인증

기업의 경우 평균 금액이 약 10억 6천 2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2017년 인증기업의 평균 금액이 약 6천 6백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2007년 인증기업의 경우 평균 금액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평균과 중위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원금을 받는 기업 간에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인증유형의 경우 기타(창의·혁신)형의 지원금 총액이 약 2억 1천 8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사회서비스제공형이 약 1억 8천 9백만 원, 일자리제공형이 약 1억 3천만 원, 지역사회공헌형이 약 9천 9백만 원, 혼합형이 9천 4백만 원 순이었다. 인증유형별로 세부 지원금 평균 금액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정부지원금과 일반기부금, 모기관지원금은 기타(창의·혁신)형이, 기업후원금은 지역사회공헌형이, 기타 민간지원금은 일자리제공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의 경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인의 지원금 총액 평균이 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정부지원금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후원금, 모기관지원금, 일반기부금, 기타민간지원금에서는 민법상법인의 지원금 총액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지원금 평균, 중위값 및 기업 수

(단위 : 천 원, 개소)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지원금총액
인증연도	2007	평균	686,119	323,674	24,988	909,388	71,511	1,061,838
		중위값	16	6	2	9	16	21
		기업 수	66,203	44,387	24,988	11,152	13,308	148,006
	2008	평균	381,057	38,457	121,212	32,173	43,618	387,217
		중위값	49	10	13	20	36	59
		기업 수	68,625	5,000	48,629	15,576	23,599	105,175
	2009	평균	366,582	61,547	178,760	35,738	14,509	283,773
		중위값	17	3	2	10	17	26
		기업 수	44,126	28,641	178,760	16,037	2,869	27,963
	2010	평균	226,076	70,666	50,687	32,558	31,448	197,335
		중위값	49	10	9	16	46	72
		기업 수	57,042	14,578	38,816	4,760	6,788	43,750
	2011	평균	218,469	40,978	75,767	24,888	221,840	328,204
		중위값	37	12	5	19	30	49
		기업 수	50,000	15,000	55,000	5,000	6,697	42,850
	2012	평균	243,934	53,535	37,787	14,147	16,465	221,466
		중위값	42	6	8	19	23	52
		기업 수	48,085	4,500	17,050	8,180	10,840	49,623

<표 2-5>의 계속1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지원금총액
인증 연도	2013	평균	137,486	33,312	13,966	61,484	19,803	142,212
		중위값	61	12	6	16	41	75
		기업 수	54,359	12,000	11,268	3,765	4,996	50,770
	2014	평균	194,711	61,416	45,398	30,215	27,770	175,307
		중위값	60	8	6	13	49	81
		기업 수	37,118	10,550	3,150	9,230	3,529	34,805
	2015	평균	237,833	25,482	38,694	18,727	17,827	179,476
		중위값	66	8	4	17	48	96
		기업 수	17,649	18,153	10,500	4,350	4,017	18,449
	2016	평균	90,084	40,111	1,627	222,777	48,211	145,045
		중위값	59	13	2	22	54	92
		기업 수	26,824	7,640	1,627	16,172	7,305	29,440
	2017	평균	45,540	12,050	600,340	19,601	26,143	65,586
		중위값	67	16	2	11	40	87
		기업 수	20,922	5,000	600,340	4,580	4,761	21,151
	2018	평균	101,131	40,812	1,000	17,202	33,318	107,079
		중위값	95	12	1	18	54	114
		기업 수	22,370	9,160	1,000	11,021	10,433	29,211
	2019	평균	46,406	192,138	110,000	25,708	29,993	75,533
		중위값	114	14	3	24	65	144
		기업 수	18,167	18,000	17,000	5,138	7,491	22,772
	2020	평균	78,209	174,414	5,760	34,470	30,805	105,906
		중위값	184	25	1	27	76	208
		기업 수	30,244	6,500	5,760	7,800	5,656	33,708
	2021	평균	84,002	328,760	3,096	182,198	26,217	131,571
		중위값	262	21	5	39	96	293
		기업 수	47,587	15,000	2,100	4,635	7,027	49,877
	2022	평균	70,270	70,304	22,232	46,219	22,655	86,084
		중위값	232	19	8	38	86	250
		기업 수	43,171	4,000	5,955	4,494	6,552	47,339
	2023	평균	68,691	46,169	20,520	38,748	14,769	76,365
		중위값	210	15	5	27	62	225
		기업 수	36,149	20,000	400	13,299	5,466	39,209
	2024	평균	74,874	14,218	8,153	20,656	27,681	86,238
		중위값	134	14	7	17	58	142
		기업 수	32,757	6,059	9,000	3,000	2,482	37,890
인증 유형	일자리 제공형	평균	120,218	36,831	67,630	37,535	37,722	129,635
		중위값	1,175	115	70	207	585	1,389
		기업 수	41,421	7,075	14,550	5,806	6,504	41,713
	사회 서비스 제공형	평균	122,202	205,545	13,804	166,561	32,913	189,284
		중위값	166	31	5	44	81	194
		기업 수	28,673	6,500	9,000	15,396	7,281	38,259

<표 2-5>의 계속2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지원금총액
인증유형	혼합형	평균	86,484	47,720	9,800	31,424	24,063	94,380
		중위값	77	17	2	29	47	101
		기업 수	23,935	6,000	9,800	6,699	8,510	26,820
	기타(창의·혁신)형	평균	139,541	122,871	73,119	270,941	29,806	217,603
		중위값	164	43	8	45	101	202
		기업 수	25,367	12,500	29,946	42,216	5,000	38,043
	지역사회공헌형	평균	60,423	322,735	29,388	31,735	27,958	99,071
		중위값	172	18	4	37	83	200
		기업 수	27,101	19,961	8,650	8,424	4,449	33,251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평균	289,925	371,062	206,296	242,381	67,918	434,898
		중위값	158	35	10	89	99	205
		기업 수	77,123	28,641	45,641	12,075	8,979	89,346
	비영리민간단체	평균	121,662	29,336	20,815	22,325	9,422	127,672
		중위값	20	4	3	9	13	23
		기업 수	54,494	23,450	17,300	13,299	1,498	76,748
	사회복지법인	평균	747,403	95,414	78,522	19,293	25,055	719,565
		중위값	48	12	36	42	43	58
		기업 수	676,816	13,000	39,408	8,357	16,571	648,880
	상법상회사	평균	63,472	31,515	10,173	12,302	32,203	70,467
		중위값	1,106	98	29	73	534	1,301
		기업 수	30,447	5,835	1,645	1,200	5,466	31,14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균	91,327	-	-	2,105	732	92,151
		중위값	6	0	0	2	1	6
		기업 수	83,420	-	-	2,105	732	84,025
	영농조합법인	평균	66,452	200	2,627	23,976	14,627	66,573
		중위값	52	1	2	3	27	59
		기업 수	38,144	200	2,627	4,000	6,415	39,993
	일반/사회적협동조합	평균	118,565	69,909	30,307	40,409	31,552	138,484
		중위값	364	74	9	144	180	434
		기업 수	35,591	9,160	9,600	10,979	7,532	44,539
전체		평균	114,868	100,497	62,081	81,150	34,777	139,063
		중위값	1,754	224	89	362	897	2,086
		기업 수	36,039	10,000	12,537	7,480	6,600	38,740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한편, <표 2-6>은 전체 지원금에서 차지하는 세부 항목 비율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이다. 정부지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정부지원의 비율이 70~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2-6>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지원금 비율

(단위 : %)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계
인증연도	2007	49.2	8.7	0.2	36.7	5.1	100.0
	2008	81.7	1.7	6.9	2.8	6.9	100.0
	2009	84.5	2.5	4.8	4.8	3.3	100.0
	2010	78.0	5.0	3.2	3.7	10.2	100.0
	2011	50.3	3.1	2.4	2.9	41.4	100.0
	2012	89.0	2.8	2.6	2.3	3.3	100.0
	2013	78.6	3.7	0.8	9.2	7.6	100.0
	2014	82.3	3.5	1.9	2.8	9.6	100.0
	2015	91.1	1.2	0.9	1.8	5.0	100.0
	2016	39.8	3.9	0.0	36.7	19.5	100.0
	2017	53.5	3.4	21.0	3.8	18.3	100.0
	2018	78.7	4.0	0.0	2.5	14.7	100.0
	2019	48.6	24.7	3.0	5.7	17.9	100.0
	2020	65.3	19.8	0.0	4.2	10.6	100.0
	2021	57.1	17.9	0.0	18.4	6.5	100.0
	2022	75.8	6.2	0.8	8.2	9.1	100.0
	2023	84.0	4.0	0.6	6.1	5.3	100.0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81.9	1.6	0.5	2.9	13.1	100.0
	사회서비스제공형	78.4	2.4	2.6	4.3	12.3	100.0
	혼합형	55.2	17.4	0.2	20.0	7.3	100.0
	기타(창의・혁신)형	69.9	8.5	0.2	9.6	11.9	100.0
	지역사회공헌형	52.1	12.0	1.3	27.7	6.8	100.0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52.5	29.3	0.6	5.9	11.7	100.0
	비영리민간단체	51.4	14.6	2.3	24.2	7.5	100.0
	사회복지법인	82.9	4.0	2.1	6.8	4.2	100.0
	상법상회사	86.0	2.7	6.8	1.9	2.6	10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6.6	3.4	0.3	1.0	18.8	100.0
	영농조합법인	99.1	0.0	0.0	0.8	0.1	100.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88.0	0.0	0.1	1.8	10.1	100.0
전체		71.8	8.6	0.5	9.7	9.4	100.0

주 :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표 2-7>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지원금

(단위 : 천 원)

구분		2022					2023					2024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평균 일반 기부금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평균 일반 기부금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평균 일반 기부금
인증 연도	2007	396,107	398,465	-	33,996	17,815	702,452	641,561	327674	29,563	876,957	1,061,838	686,119	323,674	24,988	1,546,674
	2008	262,643	247,841	68,799	118,548	42,756	234,472	316,829	47,732	120,970	59,945	387,217	381,057	38,457	121,212	742,808
	2009	189,932	179,779	202,500	291776	23,647	138,088	212,485	47,720	354,361	27,109	283,773	366,582	61,547	178,760	615,051
	2010	132,461	137,530	20,490	53,596	19,418	142,350	253,295	10,817	76,850	15,578	197,335	226,076	70,666	50,687	254,441
	2011	195,719	163,235	25,925	119,720	19,602	123,391	217,739	26,229	58,466	17,286	328,204	218,469	40,978	75,767	446,781
	2012	163,561	200,681	5,000	53511	11,719	109,554	239,268	63,034	56,515	7,350	221,466	243,934	53,535	37,787	519,126
	2013	105,831	112,722	5,000	19,697	32,783	63,569	117,334	59,346	24,728	43,847	142,212	137,486	33,312	13,966	326,064
	2014	127,638	129,649	45,193	110,000	23,143	64,852	132,542	33,837	54,952	17,015	175,307	194,711	61,416	45,398	439,957
	2015	107,666	100,749	35,679	-	18,919	88,118	175,166	28,325	86874	15,026	179,476	237,833	25,482	38,694	709,281
	2016	138,731	94,163	16,154	-	201,768	70,051	73,066	50,231	9770	188,371	145,045	90,084	40,111	1,627	437,885
	2017	65,256	56,569	14,873	-	26,400	40,319	51,301	8,885	442999	18,048	65,586	45,540	12,050	600,340	83,214
	2018	98,267	80,663	17,705	-	136,110	58,879	66,554	24,891	6600	15,538	107,079	101,131	40,812	1,000	208,049
	2019	129,079	108,472	5000	-	38,237	68,402	64,970	178,952	50624	53,677	75,533	46,406	192,138	110,000	206,411
	2020	108,810	97,982	5,478	-	21,946	100,991	90,877	237,184	2000	19,458	105,906	78,209	174,414	5,760	127,674
	2021	126,490	107,049		-	187,595	130,338	109,082	278247	4855	154,717	131,571	84,002	328,760	3,096	477,496
	2022	87852	79717	5000	-	30623	87,045	83,743	102,796	5542	27,068	86,084	70,270	70,304	22,232	134,609
	2023	-	-	-	-	-	98,495	69,852	34,727	112751	28,231	76,365	68,691	46,169	20,520	142,520
	2024	-	-	-	-	-	-	-	-	-	-	86,238	74,874	14,218	8,153	230,091

<표 2-7>의 계속

구분		2022					2023					2024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평균 일반 기부금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평균 일반 기부금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평균 일반 기부금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24,567	110,733	37,514	89,442	52,273	95,836	111,731	33,894	75,876	34,327	129,635	120,218	36,831	67,630	37,535
	사회서비스제공형	122,789	94,895	82,347	-	129,012	126,554	100,442	169,081	94,284	152,895	189,284	122,202	205,545	13,804	166,561
	혼합형	90,315	92,584	5,000	53,790	34,691	54,624	77,073	45,690	92,133	22,658	94,380	86,484	47,720	9,800	31,424
	기타(창의・혁신)형	138,676	115,956	10,005	-	45,567	120,575	100,067	129598	53,702	229,352	217,603	139,541	122,871	73,119	270,941
	지역사회공헌형	114,104	101,120	5,261	-	61,053	100,236	83,636	424,648	11,920	47,720	99,071	60,423	322,735	29,388	31,735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254,297	214,654	15038	65,828	120,534	294,399	265899	398,394	257,242	204,938	434,898	289,925	371,062	206,296	242,381
	비영리민간단체	140,250	135,499	-	45,354	29,287	76,496	106,606	18,681	126,937	26,111	127,672	121,662	29,336	20,815	22,325
	사회복지법인	623,861	645,193	-	97,559	23,309	649,602	692,334	85,574	93,489	33,011	719,565	747,403	95,414	78,522	19,293
	상법상회사	88,825	78,658	19,948	5,600	8,974	61,467	73,378	34,216	20,742	7,929	70,467	63,472	31,515	10,173	12,30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46,521	146,127	32,548	-	8,325	107,387	122,410	37,000	-	7,116	92,151	91,327	-	-	2,105
	영농조합법인	80,919	79,750	-	-	4,000	57,538	76,332	1,078	5,000	2,250	66,573	66,452	200	2,627	23,976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28,288	104,640	94,150	-	46,094	95,331	91,122	65,073	32,272	42,702	138,484	118,565	69,909	30,307	40,409
	기타	-	-	-	-	-	-	-	-	-	-	-	-	-	-	-

주 :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2022~2024년 총지원금 및 세부 지원금 평균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로 구분해 비교한 결과는 <표 2-7>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인증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 지원금 규모는 최근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들이 과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정부지원금 평균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인증유형과 조직형태별로 살펴보면, 인증유형별로는 '평균 지원금(전체)'의 경우 2024년 기준 기타(창의·혁신)형이 약 2억 2천만 원, 사회서비스제공형이 약 1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제공형 및 기타(창의·혁신)형, 혼합형은 2023년에 감소했다가 2024년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사회서비스제공형은 꾸준히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냈다. 반면, 지역사회공헌형은 전체적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조직형태별로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상법상회사, 영농조합법인,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은 2023년에 감소한 뒤 2024년에 다시 증가한 반면, 민법상법인, 사회복지법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는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다음의 <표 부가분석 2-1>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2022~2024년 전체 지원금, 정부지원금, 민간지원금, 지원금 비율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부가분석 2-2>에서는 전체 지원금을 지역 및 표준산업분류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지원금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22, 2023, 2024)

<표 부가분석 2-1> 지원금 총액 분석

(단위 : 천 원, %)

항목			2022	2023	2024
전체지원금	전체총액		393,835,925	355,738,773	290,085,973
	인증연도	2007	12,279,321	21,776,009	22,298,598
		2008	24,163,138	21,102,513	22,845,816
		2009	8,167,085	5,937,805	7,378,093
		2010	15,762,912	16,227,856	14,208,099
		2011	17,027,539	11,105,174	16,081,999
		2012	15,374,726	10,955,406	11,516,211
		2013	17,144,606	10,170,979	10,665,873
		2014	19,911,470	10,960,002	14,199,905
		2015	18,841,582	16,301,792	17,229,650
		2016	25,526,461	13,519,918	13,344,130
		2017	12,463,978	7,781,599	5,706,001
		2018	24,861,473	15,073,034	12,206,985
		2019	42,467,080	22,299,011	10,876,778
		2020	43,197,502	39,487,412	22,028,490
		2021	60,715,416	61,128,416	38,550,445
		2022	35,931,635	35,862,519	21,520,925
		2023	-	36,049,327	17,182,145
		2024	-	-	12,245,831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65,451,858	229,239,068	180,062,354
		사회서비스제공형	30,697,290	38,599,029	36,721,123
		혼합형	17,250,124	10,651,679	9,532,347
		기타(창의・혁신)형	48,259,402	44,371,496	43,955,879
		지역사회공헌형	32,177,251	32,877,501	19,814,272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70,440,365	89,497,171	89,154,094
		비영리민간단체	7,713,757	4,130,759	2,936,445
		사회복지법인	46,165,725	46,771,319	41,734,761
		상법상회사	189,552,305	148,687,888	91,677,86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611,729	1,181,257	552,903
		영농조합법인	8,820,183	5,983,958	3,927,83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69,531,861	59,486,421	60,102,080
		기타	-	-	-
정부지원금	전체총액		297,724,554	265,189,687	201,477,934
	인증연도	2007	8,367,775	10,264,975	10,977,903
		2008	17,101,009	15,524,613	18,671,772

	항목		2022	2023	2024
정부지원금	인증연도	2009	5,752,916	4,674,667	6,231,890
		2010	11,415,009	13,931,203	11,077,719
		2011	11,263,193	9,362,778	8,083,343
		2012	12,642,886	9,570,739	10,245,218
		2013	12,173,997	7,626,735	8,386,645
		2014	13,742,753	9,410,470	11,682,677
		2015	12,593,658	14,013,315	15,696,962
		2016	13,747,832	6,648,988	5,314,948
		2017	9,107,646	5,335,318	3,051,195
		2018	19,036,467	12,445,516	9,607,447
		2019	34,168,560	16,372,413	5,290,332
		2020	37,135,056	30,716,405	14,390,543
		2021	48,386,259	46,359,708	22,008,475
		2022	31,089,538	31,487,246	16,302,651
		2023	-	21,444,597	14,425,135
		2024	-	-	10,033,078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00,758,388	187,484,228	141,255,577
		사회서비스제공형	21,825,796	22,699,978	20,285,558
		혼합형	13,702,480	8,092,634	6,659,267
		기타(창의・혁신)형	34,438,976	24,916,683	22,884,725
		지역사회공헌형	26,998,913	21,996,164	10,392,809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50,228,974	49,457,230	45,808,120
		비영리민간단체	5,555,463	2,984,959	2,433,247
		사회복지법인	38,066,395	38,078,387	35,875,324
		상법상회사	143,628,777	122,980,859	70,200,02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315,142	1,101,692	547,961
		영농조합법인	7,655,979	5,572,227	3,455,506
		일반/사회적협동조합	51,273,824	45,014,332	43,157,755
		기타	-	-	-
민간지원금	전체총액		96,111,372	90,549,086	88,608,039
	인증연도	2007	3,911,546	11,511,034	11,320,695
		2008	7,062,130	5,577,901	4,174,045
		2009	2,414,169	1,263,138	1,146,203
		2010	4,347,904	2,296,653	3,130,380
		2011	5,764,346	1,742,397	7,998,656
		2012	2,731,841	1,384,667	1,270,993
		2013	4,970,610	2,544,244	2,279,228
		2014	6,168,717	1,549,531	2,517,228
		2015	6,247,924	2,288,478	1,532,688
		2016	11,778,629	6,870,930	8,029,182
		2017	3,356,332	2,446,281	2,654,806
		2018	5,825,005	2,627,517	2,599,538
		2019	8,298,520	5,926,598	5,586,446
		2020	6,062,446	8,771,007	7,637,947
		2021	12,329,157	14,768,707	16,541,969
		2022	4,842,097	4,375,273	5,218,274
		2023	-	14,604,730	2,757,009
		2024	-	-	2,212,753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64,693,469	41,754,840	38,806,777
		사회서비스제공형	8,871,494	15,899,051	16,435,565
		혼합형	3,547,644	2,559,045	2,873,080

	항목		2022	2023	2024
민간지원금	인증유형	기타(창의・혁신)형	13,820,426	19,454,813	21,071,154
		지역사회공헌형	5,178,338	10,881,337	9,421,463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20,211,391	40,039,941	43,345,974
		비영리민간단체	2,158,294	1,145,800	503,198
		사회복지법인	8,099,330	8,692,932	5,859,437
		상법상회사	45,923,528	25,707,029	21,477,83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96,587	79,565	4,942
		영농조합법인	1,164,204	411,731	472,324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8,258,037	14,472,089	16,944,326
		기타	-	-	-
지원금 비율	전체비율		0.15	0.05	0.04
	인증연도	2007	0.10	0.12	0.13
		2008	0.15	0.09	0.09
		2009	0.14	0.07	0.08
		2010	0.15	0.06	0.05
		2011	0.14	0.04	0.06
		2012	0.12	0.06	0.05
		2013	0.11	0.01	0.01
		2014	0.10	0.03	0.03
		2015	0.09	0.04	0.04
		2016	0.09	0.02	0.02
		2017	0.19	0.02	0.02
		2018	0.11	0.03	0.02
		2019	0.16	0.04	0.02
		2020	0.15	0.06	0.03
		2021	0.18	0.08	0.05
		2022	0.18	0.08	0.05
		2023	-	0.10	0.04
		2024	-	-	0.04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0.12	0.04	0.03
		사회서비스제공형	0.19	0.11	0.09
		혼합형	0.26	0.05	0.04
		기타(창의・혁신)형	0.18	0.03	0.03
		지역사회공헌형	0.18	0.08	0.05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0.16	0.11	0.10
		비영리민간단체	0.28	0.13	0.10
		사회복지법인	0.30	0.20	0.19
		상법상회사	0.13	0.03	0.0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0.07	0.03	0.02
		영농조합법인	0.12	0.03	0.0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0.19	0.07	0.06
		기타	-	-	-

주 : 지원금 비율=전체지원금총액/(전체지원금총액+매출액총액).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 지역별, 표준산업분류별 분석(2024)

<표 부가분석 2-2> 지원금 총액 분석

(단위 : 천 원, %)

전체 지원금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1,771,452	7,525,295	4,889,430	8,274,384	10,371,592	11,830,184	4,574,361	1,202,363	52,620,009	12,150,434	5,589,780	8,608,120	29,673,833	7,844,441	19,651,850	20,133,545	13,374,900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정보통신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운수업(H)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E)
		4,876,063	41,455,817	4,003,714	33,326,938	42,764,608	17,788,797	5,087,034	14,495,161	419,185	8,660,512	96,330,960	5,348,928	10,533,535	-	611,371	1,273,418	3,109,933
정부 지원금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8,742,971	6,816,711	3,969,868	7,141,075	8,764,080	5,483,204	3,940,074	1,049,071	39,433,583	10,095,466	4,236,681	6,938,142	21,516,798	7,464,444	16,190,272	18,642,116	11,053,378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정보통신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운수업(H)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E)
		3,642,872	22,214,161	3,145,778	11,560,901	34,876,675	15,197,701	4,461,897	11,150,408	151,323	3,261,858	76,677,178	2,975,355	9,065,609	-	353,298	1,068,371	1,674,550
민간 지원금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3,028,481	708,584	919,562	1,133,309	1,607,512	6,346,980	634,287	153,292	13,186,427	2,054,969	1,353,099	1,669,978	8,157,034	379,996	3,461,578	1,491,429	2,321,522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정보통신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운수업(H)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E)
		1,233,191	19,241,656	857,936	21,766,037	7,887,934	2,591,096	625,137	3,344,753	267,862	5,398,654	19,653,782	2,373,572	1,467,926	-	258,073	205,047	1,435,384
비율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03	0.03	0.04	0.02	0.04	0.05	0.03	0.02	0.03	0.04	0.02	0.04	0.08	0.03	0.04	0.07	0.12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정보통신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운수업(H)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E)
		0.02	0.11	0.03	0.02	0.06	0.02	0.06	0.07	0.02	0.05	0.03	0.04	0.19	-	0.03	0.02	0.01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제3장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분석

제3장에서는 인증사회적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사회적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해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적 투자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사회통합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편익)창출의 성과는 경제적성과 만큼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를 취약계층의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1절 취약계층의 고용

사회적기업은 복합적인 정책목표를 추구하나,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왔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을 지역사회에 통합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성과이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2010년부터는 목적 유형별로 취약계층 의무고용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취약계층은 ① 저소득자[3], ② 고령자, ③ 장애인, ④ 성매매피해자, ⑤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⑥ 북한이탈주민, ⑦ 가정폭력피해자, ⑧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⑨ 결혼이민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범죄구조피해자, ⑫ 그 밖의 취약계층 등 12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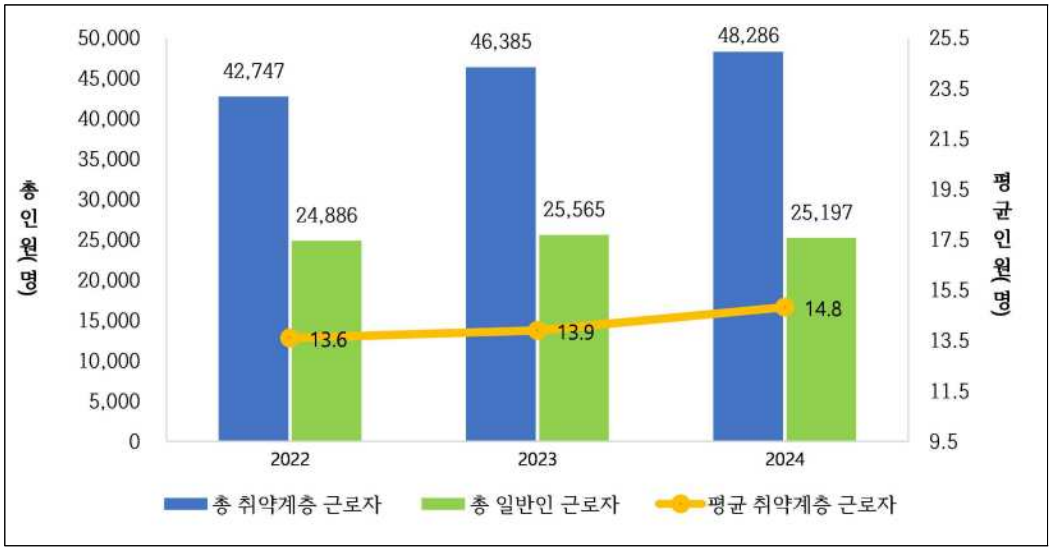
3)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1.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전체 유급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림 3-1]은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에 취업한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 수와 평균 취약계층 근로자 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22~2024년 취약계층 근로자 및 일반인 근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취약계층 근로자는 48,286명으로 전체 유급근로자 수 73,483명의 6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4년의 경우 총 취약계층 근로자는 2023년 46,385명 대비 1,901명(약 4.1%) 증가하였고, 총 일반근로자는 25,197명으로 2023년 25,565명 대비 368명(약 -1.4%)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기업당 평균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14.8명으로 2023년 13.9명에 비하여 약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연도별 취약계층, 일반인 유급근로자 수 및 평균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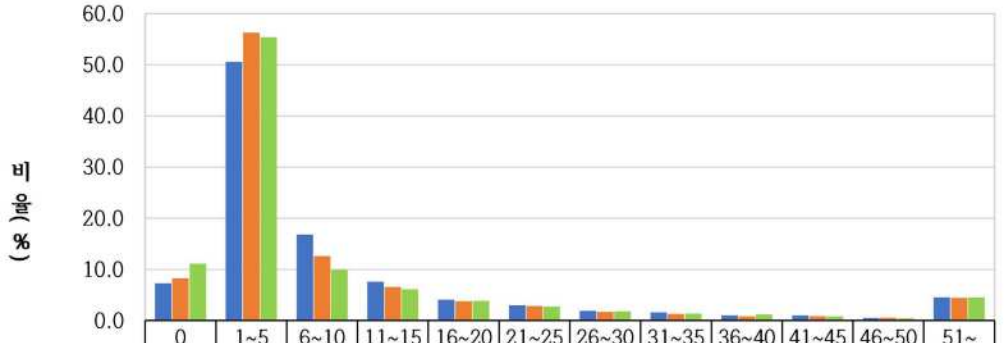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규모별 취약계층 근로자 수를 살펴보면, [그림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취약계층 근로자 10인 이하 채용 기업의 비중이 약 76.5%에 달해 소규모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가 5인 이하인 사회적기업이 약 66.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취약계층 근로자를 50인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약 4.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별 사회적기업 비율

(단위 : %)



	0	1~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51~
2022	7.3	50.6	16.8	7.6	4.1	3.0	1.9	1.6	1.0	1.0	0.5	4.5
2023	8.2	56.3	12.6	6.5	3.8	2.9	1.7	1.3	0.8	0.9	0.5	4.4
2024	11.1	55.4	9.9	6.1	3.8	2.7	1.8	1.3	1.2	0.8	0.4	4.5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표 3-1>은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 수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결과이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24년 취약계층 근로자 중 약 58.7%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편중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사회문제 수요도 크지만, 동시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 또한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근로자 수가 많은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 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역시 약 42.5%로 높게 나타나 사회적기업 내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해당 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지역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및 기초생활수급자 수

(단위 :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수		기초생활수급자 수	
서울	11,886	24.6	443,952	16.6
부산	1,759	3.6	243,110	9.1
대구	806	1.7	161,699	6.0
인천	2,553	5.3	184,260	6.9
광주	1,121	2.3	100,201	3.7
대전	1,478	3.1	80,729	3.0
울산	918	1.9	46,345	1.7
세종	1,024	2.1	9,369	0.4
경기	13,913	28.8	506,929	19.0
강원	2,401	5.0	89,150	3.3
충북	1,479	3.1	84,716	3.2
충남	1,214	2.5	97,896	3.7
전북	1,785	3.7	135,324	5.1
전남	862	1.8	110,861	4.1
경북	2,332	4.8	157,471	5.9
경남	1,952	4.0	184,319	6.9
제주	803	1.7	37,154	1.4
전체	48,286	100.0	2,673,485	100.0

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재구성.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보건복지부(2024)

<표 3-2>와 [그림 3-3]은 사회적기업 인증연도별로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취약계층 고용 규모의 경우 전체 고용 규모는 매년 증가하였고, 고용 평균 역시 증가하였다. 2024년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09년 인증기업의 평균 취약계층 고용인원이 42명으로 가장 높았고 2007년 38.4명, 2008년 29.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인증연도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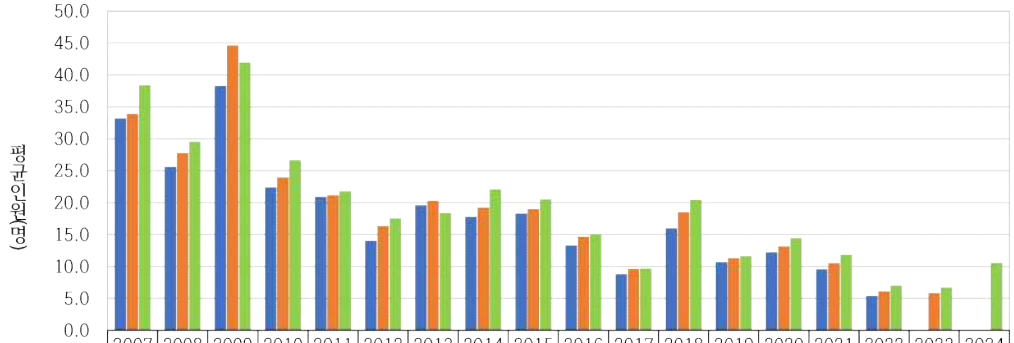
구분	2022		2023		2024	
	총유급 근로자	평균 유급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 유급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 유급근로자
2007	1,029	33.2	1,052	33.9	1,152	38.4
2008	2,329	25.6	2,498	27.8	2,569	29.5
2009	1,646	38.3	1,873	44.6	1,762	42.0
2010	2,421	22.4	2,495	24.0	2,745	26.7
2011	1,710	20.9	1,715	21.2	1,765	21.8
2012	1,361	14.0	1,556	16.4	1,547	17.6
2013	3,170	19.7	3,066	20.3	2,506	18.4
2014	3,130	17.8	3,172	19.2	3,359	22.1
2015	3,411	18.3	3,422	19.0	3,533	20.5
2016	2,504	13.3	2,581	14.7	2,557	15.0
2017	1,708	8.8	1,662	9.6	1,559	9.7
2018	3,909	16.0	4,261	18.5	4,360	20.5
2019	3,361	10.7	3,327	11.3	3,167	11.6
2020	4,586	12.2	4,770	13.2	4,639	14.5
2021	4,383	9.6	4,593	10.5	4,472	11.8
2022	2,089	5.4	2,329	6.1	2,369	7.0
2023	-	-	2,013	5.8	2,101	6.7
2024	-	-	-	-	2,124	10.6
계	42,747	13.6	46,385	13.9	48,286	14.8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한편 [그림 3-3]에서는 인증연도가 오래된 기업이 최근 인증받은 기업에 비해 취약계층 고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는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고용 경험이 누적될수록 취약계층 고용을 점차 늘려나간 결과일 수도 있고, 인증연도별 시장 및 정책 환경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진입한 기업들의 규모 자체에 편차가 달랐던 결과일 수도 있기에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3-3] 인증연도별 평균 취약계층 유급 근로자 수 추이

(단위 :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2	33.2	25.6	38.3	22.4	20.9	14.0	19.6	17.8	18.3	13.3	8.8	16.0	10.7	12.2	9.6	5.4	0.0	0.0
2023	33.9	27.8	44.6	24.0	21.2	16.4	20.3	19.2	19.0	14.7	9.6	18.5	11.3	13.2	10.5	6.1	5.8	0.0
2024	38.4	29.5	42.0	26.7	21.8	17.6	18.4	22.1	20.5	15.0	9.7	20.5	11.6	14.5	11.8	7.0	6.7	10.6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다음으로 <표 3-3>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고용현황을 제시한 결과이다.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유급 근로자 평균수를 보면,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2024년 기준으로는 사회서비스제공형이 평균 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제공형이 평균 16.7명, 혼합형이 평균 16.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총수를 기준으로 보면, 일자리제공형이 38,98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제공형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 고용 비율이 각각 30%, 20%로 의무화된 일자리제공형과 혼합형이 평균고용규모가 큰 경향이 있으나, 올해는 사회서비스제공형의 평균유급근로자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서비스제공형의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용인원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사회공헌형은 취약계층 평균 유급 근로자 수가 2024년 3.9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기타(창의·혁신)형은 취약계층 평균 근로자 수가 2024년 5.0명으로 인증유형 중 두 번째로 적고, 총 취약계층 근로자 수도 1,140명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다만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어려우나, 혁신적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업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하는 바는 적지만,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증진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3-3>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단위 : 명)

구분	2022		2023		2024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일자리제공형	34,700	15.5	37,394	15.8	38,984	16.7
사회서비스제공형	2,787	13.7	3,315	14.0	4,110	17.8
혼합형	3,105	16.3	3,395	17.8	2,941	16.1
기타(창의・혁신)형	1,169	4.7	1,189	4.9	1,140	5.0
지역사회공헌형	996	3.7	1,092	3.7	1,111	3.9
전체	42,747	13.6	46,385	13.9	48,286	14.8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표 3-4>는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고용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먼저 취약계층 평균 유급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이 평균 약 31.4명으로 가장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23.1명), 민법상법인(19.5명), 일반/사회적협동조합(18.1명), 상법상회사(13.5명), 비영리민간단체(5.1명), 영농조합법인(4.7명) 순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유급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조직형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상법상회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현재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의 약 61%인 29,431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취약계층 근로자 수를 2023년과 비교하면 사회복지법인과 영농조합법인, 비영리민간단체는 소폭 감소하였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4>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단위 : 명)

구분	2022		2023		2024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민법상법인	5,024	18.6	5,274	18.8	5,349	19.5
비영리민간단체	222	5.0	239	5.7	235	5.1
사회복지법인	2,343	31.7	2,242	30.7	2,198	31.4
상법상회사	27,122	12.8	28,888	12.8	29,431	13.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69	15.4	177	17.7	231	23.1
영농조합법인	499	4.4	523	5.2	444	4.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7,368	14.4	9,042	15.7	10,398	18.1
기타	-	-	-	-	-	-
전체	42,747	13.6	46,385	13.9	48,286	14.8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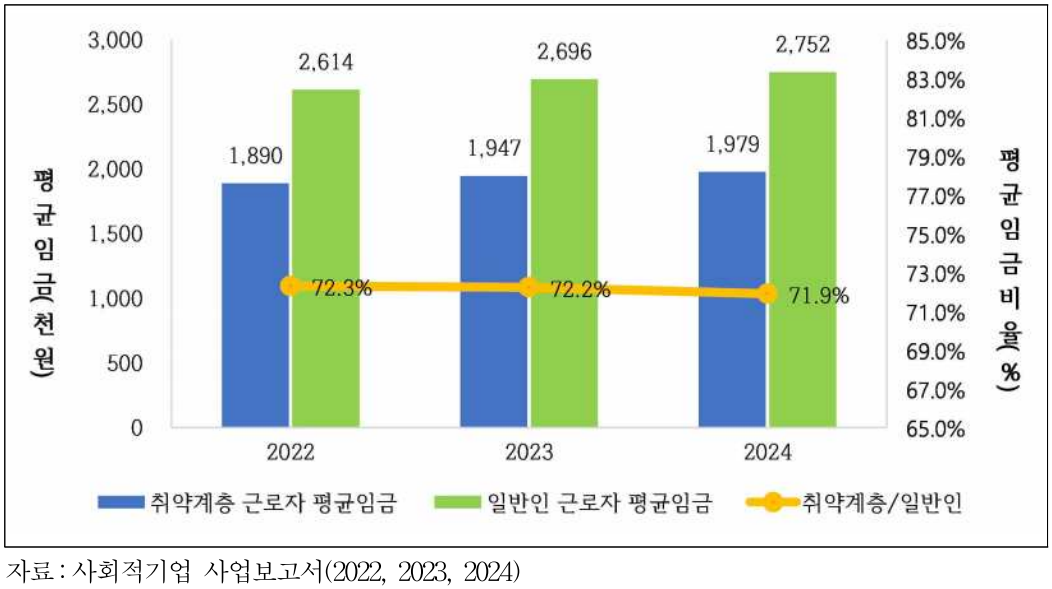
2.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앞서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성과를 양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과 같은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한다면, 이는 개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통합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림 3-4]는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취약계층과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연도별로 제시한 결과이다. 먼저 2022~2024년 취약계층과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은 약소하게 증가하였으나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이다. 2024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약 2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1% 증가하였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약 1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6% 증가하여 일반인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연도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유급근로자 평균 임금

(단위 : 천 원,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다음의 <표 3-5>는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평균임금과 임금 격차 및 순위를 나타낸 표이다. 취약계층 평균임금은 강원이 29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250만 9천원), 대전(208만 9천 원), 경기(207만 3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162만 6천 원으로

가장 낮은 평균임금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의 경우, 강원이 339만 7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312만 5천 원), 경기(290만 원), 대전(287만 6천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이 214만 5천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든 지역에서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취약계층의 평균임금을 상회하고 있다. 일반인과 취약계층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제주(90만 3천 원)이었으며, 그다음으로 충북(89만 8천 원), 서울(88만 8천 원), 경기(82만 7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 격차는 2023년 74만 9천 원에서 2024년 77만 3천 원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5>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평균 임금

(단위 : 천 원)

구분	취약계층 평균임금		일반인 평균임금		일반인-취약계층 임금격차	
	금액	순위	금액	순위	금액	순위
서울	1,743	15	2,631	8	888	3
부산	1,626	17	2,145	17	519	14
대구	1,780	14	2,226	15	446	16
인천	1,736	16	2,515	13	779	7
광주	1,791	13	2,598	9	807	5
대전	2,089	3	2,876	4	787	6
울산	1,826	12	2,357	14	531	13
세종	1,855	11	2,189	16	334	17
경기	2,073	4	2,900	3	827	4
강원	2,900	1	3,397	1	497	15
충북	1,924	8	2,822	5	898	2
충남	1,905	9	2,562	11	657	9
전북	1,995	6	2,730	7	735	8
전남	2,007	5	2,584	10	577	11
경북	2,509	2	3,125	2	616	10
경남	1,958	7	2,531	12	573	12
제주	1,856	10	2,759	6	903	1
전체	1,979		2,752		7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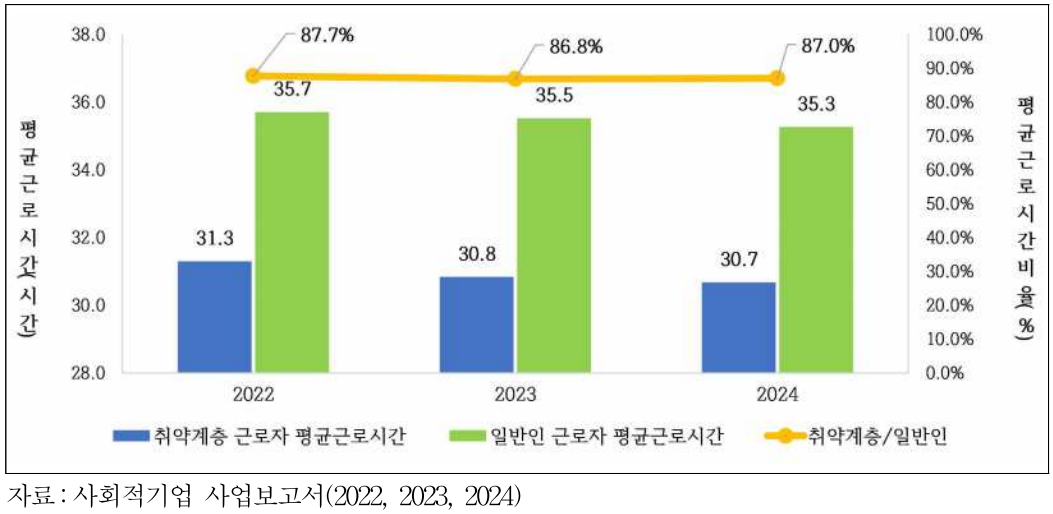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다음으로 인증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그림 3-5]와 같다. 2024년 취약계층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0.7시간이었으며, 주당 평균 35.3시간을 일하는 일반인 근로자보다 4.6시간가량 적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3년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인 근로자는 2022년 35.7시간에서 2023년 35.5시간, 2024년 35.3시간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시간 또한 2022년 31.3시간에서 2023년 30.8시간, 2024년에는 30.7시간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인 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근로자 근로시간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감을 반복하면서 최근 3년간 86~87%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3-5]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다음으로 지역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의 <표 3-6>은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시간 및 순위를 나타낸 표이다. 먼저 취약계층 평균 근로시간은 대전에서 34.2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이 27.8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평균 근로시간은 강원이 37.8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부산이 31.0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역에서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인과 취약계층 근로시간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충북 (7.5시간)이었으며, 그다음으로 광주(7.1시간), 제주(6.8시간), 전북(6.3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시간

(단위 : 시간)

구분	취약계층 평균 근로시간		일반인 평균 근로시간		일반인-취약계층 근로시간 격차	
	시간	순위	시간	순위	시간	순위
서울	28.8	15	33.9	15	5.1	11
부산	27.8	17	31.0	17	3.2	4
대구	29.7	11	34.4	13	4.7	8
인천	28.8	16	34.7	12	5.9	13
광주	29.0	13	36.1	8	7.1	16
대전	34.2	1	37.4	2	3.2	3
울산	32.1	5	34.3	14	2.2	2
세종	31.4	7	32.8	16	1.4	1
경기	32.2	4	35.5	10	3.3	5
강원	33.7	2	37.8	1	4.1	6
충북	28.9	14	36.4	7	7.5	17
충남	29.5	12	35.0	11	5.5	12
전북	30.3	10	36.6	4	6.3	14
전남	32.2	3	36.5	6	4.3	7
경북	31.8	6	36.6	5	4.8	9
경남	30.9	8	35.9	9	5.0	10
제주	30.5	9	37.3	3	6.8	15
전체	30.7		35.3		4.6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다음으로 취약계층의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살펴본다. 먼저, 취약계층의 평균임금과 평균 근로시간을 인증연도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다음의 <표 3-7>과 같다.

2024년의 경우, 2015년 인증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평균임금이 약 237만 5천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2008년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약 170만 3천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2010년 인증기업의 취약계층 평균 근로시간이 33.6시간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08년 및 2009년 인증기업의 경우 27.3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의 평균임금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평균 근로시간은 소폭 감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인증연도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천 원, 시간)

구분	2022		2023		2024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2007	1,958	30.7	2,010	31.8	2,133	31.5
2008	1,606	28.4	1,670	27.3	1,703	27.3
2009	1,670	28.2	1,757	27.5	1,861	27.3
2010	2,273	31.9	2,207	31.8	2,368	33.6
2011	1,779	32.0	1,840	32.6	1,833	32.5
2012	1,896	31.7	1,843	29.5	1,781	28.3
2013	1,572	28.3	1,642	27.4	1,760	29.8
2014	1,751	30.0	1,811	28.5	1,759	29.6
2015	2,386	34.4	2,495	34.4	2,375	33.4
2016	1,831	31.8	1,933	32.0	1,940	32.0
2017	1,960	31.8	2,045	31.0	2,120	31.2
2018	1,829	30.9	1,896	31.6	1,919	31.0
2019	1,829	30.7	1,885	30.0	1,972	31.0
2020	2,103	32.9	2,228	32.2	2,361	31.4
2021	1,779	31.9	1,813	30.7	1,865	29.7
2022	1,853	32.5	1,918	33.1	1,934	32.1
2023	-	-	1,860	31.3	1,830	30.6
2024	-	-	-	-	1,711	27.4
계	1,890	31.3	1,947	30.8	1,979	30.7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다음으로 인증유형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 3-8>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평균 근로시간을 인증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2024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기타(창의·혁신)형에서 237만 4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지역사회공헌형(214만 9천 원), 일자리제공형(200만 4천 원), 혼합형(184만 2천원), 사회서비스제공형(168만 5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로시간은 지역사회공헌형(32.1시간), 일자리제공형(31.2시간), 기타(창의・혁신)형(30.4시간), 혼합형(27.8시간), 사회서비스제공형(27.2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취약계층의 평균임금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평균 근로시간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천 원, 시간)

구분	2022		2023		2024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일자리제공형	1,924	31.9	1,979	31.5	2,004	31.2
사회서비스제공형	1,637	27.1	1,713	28.2	1,685	27.2
혼합형	1,560	26.3	1,647	25.6	1,842	27.8
기타(창의・혁신)형	2,177	31.9	2,284	30.1	2,374	30.4
지역사회공헌형	2,095	34.4	2,145	34.4	2,149	32.1
전체	1,890	31.3	1,947	30.8	1,979	30.7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마지막으로 <표 3-9>의 조직형태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의 연도별 평균임금과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본다. 2024년 기준 영농조합법인의 평균임금이 232만 2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상법상회사(218만 6천 원), 민법상법인(171만 4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2023년 36.4시간으로 가장 길었던 영농조합법인이 2024년에도 35.6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영리민간단체가 26.0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취약계층의 평균임금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평균 근로시간은 소폭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천 원, 시간)

구분	2022		2023		2024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민법상법인	1,582	28.5	1,620	27.4	1,714	27.7
비영리민간단체	1,450	26.3	1,611	25.7	1,699	26.0
사회복지법인	1,385	30.2	1,437	29.7	1,452	30.0
상법상회사	2,062	32.6	2,138	32.3	2,186	32.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662	31.2	1,734	31.3	1,524	26.8
영농조합법인	2,172	36.9	2,270	36.4	2,322	35.6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626	28.4	1,650	28.2	1,643	27.2
기타	-	-	-	-	-	-
전체	1,890	31.3	1,947	30.8	1,979	30.7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제2절 사회서비스 제공

제2절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명 역시 갖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3조에서 정의하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보육, 예술·관광 및 운동, 산림보전, 간병・가사, 문화재(국가유산)보존,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서비스, 고용서비스 등을 말한다.

사업보고서의 사회서비스 제공은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사회서비스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지고 있어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본 절에서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주요 사회적기업에 초점을 맞추기 전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볼 것이다. 다음 [그림 3-6]에는 최근 3년간의 전체 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를 제시하였다. 2024년의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은 1,748개소로 전년 대비 196개소(-1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2024년에 전체 인증사회적기업 대비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의 비율은 2022년 45.1%에서 2023년 53.5%로 증가하였고, 2024년 47.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및 사회적기업의 수 : 전체 사회적기업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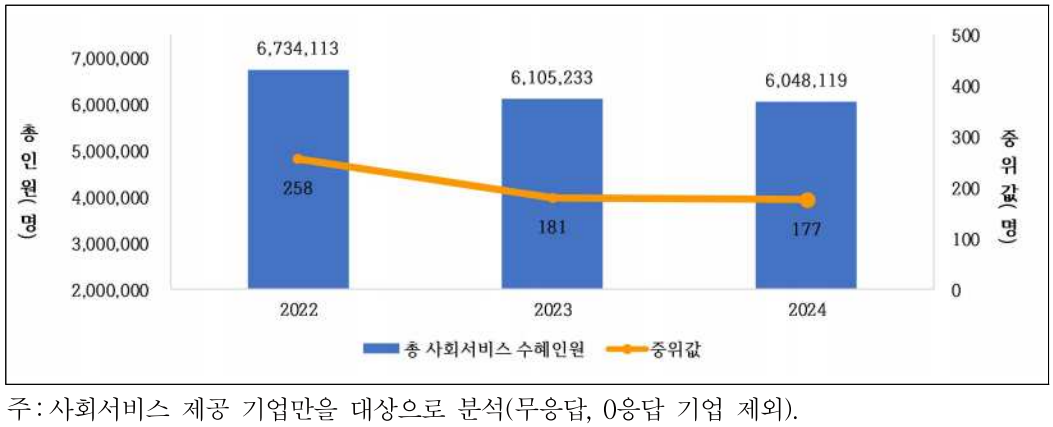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다음 [그림 3-7]은 최근 3년간의 전체 인증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총 수혜 인원 수 및 중위값을 제시한 것이다. 2024년의 사회서비스 총 수혜 인원은 약 605만 명으로 2022~2023년의 약 673만~약 611만 명 수준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의 중위값은 2022년 258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24년 17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 청소 등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영향이 사라진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기간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총 수혜인원과 중위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2024년에는 팬데믹 완화로 해당 서비스의 수요가 줄어들며 수혜인원 역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7] 연도별 사회서비스 총 수혜 인원 및 중위값 : 전체 사회적기업

(단위 : 명)



주 :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이처럼 인증사회적기업 전체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고, 이를 기반으로 이하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에 대한 작성 의무가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3-8]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2022년 445개소에서 2023년 492개소, 2024년 476개소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사회서비스 실적 제공 의무가 있는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사회적기업의 약 90.0% 이상(2022년 95.1%, 2023년 96.7%, 2024년 90.7%)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8] 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주 : 전체 사회적기업의 수는 사회서비스제공 보고가 의무화된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만 포함.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다음의 <표 3-10>은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 및 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는 경기가 95개소(20.0%)로 가장 많았고, 서울 70개소(14.7%), 부산 37개소(7.8%) 순으로 나타났다. 총 476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중 38.7%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세종의 경우 0개소(0.0%)와 제주, 대구의 경우 12개소(2.5%)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는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표 3-10>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 및 비율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

구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비율	
	기업 수	비율	순위	비율	순위
서울	70	14.7	2	12.0	11
부산	37	7.8	3	21.3	1
대구	12	2.5	15	9.2	15
인천	19	4.0	13	9.6	14
광주	21	4.4	8	13.7	7
대전	20	4.2	11	17.2	3
울산	20	4.2	11	17.7	2
세종	-	-	-	-	-
경기	95	20.0	1	13.5	8
강원	28	5.9	5	14.5	5
충북	21	4.4	8	14.0	6
충남	17	3.6	14	10.7	13
전북	36	7.6	4	16.4	4
전남	23	4.8	7	11.6	12
경북	21	4.4	8	7.9	16
경남	24	5.0	6	12.6	10
제주	12	2.5	15	12.9	9
전체	476	100.0	-	12.9	-

주 :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비율은 전체 지역별 사회적기업 대비 비율임.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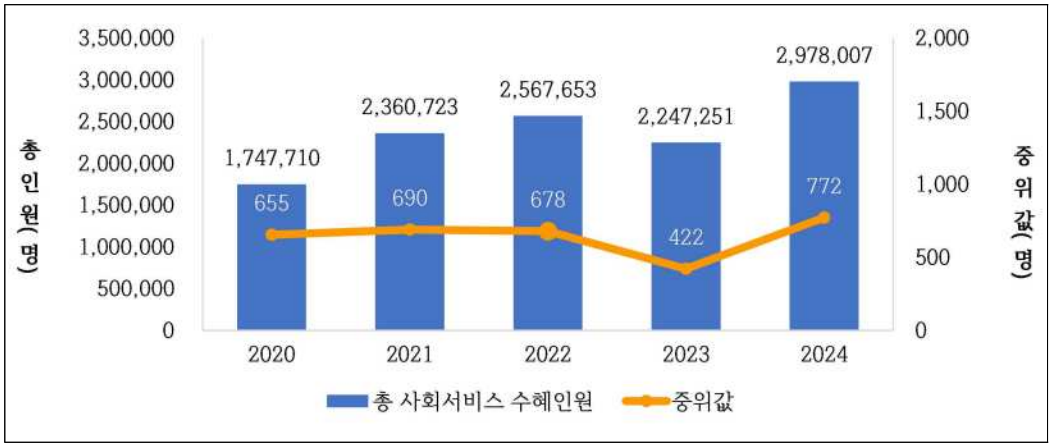
한편 전체 지역별 사회적기업 대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비율 순위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부산, 울산, 대전, 전북, 강원의 경우 지역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의 수 대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의 비율이 각각 21.3%, 17.7%, 17.2%, 16.4%, 14.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양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나 이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향후 전체 사회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 현황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림 3-9]는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추이를 보여준다. 2024년 사회서비스 총 수혜 인원은 약 297만 8천 명으로, 2023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림 3-9] 연도별 사회서비스 총 수혜 인원 및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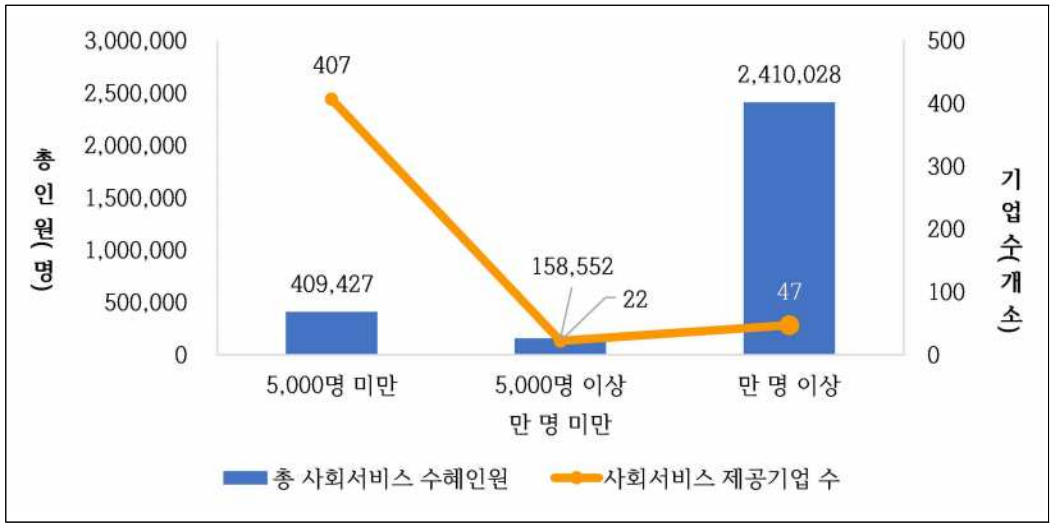
주 :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2023, 2024)

다음은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규모별 서비스제공 기업과 수혜 인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림 3-10]은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규모별 사회적기업의 수와 총 수혜 인원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2024년 5천 명 미만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407개소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85.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혜 인원은 전체 수혜 인원의 1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 명 이상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47개소로 9.9%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혜 인원의 약 80.9% 정도가 만 명 이상 제공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일반 대중을 위한 공연 등과 같이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수의 사회적기업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추정된다.

[그림 3-10]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규모별 제공기업 수 및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명)



주 :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사회적기업이 제공한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을 지역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표 3-11>과 같다.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은 전체 수혜 인원의 23.8%가 속한 경기가 약 71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부산(19.6%), 서울(14.9%)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 지역은 전체 수혜 인원의 0.4%인 약 1만 2천 명으로 가장 적은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이 나타났으며, 수혜인원이 적은 지역은 광주(0.5%), 경남(0.9%), 충북(1.2%), 경북(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의 총인구가 사회서비스 수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일부이기 때문에 지역별 인구수와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수를 비교해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많은 지역에서 지역별 인구수 비율보다 사회서비스 수혜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부산, 울산, 전북, 강원, 충북, 충남의 경우 지역별 인구수 비율 대비 사회서비스 수혜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및 지역 인구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명, %)

구분	사회서비스 수혜자			2024 인구주택총조사		
	인원	비율	순위	인원	비율	순위
서울	442,567	14.9	3	9,335,444	18.0	2
부산	582,603	19.6	2	3,257,256	6.3	4
대구	372,513	12.5	4	2,369,335	4.6	7
인천	97,971	3.3	7	3,058,033	5.9	5
광주	15,490	0.5	15	1,444,171	2.8	14
대전	97,782	3.3	8	1,467,093	2.8	13
울산	132,742	4.5	6	1,106,895	2.1	15
세종	-	-	-	390,156	0.8	17
경기	710,167	23.8	1	13,914,479	26.9	1
강원	66,366	2.2	10	1,522,881	2.9	12
충북	34,918	1.2	13	1,646,328	3.2	11
충남	94,291	3.2	9	2,238,243	4.3	8
전북	196,986	6.6	5	1,758,836	3.4	10
전남	48,464	1.6	11	1,778,338	3.4	9
경북	44,852	1.5	12	2,578,999	5.0	6
경남	28,031	0.9	14	3,264,243	6.3	3
제주	12,264	0.4	16	674,817	1.3	16
전체	2,978,007	100.0	-	51,805,547	100.0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통계청(2025) 2024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과 수혜 인원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살펴본다. 먼저 <표 3-12>는 사회서비스 제공기업과 수혜 인원의 중위값을 사회적기업 인증연도별로 구분한 결과이다.

2024년의 경우, 사회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공한 기업은 2021년 인증기업이 58개소, 2022년 인증기업이 50개소, 2023년 인증기업이 46개소, 2024년 인증기업이 40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혜 인원 중위값은 2008년이 2,023명으로 가장 높았고, 2017년(1,752명), 2014년(1,314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대체로 최근에 인증받은 기업들이 소규모이거나 수혜 인원이 적은 형태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3-12> 인증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 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명)

구분	2022		2023		2024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2007	14	780	14	2,335	13	1,154
2008	40	1,039	42	906	38	2,023
2009	15	363	16	382	14	664
2010	15	408	14	472	13	490
2011	9	1,396	10	769	10	817
2012	15	672	14	552	13	1,018
2013	21	1,433	20	970	16	1,050
2014	9	480	9	600	8	1,314
2015	28	1,408	28	293	27	1,252
2016	35	727	36	628	30	814
2017	20	396	19	245	15	1,752
2018	26	819	26	295	25	413
2019	35	591	36	360	32	232
2020	41	540	41	616	28	569
2021	64	1,037	62	342	58	452
2022	58	698	56	241	50	1,162
2023	-	-	49	264	46	623
2024	-	-	-	-	40	623
전체	445	820	492	422	476	772

주 :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표 3-13>은 사회서비스 제공기업과 수혜 인원의 중위값을 사회적기업 인증유형별로 구분해 제시한 것이다. 2024년 기준 사회서비스제공형은 302개소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수혜 인원 중위값은 836명으로 전체 중위값 772명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혼합형의 경우 174개소의 기업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수혜 인원

중위값은 660명으로 전체 중위값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2024년 사회서비스제공형의 제공기업 수는 2023년 대비 비슷한 수준임에도 수혜 인원 중위값은 증가하였으며, 혼합형의 경우 제공기업 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수혜 인원 중위값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3-13> 인증유형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 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명)

구분	2022		2023		2024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일자리제공형	-	-	-	-	-	-
사회서비스제공형	258	1,080	299	480	302	836
혼합형	187	476	193	347	174	660
기타(창의・혁신)형	-	-	-	-	-	-
지역사회공헌형	-	-	-	-	-	-
전체	445	820	492	422	476	772

주 :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표 3-14>는 조직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업과 수혜 인원을 정리한 것이다. 2024년 기준 상법상회사가 282개소로 가장 많았고, 일반/사회적협동조합(116개), 민법상법인(57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혜 인원 중위값은 사회복지법인이 31,232명으로 가장 높았고 비영리민간단체(1,566명), 민법상법인(1,27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3년 대비 2024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는 민법상법인, 상법상회사,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이 소폭 감소하였고, 그 외 조직형태는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인원 중위값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사회복지법인 4개 기업 중 2개 기업이 전년 대비 수혜인원이 큰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위값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3-14>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 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명)

구분	2022		2023		2024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민법상법인	56	1,267	61	804	57	1,272
비영리민간단체	17	1,140	15	366	15	1,566
사회복지법인	5	363	4	317	4	31,232
상법상회사	264	578	292	396	282	60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7,563	-	-	-	-
영농조합법인	3	379	2	719	2	639
일반/사회적협동조합	99	1,204	118	419	116	1,146
기타	-	-	-	-	-	-
전체	445	820	492	422	476	772

주 :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마지막으로 <표 3-15>에는 2022~2024년 기간 동안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와 수혜 인원 중위값의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기업 기초 통계 분석의 기초분석은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각 연도의 모든 인증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 연도별로 분석대상이 달라지며, 사회적기업의 성과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2~2024년 3개년의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자료를 결합하여 시계열 데이터로 구성하고, 3개년 자료에 모두 포함된 3,071개 인증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와 수혜 인원 중위값의 추이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의 경우 객관적 기준보다는 기업 나름의 임의적 기준으로 성과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의 신뢰성이 다소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3개년 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표 3-1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 인원 중위값 추이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명)

구분		2022		2023		2024	
		기업 수	중위값	기업 수	중위값	기업 수	중위값
인증연도	2007	14	780	14	2,335	13	1,570
	2008	38	1,039	41	804	38	1,873
	2009	13	363	15	363	14	345
	2010	14	677	14	472	13	444
	2011	9	1,396	10	769	10	1,500
	2012	15	672	14	552	13	375
	2013	16	1,578	17	531	16	863
	2014	9	480	9	600	8	1,086
	2015	27	1,400	28	293	27	1,214
	2016	31	1,260	33	531	30	838
	2017	16	396	17	245	15	1,246
	2018	25	954	25	284	25	660
	2019	32	629	32	360	32	271
	2020	36	526	38	573	28	569
	2021	61	1,142	60	342	58	647
	2022	57	726	55	282	50	1,153
인증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245	1,080	245	480	226	968
	혼합형	168	485	177	347	164	651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51	1,364	53	916	50	1,187
	비영리민간단체	15	580	15	366	15	1,566
	사회복지법인	4	31,737	4	317	4	31,232
	상법상회사	243	591	247	368	227	61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7,563	-	-	-	-
	영농조합법인	3	379	2	719	2	639
	일반/사회적협동조합	96	1,251	101	480	92	1,247
	기타	-	-	-	-	-	-
전체		413	826	422	418	390	845

주 : 2022-2024 세 개년도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3,071개 사회적기업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보고가 의무화된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만 포함함.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는 2022년, 2023년 모두 245개소로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2024년에는 226개소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수혜 인원 중위값은 2022년 1,080명에서 2023년 480명으로 감

소하였다가 2024년에는 968명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조직형태별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는 유지되거나 소폭 증감이 있었으며,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중위값은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한 모든 조직형태에서 2023년에 감소한 후, 2024년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가 어떤 대상층에 주로 제공되었는지 분석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인증유형별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규정해두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혼합형은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need)가 취약계층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국민, 지역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아닌 이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역시 이들의 욕구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복지 욕구 및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게 되면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방향으로 갈 것이다.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need)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향후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그림 3-11]은 최근 3년간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로 사회적기업의 수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일반인과 취약계층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2024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469개소였고, 일반인이 수혜대상인 기업은 182개소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약 2.6배 정도 많았다.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 시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수혜 비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하고,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려는 한국의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우선 대상은 그 수요(need)가 더 큰 취약계층이 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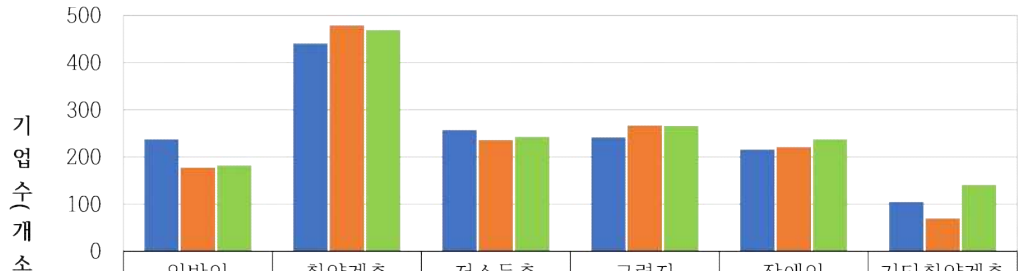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는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5.2%(60개소) 감소하였고,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2%(4개소) 증가하였다.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수는 2023년에 전년 대비 8.6%(38개소)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2.1%(10개소) 감소하였다.

취약계층은 다시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기타 취약계층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고령자 대상 서비스 제공 기업 수는 2023년에 증가하였다가 2024년에는 1개소 감소하였다. 저소득층 및 기타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 수는 2023년에 감소하였다가 2024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으로는 고령자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이 26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저소득층 대상 243개소, 장애인 대상 238개소, 기타 취약계층 대상 14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연도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일반인	취약계층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기타취약계층
2022	238	441	257	242	216	105
2023	178	479	236	267	221	70
2024	182	469	243	266	238	141

주1 :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주2 : 기타취약계층 –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장기실업자, 범죄구조피해기타,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중독자, 선천성 혹은 희귀병치료자, 여성가장 등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표 3-16>은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모든 지역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같거나 더 많아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나타나고 있었다.

2024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수는 경기도가 95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지역이 66개소, 부산 지역이 37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역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서울 지역에 32개소, 경기 지역에 26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6> 지역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의 수: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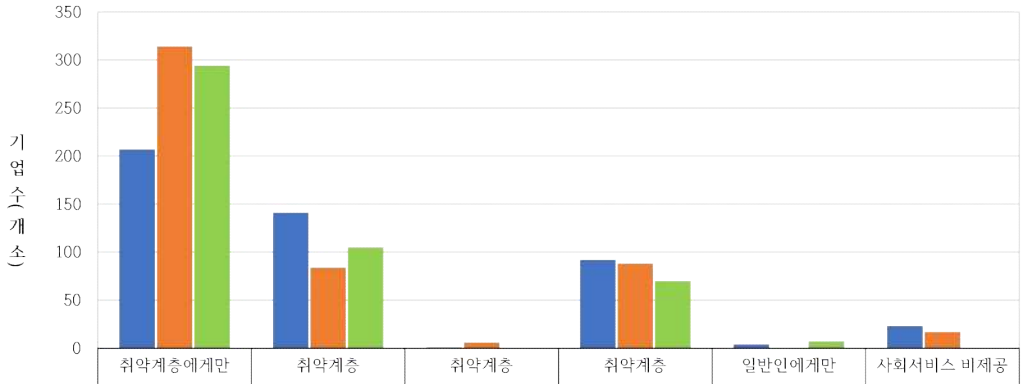
구분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일반인 대상		취약계층 대상	
	기업 수	기업 수	순위	기업 수	순위
서울	113	32	1	66	2
부산	20	20	3	37	3
대구	19	9	6	12	15
인천	27	5	15	19	12
광주	23	6	12	20	10
대전	12	6	12	20	10
울산	11	8	10	19	12
세종	2	0	17	0	17
경기	90	26	2	95	1
강원	19	9	6	27	5
충북	27	7	11	21	8
충남	18	9	6	17	14
전북	33	14	4	36	4
전남	17	13	5	23	7
경북	24	6	12	21	8
경남	15	9	6	24	6
제주	6	3	16	12	15
전체	476	182	-	469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그림 3-12]는 일반인과 취약계층 중 누구를 대상으로 더 많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취약계층에게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294개소)은 2023년 전년대비 107개소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0개소 감소하였다. 반면, 일반인에게 주로 제공하는 사회적기업(70개소)은 최근 3개년간 꾸준히 감소하였고, 취약계층에게 주로 제공하는 사회적기업(105개소) 또한 2024년에 전년 대비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추세임이 나타났다.

[그림 3-12] 연도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취약계층에게만 제공	취약계층 >일반인	취약계층 =일반인	취약계층 <일반인	일반인에게만 제공	사회서비스 비제공 또는 무응답
2022	207	141	1	92	4	23
2023	314	84	6	88	0	17
2024	294	105	0	70	7	0

주 :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표 3-17>은 일반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중심적으로 제공하는 기업과 취약계층에게 중심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나타낸 것이다. 앞에서 제시된 결과들과 모든 지역에서 일반인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중심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지역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구분	취약계층에 더 많이 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만 제공 포함)	일반인에 더 많이 사회서비스제공(일반인만 제공 포함)
서울	56	14
부산	26	11
대구	8	4
인천	17	2
광주	18	3
대전	19	1
울산	15	5
세종	0	0
경기	88	7
강원	24	4
충북	19	2
충남	10	7
전북	30	6
전남	19	4
경북	20	1
경남	19	5
제주	11	1
전체	399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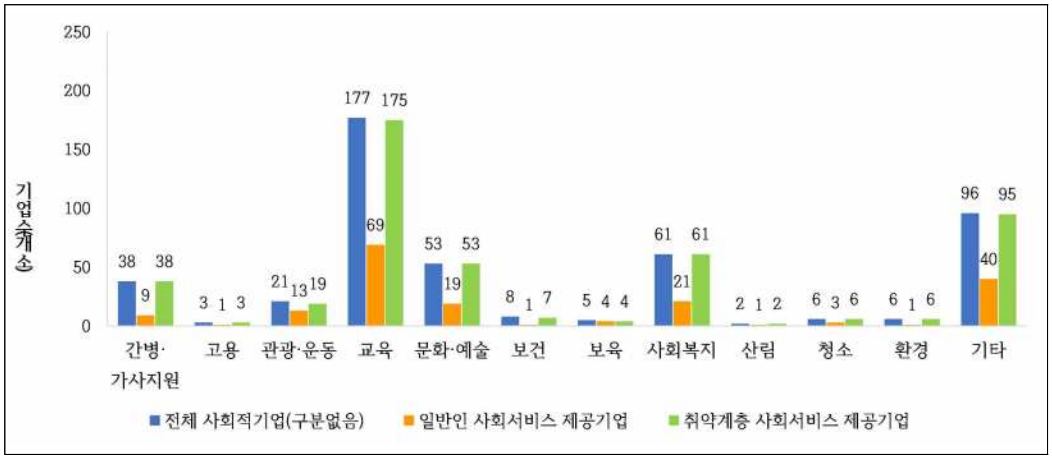
주 :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그림 3-13]과 [그림 3-14]는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일반인에게(혹은 위주로), 취약계층에게(혹은 위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치를 분류·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유형은 교육(177개소)이었으며, 기타(96개소), 사회복지(61개소), 문화·예술(53개소), 간병·가사지원(38개소) 순으로 높았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 역시 전체적 분포와 거의 동일하게 교육(175개소)이었으며, 기타(95개소), 사회복지(61개소), 문화·예술(53개소), 간병·가사지원(38개소) 순으로 높았다. 일반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는 교육(69개소), 기타(40개소), 사회복지(21개소), 문화·예술(19개소) 순으로 높았다.

[그림 3-13] 사회서비스 유형 및 수혜대상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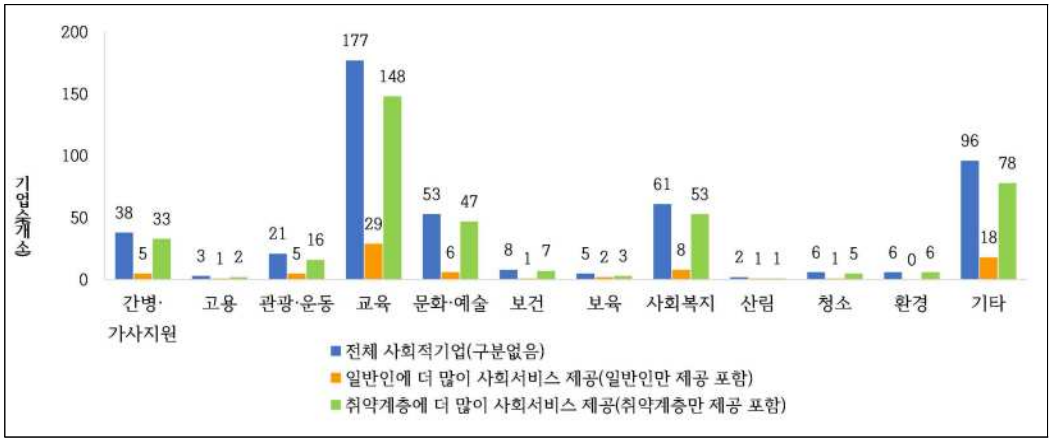


주 :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그림 3-14]를 보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로는 교육이 148개소로 가장 많았고, 기타 78개소, 사회복지 53개소, 문화·예술 47개소 순으로 높았다. 한편 일반인을 대상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 또한 교육이 29개소로 가장 많았고, 기타 18개소, 사회복지 8개소 순으로 높았다.

[그림 3-14] 사회서비스 유형 및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주 :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일반인과 취약계층 수혜자 수가 동일한 경우 제외함.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마지막으로 <표 3-18>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혜대상별 사회적기업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각 셀의 값은 '일반인 대상 서비스 제공기업 수/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기업 수'의 비율(%)이므로 100%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100%보다 높은 경우에는 일반인 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먼저, 인증연도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10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반인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인증유형별로 살펴보면, 2024년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의 일반인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별로 살펴보면, 제공기업 수가 2개 기업뿐인 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하면 조직형태와 상관없이 대체로 모든 유형에서 100% 미만의 비율이 나타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부가분석 3-1>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사회서비스 수혜자의 총 인원을 함께 정리하여 보고한 것이다.

<표 부가분석 3-2>는 지역과 표준산업분류별로 사회서비스 수혜자의 총인원을 살펴본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2,978,007명 중,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수혜자 비중이 45.2%(1,341,02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8.2%(838,339명), 정보통신업 10.8%(320,425명), 제조업 8.0%(238,8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중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2,181,226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3.6%(722,136명)로 가장 높았고, 교육 서비스업 31.7%(691,662명), 정보통신업 14.7%(319,829명) 순으로 높았다.

반면 일반인 수혜자 796,781명의 분포 비중은 교육 서비스업 81.5%(649,36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2%(105,203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23,84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8>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일반인/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기업 비율
: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

구분		2022		2023		2024	
		일반인제공/취약계층제공	일반인에 더 많이 제공/취약계층에 더 많이 제공	일반인제공/취약계층제공	일반인에 더 많이 제공/취약계층에 더 많이 제공	일반인제공/취약계층제공	일반인에 더 많이 제공/취약계층에 더 많이 제공
인증연도	2007	57.1	16.7	14.3	7.7	22.2	0.0
	2008	33.3	14.3	42.5	20.0	21.6	5.6
	2009	33.3	7.1	20.0	6.7	28.6	0.0
	2010	60.0	15.4	35.7	16.7	38.5	18.2
	2011	44.4	-	20.0	11.1	20.0	11.1
	2012	53.3	7.1	30.8	16.7	46.2	30.0
	2013	52.4	50.0	45.0	25.0	37.5	23.1
	2014	22.2	12.5	33.3	28.6	50.0	33.3
	2015	64.3	55.6	48.1	47.4	48.1	42.1
	2016	40.0	34.6	38.9	34.6	23.3	11.1
	2017	52.6	53.8	26.3	35.7	50.0	66.7
	2018	46.2	30.0	36.0	8.3	24.0	4.2
	2019	60.0	29.6	55.9	33.3	48.4	23.1
	2020	65.0	51.9	40.0	32.3	40.7	33.3
	2021	63.5	25.5	36.7	15.4	54.4	20.4
	2022	56.9	21.3	40.0	20.0	38.0	19.0
	2023	-	-	27.1	17.1	47.9	25.6
	2024	-	-	-	-	32.5	14.3
인증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57.6	27.1	42.1	24.1	42.6	20.8
	혼합형	46.8	28.3	29.6	19.3	32.2	16.8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55.4	27.3	39.7	22.4	37.5	26.7
	비영리민간단체	58.8	21.4	50.0	50.0	33.3	7.1
	사회복지법인	40.0	66.7	25.0	33.3	0.0	0.0
	상법상회사	49.8	28.2	36.1	21.1	39.5	21.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0.0	-	-	-	-	-
	영농조합법인	33.3	50.0	50.0	100.0	0.0	0.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60.2	25.6	37.1	20.4	40.5	13.7
	기타	-	-	-	-	-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22, 2023, 2024)

<표 부가분석 3-1>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단위 : 명)

항목			2022	2023	2024
전체 서비스 수혜자	전체인원		2,567,653	2,247,251	2,978,007
	인증연도	2007	160,761	262,254	114,342
		2008	518,647	640,659	662,572
		2009	70,258	34,792	29,510
		2010	18,890	14,885	12,707
		2011	144,063	77,394	79,518
		2012	249,505	80,115	36,195
		2013	179,316	178,927	352,789
		2014	59,819	10,492	114,110
		2015	148,494	43,216	145,030
		2016	204,005	66,189	48,395
		2017	213,894	42,003	63,476
		2018	132,009	110,452	36,053
		2019	60,675	76,809	183,466
		2020	127,981	176,842	218,719
		2021	165,893	73,152	95,994
		2022	113,443	72,731	120,602
		2023	-	286,339	512,508
		2024	-	-	152,021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	-	-
		사회서비스제공형	1,472,648	1,362,555	2,240,212
		혼합형	1,095,005	884,696	737,795
		기타(창의・혁신)형	-	-	-
		지역사회공헌형	-	-	-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781,786	501,260	947,861
		비영리민간단체	36,737	121,418	65,911
		사회복지법인	142,721	69,828	130,008
		상법상회사	977,105	732,627	760,28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563	-	-
		영농조합법인	13,178	1,437	1,27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608,563	820,681	1,072,663
		기타	-	-	-

항목			2022	2023	2024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전체인원		1,712,811	1,764,125	2,181,226
	인증 연도	2007	127,212	259,807	111,934
		2008	428,116	572,867	609,398
		2009	66,956	33,783	27,663
		2010	16,565	13,016	10,602
		2011	139,123	65,435	78,432
		2012	173,294	79,285	31,652
		2013	64,806	71,383	130,183
		2014	16,298	8,604	39,659
		2015	65,184	16,797	85,462
		2016	132,389	55,097	46,445
		2017	96,195	18,104	32,884
		2018	48,328	33,714	33,384
		2019	44,809	65,177	126,290
		2020	79,984	114,946	75,216
		2021	135,986	59,568	77,711
		2022	77,566	49,185	83,522
		2023	-	-	436,976
		2024	-	-	143,813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	-	-
		사회서비스제공형	959,667	1,024,826	1,556,439
		혼합형	753,144	739,299	624,787
		기타(창의・혁신)형	-	-	-
		지역사회공헌형	-	-	-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407,198	278,211	452,529
		비영리민간단체	32,102	117,079	62,196
		사회복지법인	142,363	69,646	130,008
		상법상회사	724,324	601,375	616,44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862	-	-
		영농조합법인	1,178	704	1,27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01,784	697,110	918,770
		기타	-	-	-
일반인 서비스 수혜자	전체인원		854,842	483,126	796,781
	인증 연도	2007	33,549	2,447	2,408
		2008	90,531	67,792	53,174
		2009	3,302	1,009	1,847
		2010	2,325	1,869	2,105
		2011	4,940	11,959	1,086
		2012	76,211	830	4,543

항목			2022	2023	2024
일반인 서비스 수혜자	인증 연도	2013	114,510	107,544	222,606
		2014	43,521	1,888	74,451
		2015	83,310	26,419	59,568
		2016	71,616	11,092	1,950
		2017	117,699	23,899	30,592
		2018	83,681	76,738	2,669
		2019	15,866	11,632	57,176
		2020	47,997	61,896	143,503
		2021	29,907	13,584	18,283
		2022	35,877	23,546	37,080
		2023	-	38,982	75,532
		2024	-	-	8,208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	-	-
		사회서비스제공형	512,981	337,729	683,773
		혼합형	341,861	145,397	113,008
		기타(창의・혁신)형	-	-	-
		지역사회공헌형	-	-	-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374,588	223,049	495,332
		비영리민간단체	4,635	4,339	3,715
		사회복지법인	358	182	-
		상법상회사	252,781	131,252	143,84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701	-	-
		영농조합법인	12,000	733	-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06,779	123,571	153,893
		기타	-	-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 지역 및 표준산업분류별 분석(2024)

<표 부가분석 3-2>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지역, 표준산업분류별)

(단위 : 명)

전체 서비스 수혜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42,567	582,603	372,513	97,971	15,490	97,782	132,742	-	710,167	66,366	34,918	94,291	196,986	48,464	44,852	28,031	12,264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정보 통신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운수업(H)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E)
		6,722	1,341,022	10,658	23,332	838,339	18,642	489	140,901	-	30,697	238,822	320,425	5,888	-	-	2,070	-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93,886	548,595	129,353	91,847	14,096	78,902	50,733	-	492,281	58,710	30,749	34,845	146,369	43,460	40,698	16,708	9,994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정보 통신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운수업(H)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E)
		6,687	691,662	9,002	20,644	733,136	12,603	489	117,056	-	27,511	236,253	319,829	4,284	-	-	2,070	-
일반인 서비스 수혜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8,681	34,008	243,160	6,124	1,394	18,880	82,009	-	217,886	7,656	4,169	59,446	50,617	5,004	4,154	11,323	2,270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정보 통신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운수업(H)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E)
		35	649,360	1,656	2,688	105,203	6,039	-	23,845	-	3,186	2,569	596	1,604	-	-	-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제3절 사회적기업 의사결정 구조

다음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해보았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확인해보면, 인증요건 중 하나가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이에 사업보고서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와 추가적인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고 있다.

먼저 [그림 3-15]는 2022~2024년 사회적기업이 활용한 의사결정 구조의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의사결정과 관련한 회의체에는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이 있으나, 2022~2024년 공통으로 절반 이상 이사회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그 이유로는 이사회 운영이 가능한 법인 형태의 경우 이사회만을 인정하는 등의 제도적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사회와 기타(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로 분류하여 최근 3년간 의사결정기구 활용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다음 [그림 3-16]과 같다. 이사회를 활용한 기업은 2022년 3,126개소, 2023년 3,269개소, 2024년 3,284개소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외 기타 회의체는 2022년 766개소, 2023년 789개소로 소폭 증가, 2024년 735개소로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3-15] 연도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 수

(단위 : 개소)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표 3-19> 지역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 수와 평균 개최 건수

(단위 : 회, 개소)

지역	구분	이사회	기타
서울	평균	3.0	2.6
	기업 수	519	144
부산	평균	2.8	4.2
	기업 수	144	23
대구	평균	2.8	2.7
	기업 수	112	28
인천	평균	2.8	2.5
	기업 수	185	34
광주	평균	2.6	2.3
	기업 수	141	28
대전	평균	3.4	2.2
	기업 수	102	40
울산	평균	2.8	3.1
	기업 수	96	15
세종	평균	3.2	2.3
	기업 수	29	6
경기	평균	3.4	2.7
	기업 수	636	126
강원	평균	3.1	2.5
	기업 수	165	39
충북	평균	3.8	5.7
	기업 수	126	19
충남	평균	3.0	2.2
	기업 수	151	57
전북	평균	3.2	2.4
	기업 수	201	63
전남	평균	3.0	2.3
	기업 수	183	34
경북	평균	3.1	2.8
	기업 수	240	39
경남	평균	3.3	3.6
	기업 수	174	18
제주	평균	2.9	2.3
	기업 수	80	22
계	평균	3.1	2.7
	기업 수	3,284	735

주 : 항목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오기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표 3-19>는 의사결정기구 활용 평균 개최 건수를 지역별로 구분한 표다. 먼저, 이사회 개최 건수의 전체 평균은 연간 3.1회, 기타 회의체(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 평균 개최 건수 연간 2.7회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사회 개최는 충북이 평균 3.8회로 가장 많았고, 광주가 평균 2.6회로 가장 적어 지역별 편차는 크지 않았다. 기타 회의체 개최 건수는 충북이 평균 5.7회로 가장 많고 대전이 평균 2.2회로 가장 적어 지역별 편차가 다소 나타났다.

<표 3-20>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의사결정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단위 : 개소, 회)

구분		이사회		기타	
		기업 수	평균 개최	기업 수	평균 개최
인증연도	2007	23	3.6	17	3.9
	2008	73	3.8	43	3.1
	2009	38	2.9	20	2.2
	2010	92	2.9	46	2.8
	2011	68	3.2	43	3.3
	2012	79	3.2	32	2.6
	2013	125	3.1	38	2.4
	2014	139	3.4	42	2.4
	2015	172	3.1	35	2.3
	2016	183	3.3	36	1.8
	2017	169	3.0	33	2.2
	2018	223	3.7	41	3.2
	2019	288	2.9	56	2.2
	2020	336	3.1	51	2.7
	2021	398	3.0	61	2.5
	2022	336	3.3	71	3.5
	2023	326	2.9	55	2.2
	2024	216	2.7	15	2.2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183	3.1	446	2.7
	사회서비스제공형	309	3.6	64	2.6
	혼합형	164	3.2	58	2.5
	기타(창의・혁신)형	319	3.0	82	2.7
	지역사회공헌형	309	3.1	85	2.8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260	3.1	102	2.7
	비영리민간단체	26	3.1	29	2.9
	사회복지법인	28	3.8	64	4.0
	상법상회사	2,296	2.9	204	2.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	6.1	8	2.0
	영농조합법인	94	3.7	15	2.3
	일반/사회적협동조합	570	-	313	2.6
	기타	0	-	0	-
계		3,284	3.1	735	2.7

주 : 항목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오기응답 기업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마지막으로 이사회와 기타 회의체의 평균 개최 건수를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위의 <표 3-2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사회의 경우 인증연도별로 평균 2.7회부터 3.8회, 기타 회의체(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는 평균 2.2회부터 3.9회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사회는 유형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회의체는 사회서비스제공형에서 평균 3.6회로 상대적으로 많이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를 기준으로는 기업 수가 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하면 대체로 이사회 평균 개최 건수의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회의체의 경우에도 유형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형태를 기준으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평균 4.0회로 상대적으로 많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과 <표 3-22>에는 2022~2024년 기간 동안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이사회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기타 회의체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의 추이가 각각 제시되어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응답 역시 기업별로 임의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22~2024년 3개년 사업보고서 원자료에 모두 포함된 동일한 기업군을 대상으로 변화 추이를 추가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표 3-21>에 따르면, 2022~2024년 3개년 자료에 모두 포함된 3,071개 인증사회적기업 중 이사회를 활용하는 기업의 수는 2022년 2,823개, 2023년 2,777개, 2023년 2,740개로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평균 회의 개최 건수는 2022년 3.0회에서 2024년 3.2회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도 대체로 전체 추이와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

기타 회의체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를 제시한 <표 3-22>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713개의 기업이 기타 회의체를 활용하였는데 2023년 715개로 소폭 증가하였다가 2024년 665개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평균 개최 건수는 2022년 2.6회에서 2022년과 2023년 2.7회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역시 대체로 전체 추이와 유사하며, 소폭의 변동은 있으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이사회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추이

(단위 : 개소, 회)

구분		2022		2023		2024	
		기업 수	평균 개최	기업 수	평균 개최	기업 수	평균 개최
인증연도	2007	25	3.3	23	3.6	23	3.6
	2008	70	3.4	66	3.7	73	3.8
	2009	37	2.8	38	2.9	38	2.9
	2010	91	3.1	92	2.9	92	2.9
	2011	65	2.9	68	3.0	68	3.2
	2012	83	3.4	80	3.6	79	3.2
	2013	122	3.3	123	3.3	125	3.1
	2014	135	3.6	133	3.5	139	3.4
	2015	179	3.1	175	3.2	172	3.1
	2016	182	3.2	182	3.3	183	3.3
	2017	173	3.0	170	3.0	169	3.0
	2018	232	3.1	228	3.2	222	3.7
	2019	304	3.1	295	3.1	288	2.9
	2020	349	3.0	339	3.1	336	3.1
	2021	416	2.8	408	2.9	397	3.0
	2022	360	2.6	357	2.8	336	3.3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869	3.0	1,838	3.1	1,819	3.1
	사회서비스제공형	238	3.2	238	3.3	233	3.9
	혼합형	158	2.9	153	3.0	155	3.1
	기타(창의・혁신)형	312	2.9	305	3.0	298	3.0
	지역사회공헌형	246	3.3	243	3.3	235	3.2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242	3.0	237	2.9	238	3.2
	비영리민간단체	25	2.8	23	3.2	25	3.1
	사회복지법인	24	3.5	27	4.0	28	3.8
	상법상회사	1,979	2.9	1,930	2.9	1,900	3.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	7.3	9	7.3	9	5.8
	영농조합법인	92	3.6	88	3.6	84	3.6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451	3.5	463	3.7	456	3.7
	기타	-	-	-	-	-	-
전체		2,823	3.0	2,777	3.1	2,740	3.2

주 : 평균 개최 건수는 이사회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계산. 2022, 2023, 2024 세 개년도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3,071개 사회적기업 대상.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표 3-22>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기타 형태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 시계열 추이

(단위 : 개소, 회)

구분		2022		2023		2024	
		기업 수	평균 개최	기업 수	평균 개최	기업 수	평균 개최
인증연도	2007	16	4.2	17	4.0	17	3.9
	2008	41	3.3	45	3.0	43	3.1
	2009	20	2.3	21	2.2	20	2.2
	2010	44	3.0	45	2.9	46	2.8
	2011	44	3.1	46	3.3	43	3.3
	2012	34	2.7	36	2.3	32	2.6
	2013	48	2.5	44	2.4	38	2.4
	2014	52	2.3	50	2.2	42	2.4
	2015	40	2.4	35	2.3	35	2.3
	2016	43	2.3	43	2.4	36	1.8
	2017	37	2.5	34	2.4	33	2.2
	2018	40	2.3	45	2.2	41	3.2
	2019	40	2.3	45	2.2	41	3.2
	2020	70	2.7	62	3.6	51	2.7
	2021	65	2.2	66	2.3	61	2.5
	2022	69	3.0	79	3.3	71	3.5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429	2.6	425	2.6	406	2.7
	사회서비스제공형	59	2.7	57	3.1	48	2.8
	혼합형	56	2.7	67	2.4	57	2.5
	기타(창의・혁신)형	86	2.5	81	2.4	80	2.7
	지역사회공헌형	83	2.6	85	3.4	74	3.0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100	2.5	99	2.5	99	2.6
	비영리민간단체	33	3.4	29	3.1	28	2.9
	사회복지법인	66	3.8	66	3.9	64	4.0
	상법상회사	220	2.4	212	2.3	190	2.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2.7	6	2.3	7	2.0
	영농조합법인	22	1.7	22	1.7	15	2.3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265	2.6	281	2.8	262	2.6
	기타	-	-	-	-	-	-
전체		713	2.6	715	2.7	665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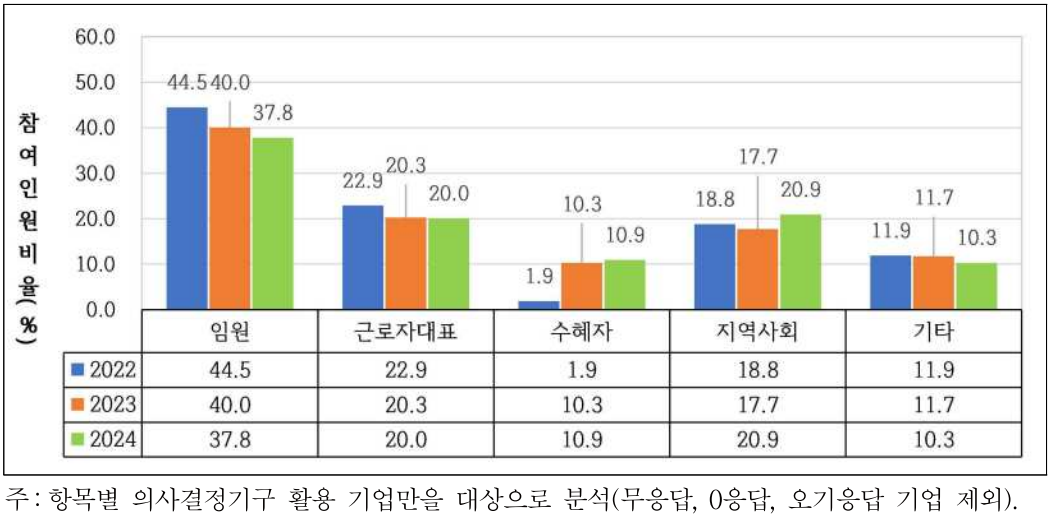
주 : 평균 개최 건수는 이사회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계산. 2022, 2023, 2024 세 개년도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3,071개 사회적기업 대상.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한편, 아래 [그림 3-16]과 [그림 3-17]에서는 각 사회적기업 이사회 참여 인원 비율을 평균하여 전년도와 비교한 것이다. 이사회에 참가하는 구성원은 사내 이해관계자로 임원, 근로자대표가 있고, 사외 이해관계자로는 수혜자, 지역사회참여자, 기타 참여 인원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임원이 이사회의 약 40% 내외로 구성하고 있으며, 임원 다음으로는 근로자대표와 지역사회참여자가 각각 약 20% 내외로 이사회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혜자의 경우, 2022년 1.9%에서 2023년 10.3%로 증가하였고, 2024년엔 10.9%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 외 참여 인원의 비율은 최근 3년 동안 대체로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안정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6] 연도별 이사회 참여 인원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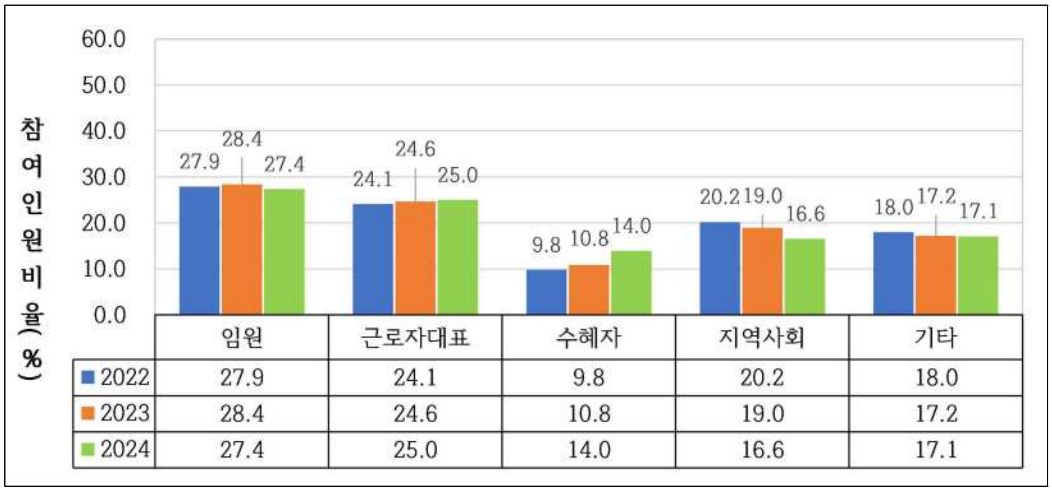
	임원	근로자대표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2022	44.5	22.9	1.9	18.8	11.9
2023	40.0	20.3	10.3	17.7	11.7
2024	37.8	20.0	10.9	20.9	10.3

주 : 항목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오기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의 기타 회의체 참여 인원 비율은 다음 [그림 3-17]과 같다.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2024년 기준 임원이 참여하는 비율이 약 27.4%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근로자대표와 기타 참여자, 지역사회 참여자, 수혜자가 사회적기업의 기타 회의체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 수혜자의 회의체 참여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임원, 지역사회 및 기타 참여자는 소폭 감소하였다.

[그림 3-17] 연도별 기타 의사결정기구 참여 인원 비율

(단위 : %)



	임원	근로자대표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2022	27.9	24.1	9.8	20.2	18.0
2023	28.4	24.6	10.8	19.0	17.2
2024	27.4	25.0	14.0	16.6	17.1

주 : 항목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오기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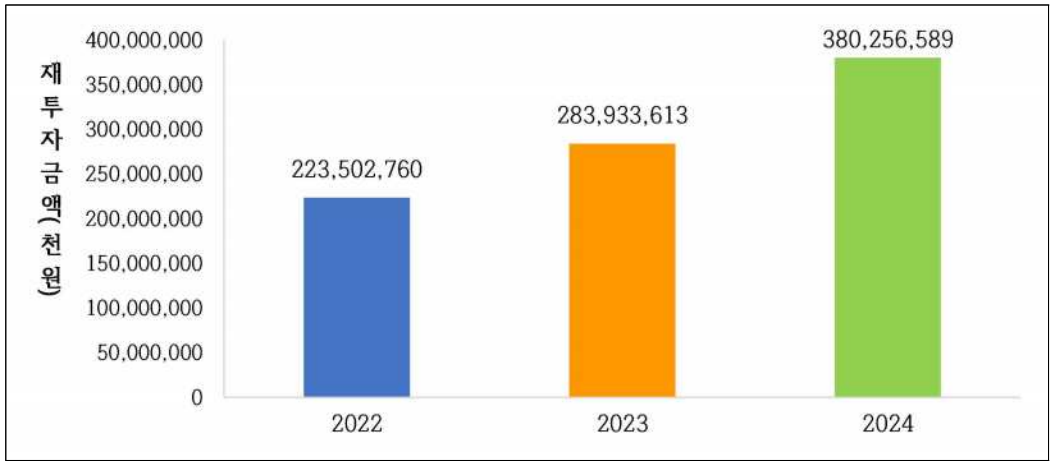
제4절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제4절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창출된 이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 3항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 따른 회사 및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같은법 제8조 7항)이라고 규정하였다.

최근 3년간 인증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의 변화 추세는 다음 [그림 3-198]과 같다. 2022년 약 2천 235억 원에서 2023년 약 2천 839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7.0% 증가했고, 2024년에는 약 3천 802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3.9%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상승세로 나타났다.

[그림 3-18] 연도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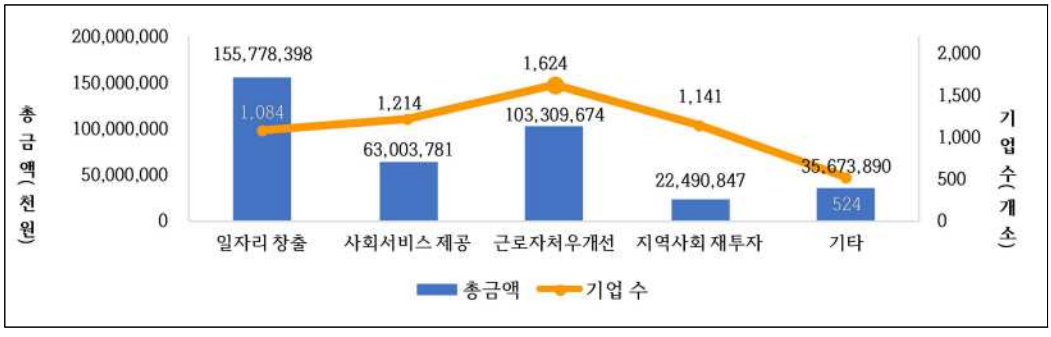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그림 3-19]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를 한 사회적기업의 수와 재투자 총금액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재투자유형은 크게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근로자 처우개선, 지역사회 재투자, 기타의 다섯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4년 재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한 기업은 1,084개소, 약 1천 557억 7천만 원으로 가장 액수가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1,624개 사회적기업이 약 1천 33억 원을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재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제공의 경우 1,214개 기업이 약 630억 원을, 지역사회 재투자의 경우 1,141개 기업이 약 224억 9천만 원을 재투자하여 그 뒤를 이었다.

[그림 3-19]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사회서비스 재투자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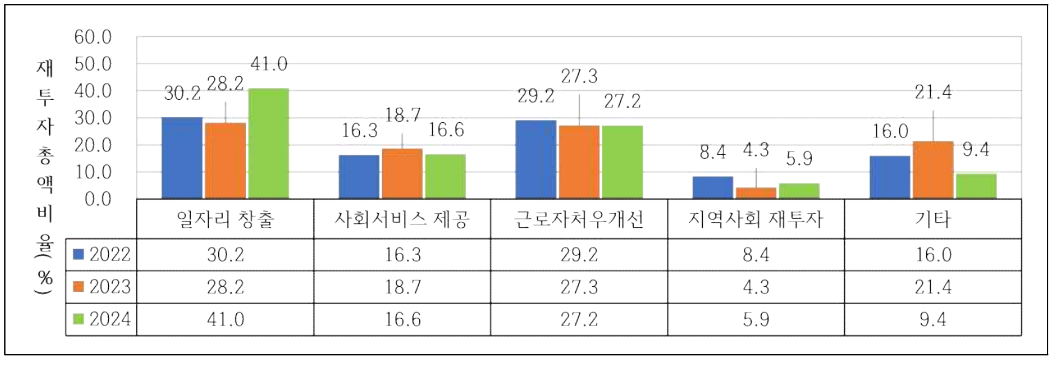
(단위 : 개소, 천 원)



주 : 항목별 지역사회 재투자를 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그림 3-20] 연도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 및 비율

(단위 : %, 천 원)



주 : 항목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를 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표 3-23>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 사회적기업의 수와 재투자 총액을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2024년에는 총 2,485개의 인증사회적기업이 약 3,803억 원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여, 전년도에 총 2,394개의 인증사회적기업이 약 2,839억 원을 재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2024년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경기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수의 기업이 많은 금액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를 하였다. 경기는 533개 사회적기업이 약 1,113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서울은 316개 사회적기업이 약 986억 원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였다.

<표 3-23> 지역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재투자 총액

(단위 : 개소, 천 원)

지역	사회적목적 재투자			총 재투자금액		
	기업 수	총수 대비 %	순위	금액	총금액 대비 %	순위
서울	316	12.7	2	98,606,333	25.9	2
부산	116	4.7	9	9,868,394	2.6	11
대구	89	3.6	12	4,295,136	1.1	14
인천	153	6.2	5	12,353,804	3.2	9
광주	140	5.6	8	13,500,507	3.6	8
대전	61	2.5	14	6,738,457	1.8	13
울산	50	2.0	15	3,435,288	0.9	15
세종	17	0.7	17	1,009,699	0.3	17
경기	533	21.4	1	111,331,815	29.3	1
강원	113	4.5	10	24,863,318	6.5	3
충북	85	3.4	13	11,502,738	3.0	10
충남	106	4.3	11	7,838,050	2.1	12
전북	153	6.2	5	18,715,672	4.9	5
전남	155	6.2	4	15,770,173	4.1	7
경북	205	8.2	3	18,290,385	4.8	6
경남	148	6.0	7	19,781,970	5.2	4
제주	45	1.8	16	2,354,852	0.6	16
계	2,485	100.0	-	380,256,589	100.0	-

주 : 항목별 지역사회 재투자를 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한편, 아래 <표 3-24>는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 기업 수와 평균 금액을 사회적기업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에 따라 구분해 제시한 것이다.

먼저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1년 인증기업의 평균 재투자 금액이 약 4억 2천 7백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2007년 인증기업(약 3억 3천 7백만 원), 2010년 인증기업(약 2억 9백만 원) 순이었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 항목별로는 일자리 창출의 경우 2011년 인증기업 22개소가 평균 약 3억 4천 7백만 원을 재투자하여 가장 많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은 2007년 인증기업 6개소가 평균 약 3억 6천 3백만 원을 재투자하여 가장 많았다. 근로자 처우개선은 2011년 인증기업 36개소가 약 2억 2천 4백만 원을 재투자하여 가장 많았으며, 지역사회 재투자는 2021년 인증기업 151개소가 약 3억 9천 8백만 원, 기타 재투자는 2007년 인증 기업 3개소가 약 3억 3천 7백만 원을 재투자하여 가장 많았다.

인증유형별로 보면 일자리제공형이 1,700개소로 기업 수가 가장 많아서 사회적기업 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평균 재투자 금액은 약 1억 5천만 원으로 인증유형들 중에서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혼합형이 약 2억 2천 8백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역사회공헌형은 약 9천 8백만 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조직형태별로 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약 8억 1천 8백만 원으로 재투자 금액이 가장 많은 반면, 사회복지법인의 재투자 금액은 약 1억 1천만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 3-25>는 2022~2024년 기간 동안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와 평균 금액 추이를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의 경우도 기업이 나름의 기준으로 임의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022~2024년 기간 동안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자료에 모두 포함된 3,071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를 실시한 사회적기업의 수는 2022년 2,183개에서 2023년 2,033개로 감소하였다가, 2024년 2,049개로 소폭 증가하였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 평균 금액은 2022년 약 9천 9백만 원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약 1억 2천 5백만 원, 약 1억 6천 4백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표 3-24> 인증연도, 인증유형 및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평균 금액

(단위 : 개소, 천 원)

구분		전체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근로자 처우개선		지역사회 재투자		기타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인증연도	2007	17	337,080	5	235,373	6	363,437	13	97,864	8	11,247	3	336,890
	2008	49	155,910	19	51,156	19	147,195	35	54,630	27	21,015	7	198,778
	2009	26	161,313	9	84,630	9	42,381	16	179,362	12	9,602	7	9,432
	2010	70	200,940	26	212,073	31	45,464	49	128,271	33	13,876	18	22,184
	2011	55	427,081	22	347,076	21	282,988	36	224,189	20	31,148	14	86,947
	2012	50	132,615	13	218,877	21	18,741	33	83,501	26	7,611	6	73,066
	2013	92	170,891	36	113,009	32	23,075	61	91,421	38	39,055	23	167,587
	2014	101	179,891	39	146,640	42	16,278	61	158,310	48	16,189	17	78,373
	2015	130	127,956	42	163,505	57	34,665	89	64,975	53	13,508	38	34,012
	2016	126	119,243	49	98,496	59	75,670	88	41,134	51	16,612	26	48,724
	2017	121	98,976	41	51,164	51	49,936	78	48,639	63	19,465	25	92,462
	2018	164	136,683	76	140,207	63	14,443	111	59,821	75	15,545	38	80,114
	2019	208	137,454	80	145,869	110	31,496	130	57,458	80	27,055	57	67,056
	2020	269	159,713	130	153,124	123	39,434	187	70,670	125	15,521	55	55,472
	2021	309	188,251	144	235,414	162	28,981	193	53,112	151	39,808	56	59,165
	2022	263	168,705	122	180,222	144	74,154	166	38,541	124	12,232	52	72,876
	2023	263	90,797	130	65,756	159	45,218	174	22,950	120	10,092	52	56,489
	2024	172	119,727	101	65,625	105	73,357	104	36,031	87	15,859	30	37,846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700	150,174	782	150,759	707	25,321	1,170	70,277	821	16,031	357	67,549
	사회서비스제공형	228	197,911	75	166,237	170	148,822	126	30,046	91	14,198	45	50,630
	혼합형	124	227,659	52	196,576	95	112,829	73	92,044	49	9,157	15	8,075
	기타(창의·혁신)형	210	141,979	86	88,887	111	58,372	127	52,391	74	27,380	52	134,851
	지역사회공헌형	223	97,720	89	84,843	131	19,879	128	30,677	106	52,475	55	39,040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141	260,999	62	180,391	70	128,446	79	152,950	45	24,007	29	119,383
	비영리민간단체	26	122,650	12	97,876	14	92,170	15	17,540	5	69,959	6	18,516
	사회복지법인	39	110,168	13	110,655	11	50,818	28	72,574	9	15,499	9	14,165
	상법상회사	1,780	141,039	798	136,663	852	30,471	1,199	64,323	837	15,404	372	69,93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817,632	1	134,757	3	309,102	3	46,374	5	740,921	0	-
	영농조합법인	64	151,050	26	53,818	28	18,998	40	118,468	38	37,641	17	92,173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29	163,981	172	182,499	236	104,840	260	26,656	202	14,322	91	48,263
계		2,485	153,021	1,084	143,707	1,214	54,675	1,624	69,161	1,141	74,559	524	55,908

주 : 항목별 지역사회 재투자를 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표 3-2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평균 금액 추이

(단위 : 개소, 천 원)

구분		2022		2023		2024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인증연도	2007	17	239,469	15	241,339	17	337,080
	2008	49	95,660	44	110,214	49	155,910
	2009	24	240,656	26	106,886	26	161,313
	2010	63	127,201	68	122,344	70	200,940
	2011	46	191,378	48	225,449	55	427,081
	2012	58	57,490	53	73,693	50	132,615
	2013	98	238,636	90	340,111	92	170,891
	2014	101	92,956	93	120,351	101	179,891
	2015	129	96,987	112	131,049	130	127,956
	2016	140	105,282	128	139,803	126	119,243
	2017	131	119,463	130	57,710	121	98,976
	2018	171	104,247	157	131,986	164	136,683
	2019	238	81,989	214	109,456	208	137,454
	2020	278	102,846	268	129,853	269	159,713
	2021	340	62,844	323	114,477	308	188,838
	2022	300	59,236	264	84,965	263	168,705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510	91,835	1,395	124,140	1,412	164,246
	사회서비스제공형	168	72,300	165	148,075	164	182,673
	혼합형	111	112,693	118	118,781	115	239,789
	기타(창의・혁신)형	197	202,213	185	165,955	191	141,926
	지역사회공헌형	197	62,272	170	71,761	167	115,088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124	159,400	131	136,128	126	280,197
	비영리민간단체	22	49,848	21	57,004	24	129,723
	사회복지법인	34	81,414	35	109,719	39	110,168
	상법상회사	1,558	95,614	1,445	132,525	1,456	154,84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	122,384	6	166,426	5	980,688
	영농조합법인	77	67,865	68	69,591	57	143,067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360	101,745	327	105,277	342	159,505
	기타	-	-	-	-	-	-
전체		2,183	98,685	2,033	125,197	2,049	163,873

주 : 평균금액은 사회적 목적 재투자를 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 2022, 2023, 2024 세 개년도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3,071개 사회적기업 대상.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제4장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본 장에서는 재정성과, 지출 구조, 그리고 노동생산성 및 일반인 고용현황에 대한 양적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제1절 재정성과 : 수입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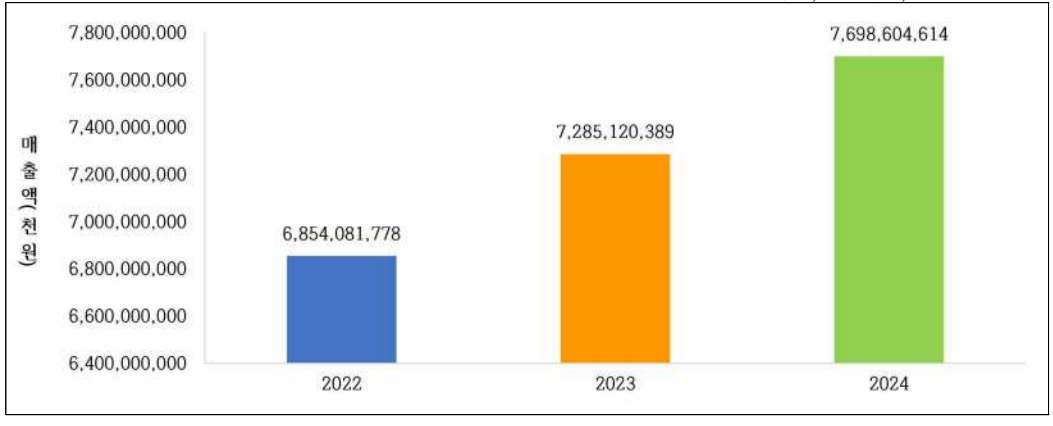
사회적기업의 재정성과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위해 사업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한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1. 매출액

먼저 사회적기업 최근 3년간 매출 총액은 다음 [그림 4-1]과 같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2024년의 사회적기업은 약 7조 7,000억 원의 매출 총액을 보고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 4,135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2~2023년 사이의 약 4,310억 원의 증가 폭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증가세를 나타낸다.

[그림 4-1] 매출 총액

(전체 3,559개소,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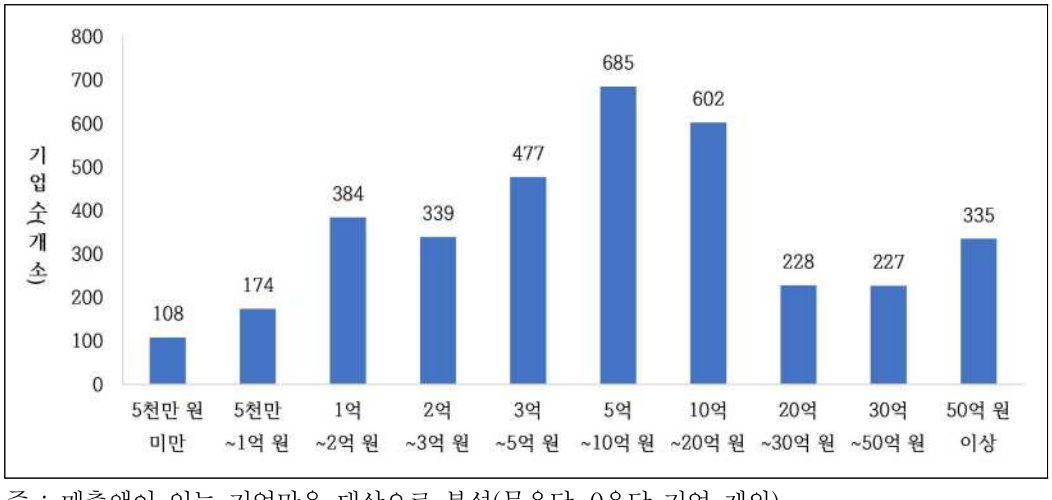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그림 4-2]는 2024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분포 및 매출액에 따른 기업 수이다. 전체 3,559개의 매출액이 있는 사회적기업 중 5억~10억 원 사이의 매출액을 달성한 곳이 685개소(1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10억~20억 원 사이가 602개소(16.9%), 3억~5억 원 사이가 477개소(13.4%)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4-2] 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전체 3,559개소,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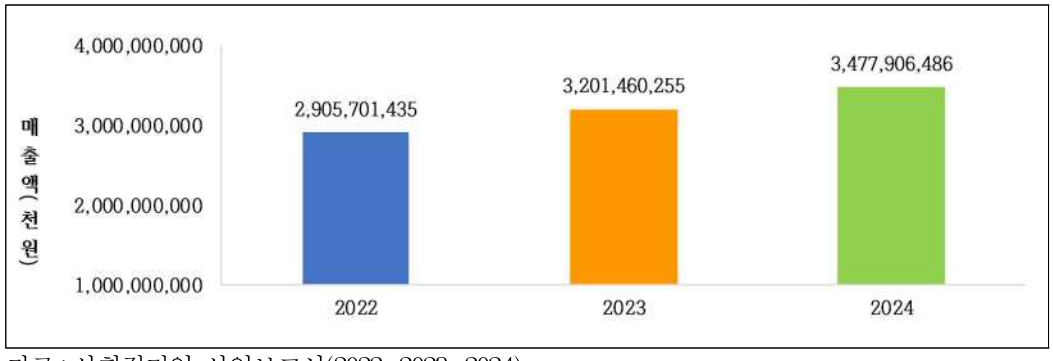


주 :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그림 4-3]~[그림 4-6]은 앞서 보고된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을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그림 4-3]과 같이, 2024년 공공시장을 통한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은 총 2,354개소이며 공공시장을 통한 매출 규모는 약 3조 4,779억 원으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 매출액 분포를 [그림 4-4]를 통해 살펴보면, 5억~1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401개소(17.0%)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295개소(12.5%), 1억~2억 원 미만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287개소(12.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공공매출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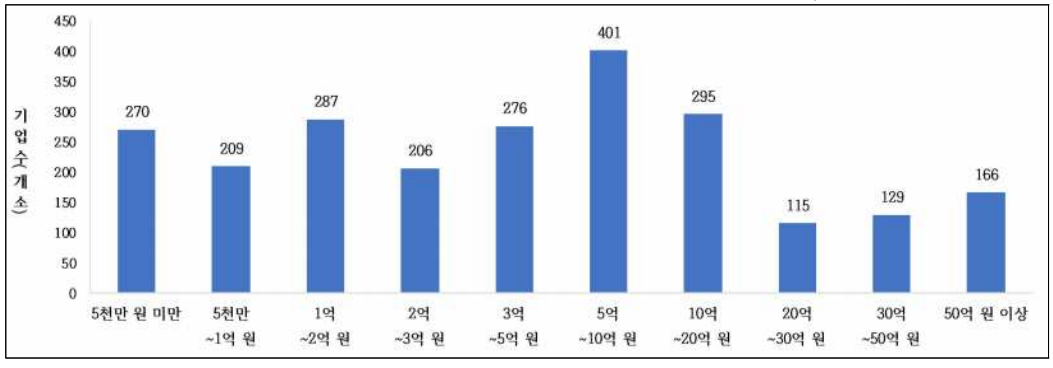
(전체 2,354개소, 단위 : 천 원)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그림 4-4] 공공시장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전체 2,354개소,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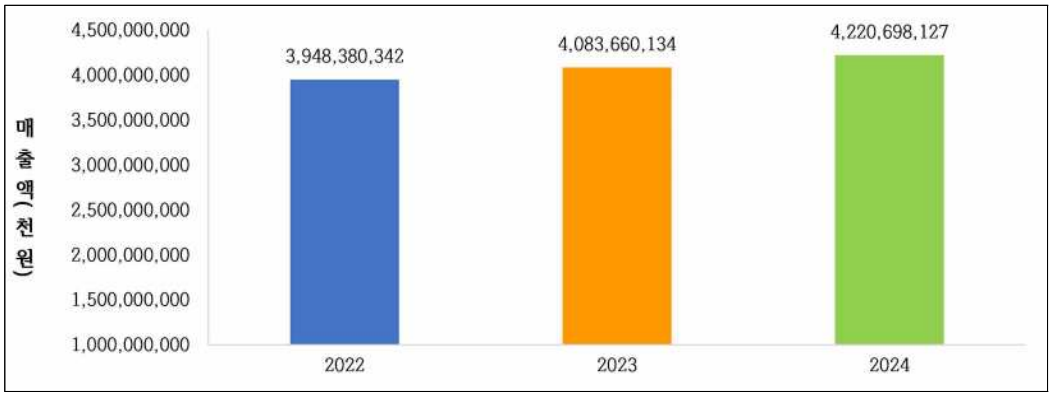


주 : 공공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그림 4-5]와 같이, 민간시장을 통한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은 총 2,977개소이며 민간매출 총액의 평균은 약 4조 2천 2백억 원으로 공공매출에 비해 매출 규모가 더 컸고, 민간매출 역시 공공매출과 마찬가지로 2022년과 2023년에 비해 매출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민간시장 매출액 분포를 [그림 4-6]을 통해 살펴보면, 매출액 규모는 1억~2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기업이 500개소(1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억~1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403개소(13.5%), 3억~5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378개소(13.7%), 5천만 원 미만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380개소(12.8%) 순으로 많았다.

[그림 4-5] 민간매출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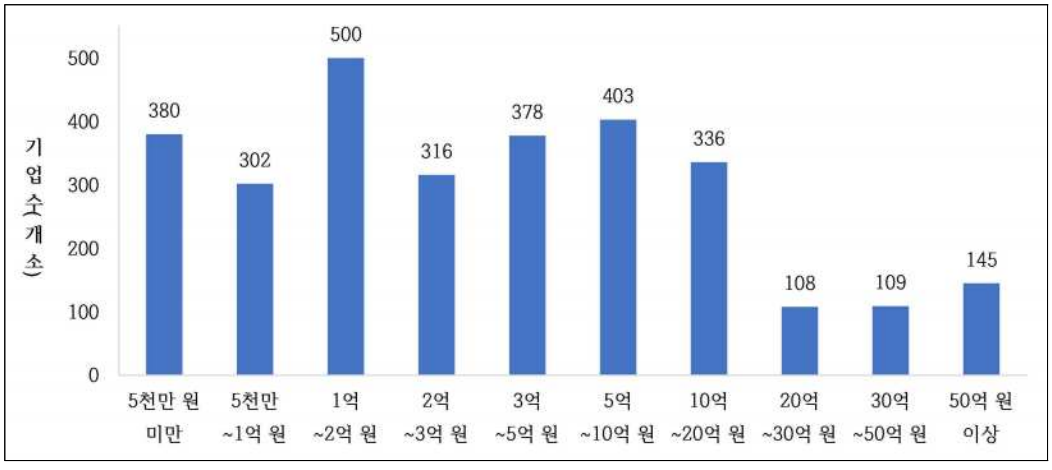
(전체2,977개소, 단위 : 천 원)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그림 4-6] 민간시장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전체 2,977개소, 단위 : 개소)



주 : 민간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한편, 다음의 <표 4-1>과 [그림 4-7]은 2022~2024년도에 걸쳐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분포와 기업의 수가 연도별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분석한 내용이다.

먼저 연도별 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20억~30억 원, 30억~50억 원, 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그 외 기업들은 소폭의 매출액 증감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연도별 매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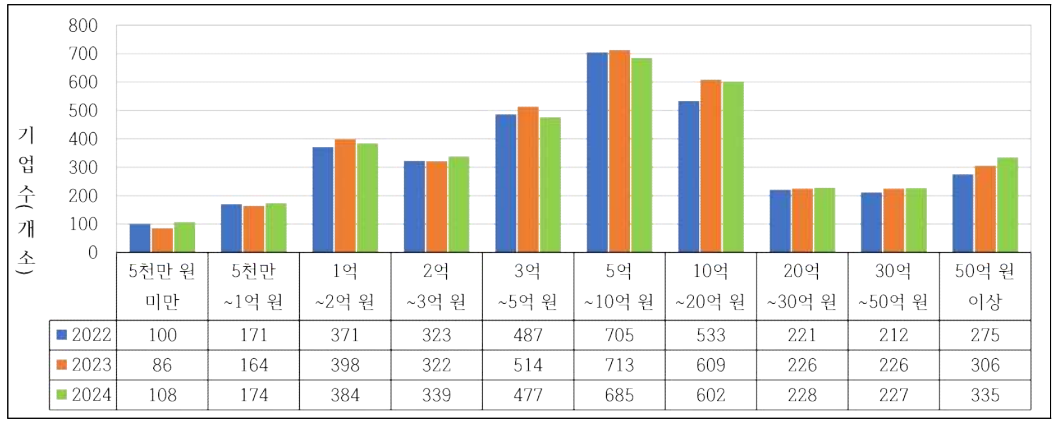
(단위 : 개소, %)

구분	2022		2023		2024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5천만 원 미만	100	2.9	86	2.4	108	3.0
5천만 ~ 1억 원	171	5.0	164	4.6	174	4.9
1억 ~ 2억 원	371	10.9	398	11.2	384	10.8
2억 ~ 3억 원	323	9.5	322	9.0	339	9.5
3억 ~ 5억 원	487	14.3	514	14.4	477	13.4
5억 ~ 10억 원	705	20.7	713	20.0	685	19.2
10억 ~ 20억 원	533	15.7	609	17.1	602	16.9
20억 ~ 30억 원	221	6.5	226	6.3	228	6.4
30억 ~ 50억 원	212	6.2	226	6.3	227	6.4
50억 원 이상	275	8.1	306	8.6	335	9.4
합계	3,398	100.0	3,564	100.0	3,559	100.0

주 :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그림 4-7] 연도 및 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단위 : 개소)



주 :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그리고 <표 4-2>와 [그림 4-8]의 연도별 공공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큰 변동은 없으나, 5천만 원~1억 원, 5억 이상의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의 비율은 증가하고, 2억~3억 원, 3억~5억 원의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4-2> 연도별 공공매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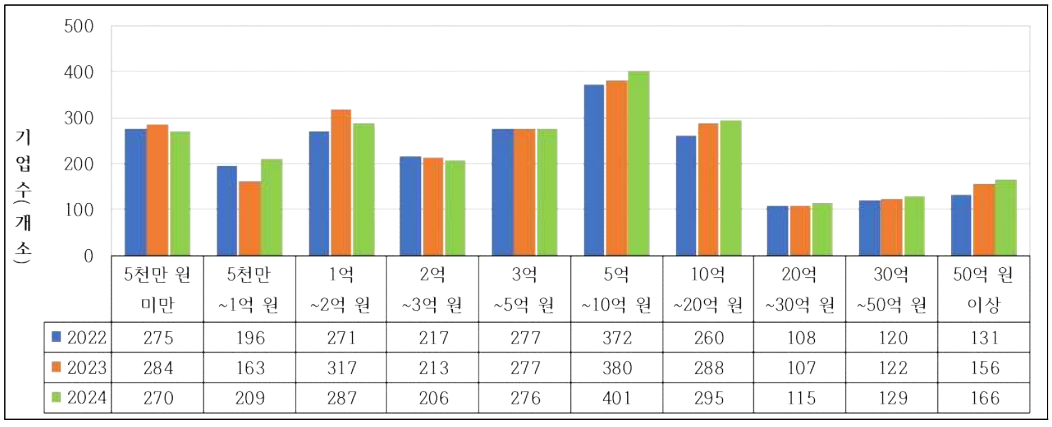
(단위 : 개소, %)

구분	2022		2023		2024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5천만 원 미만	275	12.3	284	12.3	270	11.5
5천만 ~ 1억 원	196	8.8	163	7.1	209	8.9
1억 ~ 2억 원	271	12.2	317	13.7	287	12.2
2억 ~ 3억 원	217	9.7	213	9.2	206	8.8
3억 ~ 5억 원	277	12.4	277	12.0	276	11.7
5억~ 10억 원	372	16.7	380	16.5	401	17.0
10억 ~ 20억 원	260	11.7	288	12.5	295	12.5
20억 ~ 30억 원	108	4.8	107	4.6	115	4.9
30억 ~ 50억 원	120	5.4	122	5.3	129	5.5
50억 원 이상	131	5.9	156	6.8	166	7.1
합계	2,227	100.0	2,307	100.0	2,354	100.0

주 : 공공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그림 4-8] 연도 및 공공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단위 : 개소)



주 : 공공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한편, <표 4-3>과 [그림 4-9]의 연도별 민간 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2023년에 비해 5천만 원 미만, 50억 이상의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의 수는 증가하였고, 30억 원~50억원 구간은 유지, 그 외 구간은 기업 수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가 있으며, 구간별 비율은 대체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22~2024년 3개년 간 매출액 비중을 보면, 5천만원 미만, 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그 외에는 증감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연도별 민간매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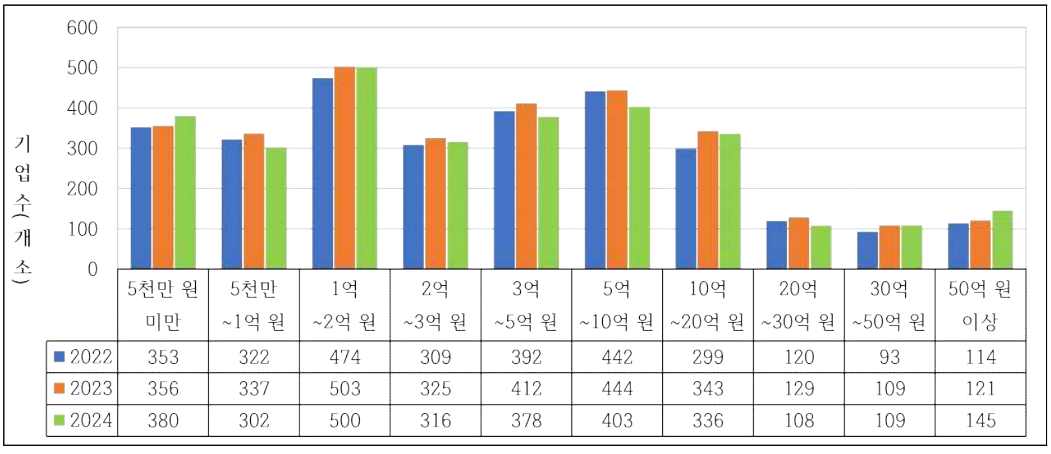
(단위 : 개소, %)

구분	2022		2023		2024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5천만 원 미만	353	12.1	356	11.6	380	12.8
5천만 ~ 1억 원	322	11.0	337	10.9	302	10.1
1억 ~ 2억 원	474	16.2	503	16.3	500	16.8
2억 ~ 3억 원	309	10.6	325	10.6	316	10.6
3억 ~ 5억 원	392	13.4	412	13.4	378	12.7
5억 ~ 10억 원	442	15.1	444	14.4	403	13.5
10억 ~ 20억 원	299	10.2	343	11.1	336	11.3
20억 ~ 30억 원	120	4.1	129	4.2	108	3.6
30억 ~ 50억 원	93	3.2	109	3.5	109	3.7
50억 원 이상	114	3.9	121	3.9	145	4.9
합계	2,918	100.0	3,079	100.0	2,977	100.0

주 : 민간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그림 4-9] 연도 및 민간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단위 : 개소)



주 : 민간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그림 4-10]은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평균값과 중위값을 나타낸 것이다. 기업 매출액 평균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22년(약 20억 2백만 원)에 비해 2023년(약 20억 4백만 원)의 매출액 평균은 전년 대비 약 1.3%의 증가율을 보였고, 2024년(약 21억 6천 3백만 원)의 매출액 평균은 전년 대비 약 5.8%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중위값은 2023년에 약 2.7%의 상승률을, 2024년에는 약 0.8%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0] 연도별 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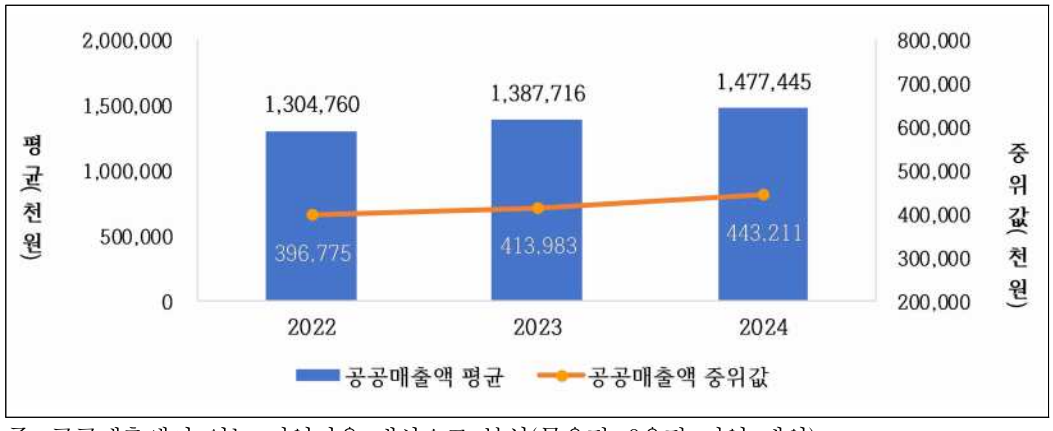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주 :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그림 4-11]과 [그림 4-12]는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을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균값과 중위값을 나타낸 것이다. 공공매출액의 평균은 2022년 약 13억 5백만 원에서 2023년 약 13억 9천만 원(전년 대비 6.4%)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약 14억 8천만 원(전년 대비 6.5%)으로 증가하였다. 중위값은 2022년 약 4억 원에서 2023년 약 4억 1천만 원(전년 대비 4.3% 증가)으로, 2024년에는 약 4억 4천만 원(전년 대비 7.1% 증가) 계속 증가하였다. 민간매출액의 평균은 2022년 약 13억 5천만 원에서 2023년에는 약 13억 3천만 원(전년 대비 2.0% 감소)으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는 약 14억 2천만 원(전년 대비 6.9% 증가)으로 증가하였다. 민간매출액의 중위값은 2022년 약 3억 원에서 2023년에는 약 3억 6백만 원(전년 대비 1.9% 증가), 2024년에는 약 3억 원(전년 대비 3.3% 감소)으로 증감하였다.

[그림 4-11] 연도별 공공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주 : 공공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그림 4-12] 연도별 민간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주 : 민간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다음으로 아래 <표 4-4>에서는 지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총매출액 평균과 중위값을 총매출액과 공공/민간시장매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기업 수가 적은 세종을 제외하고 총매출액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년과 같이 서울(약 42억 원, 559개소)이었고, 다음으로 경기(약 24억 3천만 원, 695개소), 경북(약 20억 원, 261개소), 세종(약 19억 6천만 원, 3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중위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약 10억 원), 세종(약 8억 9천만 원), 울산(약 8억 4천만 원), 서울(약 7억 5천만 원) 순이

었다. 공공시장매출액 평균은 서울(약 23억 5천만 원, 381개소)이었고, 경기(약 17억 9천만 원, 514개소)와 강원(약 17억 4천만 원, 108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시장 매출액 평균은 서울(약 31억 2천만 원, 465개소)이었고, 세종(약 17억 4천만 원, 22개소), 경북(약 16억 3천만 원, 223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공시장매출액 평균이 민간시장매출액 평균보다 많은 지역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세종, 전북, 경남이었으며, 반대로 민간시장매출액 평균이 공공시장매출액 평균보다 더 많은 지역은 서울, 대전, 세종, 전남, 충북, 경북, 제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기업의 분포 및 특성, 사회적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 공공기관들의 입지 등 여러 요인의 지역 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4> 지역별 매출액

(단위 : 천 원, 개소)

지역	항목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매출	4,200,734	559	749,966
	공공시장매출	2,351,812	381	500,893
	민간시장매출	3,122,946	465	361,068
부산	매출	1,260,734	169	522,341
	공공시장매출	1,028,884	113	424,668
	민간시장매출	672,224	144	243,927
대구	매출	999,507	127	473,242
	공공시장매출	773,683	84	355,862
	민간시장매출	573,594	108	265,340
인천	매출	1,829,338	197	582,638
	공공시장매출	1,521,902	134	397,467
	민간시장매출	909,563	172	239,861
광주	매출	1,627,401	148	606,791
	공공시장매출	1,240,756	100	349,829
	민간시장매출	926,824	126	301,259
대전	매출	1,902,025	114	529,156
	공공시장매출	1,098,876	74	392,377
	민간시장매출	1,426,463	95	268,142
울산	매출	1,280,193	105	842,406
	공공시장매출	858,578	67	458,919
	민간시장매출	854,395	90	397,400

<표 4-4>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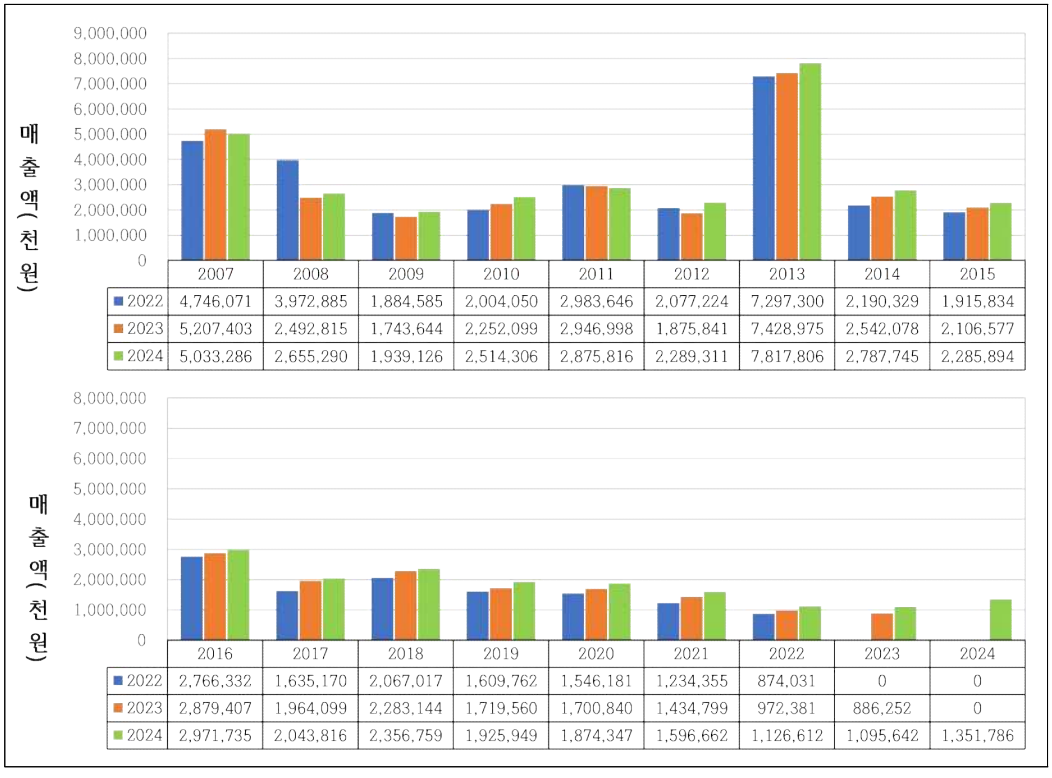
지역	항목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세종	매출	1,961,567	31	888,477
	공공시장매출	978,688	23	609,525
	민간시장매출	1,740,853	22	197,625
경기	매출	2,426,649	695	995,292
	공공시장매출	1,787,168	514	577,439
	민간시장매출	1,368,835	561	339,050
강원	매출	1,711,498	175	562,293
	공공시장매출	1,735,487	108	422,492
	민간시장매출	783,773	143	261,915
충북	매출	1,952,360	143	776,306
	공공시장매출	1,280,298	92	480,997
	민간시장매출	1,322,950	122	302,182
충남	매출	1,420,958	155	579,626
	공공시장매출	1,162,769	109	436,870
	민간시장매출	748,053	125	261,831
전북	매출	1,664,868	215	610,621
	공공시장매출	1,085,492	148	406,808
	민간시장매출	1,066,453	185	211,861
전남	매출	1,312,036	194	475,102
	공공시장매출	940,307	98	266,193
	민간시장매출	984,151	165	312,413
경북	매출	1,997,909	261	718,570
	공공시장매출	1,049,044	150	384,998
	민간시장매출	1,632,725	223	318,928
경남	매출	1,480,879	186	524,874
	공공시장매출	1,071,095	112	412,014
	민간시장매출	1,003,102	155	240,590
제주	매출	1,202,938	85	642,191
	공공시장매출	650,268	47	311,794
	민간시장매출	943,252	76	341,205
전체	매출	2,163,137	3,559	677,637
	공공시장매출	1,477,445	2,354	443,211
	민간시장매출	1,417,769	2,977	295,618

주 : 매출액, 공공매출액, 민간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다음 [그림 4-13]은 최근 3년간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보여준다. 2013년 인증기업이 2022~2024년 동안 가장 높은 평균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평균값은 극단값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즉, 2013년 인증기업이 모두 고르게 높은 매출액을 보고했다기보다는 2013년에 인증받은 특정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다른 사회적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크기 때문에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2013년 인증기업을 제외하면, 2007년 인증기업이 2022~2024년에 걸쳐 가장 높은 평균 매출액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4년 평균 매출액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약 78억 원), 2007년(약 50억 원), 2016년(약 30억 원), 2011년(약 29억 원)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다른 인증연도의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그림 4-13] 인증연도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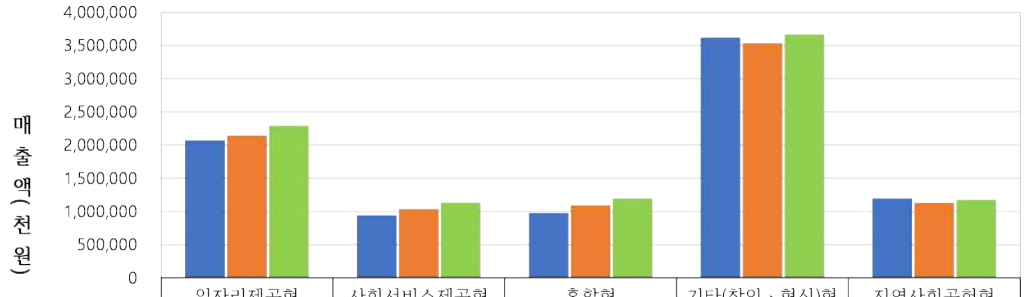


주 :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최근 3년간 인증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인증유형별로 살펴본 분석 내용은 [그림 4-14]와 같다. 기타(창의·혁신)형이 다른 인증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평균 매출액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평균 매출액이 소폭 감소한 반면, 2024년에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혼합형과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지속적으로 평균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지역사회 공헌형은 2023년에 다소 감소한 뒤, 2024년에는 평균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그림 4-14] 인증유형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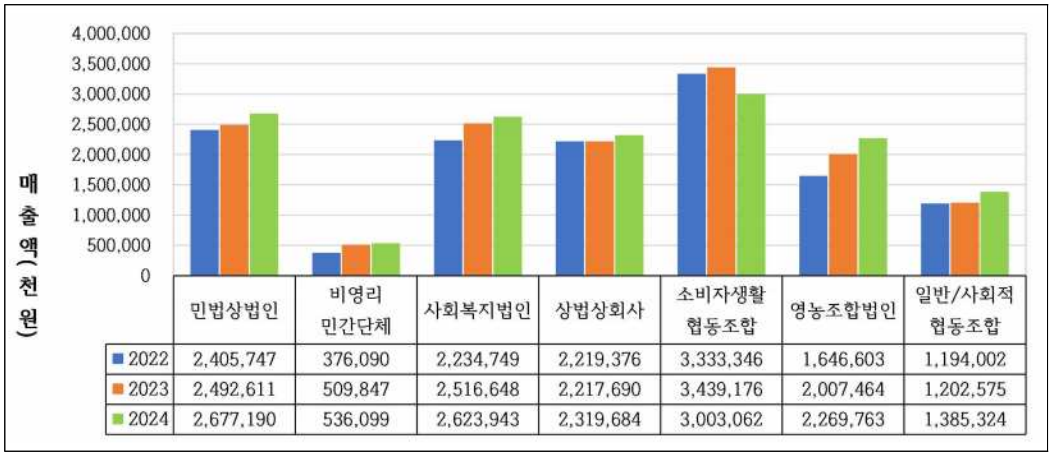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창의 · 혁신)형	지역사회공헌형
2022	2,073,889	944,124	977,025	3,621,021	1,198,703
2023	2,144,619	1,037,821	1,092,691	3,532,798	1,133,287
2024	2,294,634	1,136,083	1,197,021	3,666,465	1,180,147

주 :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에 따른 평균 매출액을 연도별로 세분화시켜 분석한 내용을 아래 [그림 4-15]에서 제시하였다. 민법상법인과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연도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일반/사회적협동조합, 상법상회사는 2023년에 전년도 매출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가 2024년도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2023년에 증가하였다가 2024년에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그림 4-15] 조직형태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 원)



	민법상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상법상회사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2022	2,405,747	376,090	2,234,749	2,219,376	3,333,346	1,646,603	1,194,002
2023	2,492,611	509,847	2,516,648	2,217,690	3,439,176	2,007,464	1,202,575
2024	2,677,190	536,099	2,623,943	2,319,684	3,003,062	2,269,763	1,385,324

주 :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그리고 [그림 4-16]은 최근 3년간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공공매출액을 나타낸 결과이다. 2022~2024년 기간 중 2007년과 2011년 인증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매출액을 보인다. 2011년 인증기업은 2023년에 증가하였다가 2024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2009년 인증기업은 2023년에 감소한 뒤 2024년에 큰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외 인증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공공매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2024년 공공매출액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7년 인증기업의 공공매출액 평균(약 32억 원)이 다른 인증연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2022년(약 6억 8천만 원), 2023년(약 7억 4천만 원), 2024년(약 9억 4천만 원) 인증기업의 공공매출액 평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최근 인증받은 기업들은 공공매출액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 인증연도별 평균 공공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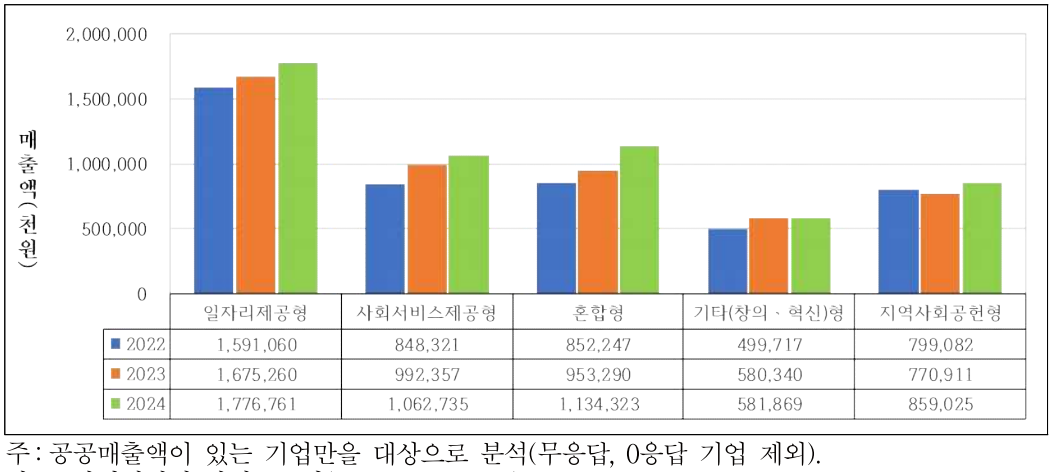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주 : 공공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인증유형별로 평균 공공매출액 변화를 아래 [그림 4-17]을 통해 살펴보면, 일자리 제공형이 다른 인증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매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창의·혁신)형은 공공매출액 평균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사회공헌형을 제외한 나머지 인증유형들은 공공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지역사회공헌형은 2023년에 감소한 이후 2024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림 4-17] 인증유형별 평균 공공매출액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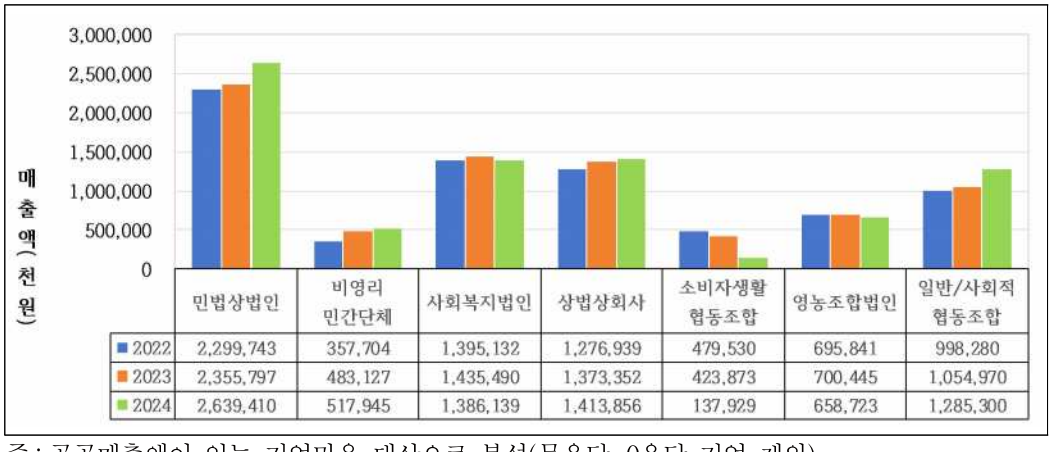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창의 · 혁신)형	지역사회공헌형
2022	1,591,060	848,321	852,247	499,717	799,082
2023	1,675,260	992,357	953,290	580,340	770,911
2024	1,776,761	1,062,735	1,134,323	581,869	859,025

주 : 공공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그리고 조직형태별 평균 공공매출액 변화는 [그림 4-18]에 제시하였다. 최근 3년간 민법상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상법상회사,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은 공공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영농조합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2023년에 증가하였다가 2024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4-18] 조직형태별 평균 공공매출액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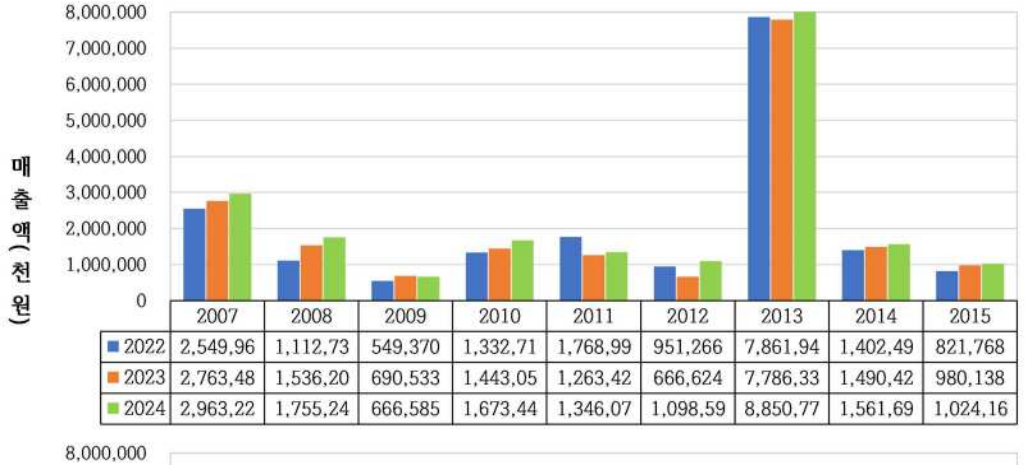
	민법상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상법상회사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2022	2,299,743	357,704	1,395,132	1,276,939	479,530	695,841	998,280
2023	2,355,797	483,127	1,435,490	1,373,352	423,873	700,445	1,054,970
2024	2,639,410	517,945	1,386,139	1,413,856	137,929	658,723	1,285,300

주 : 공공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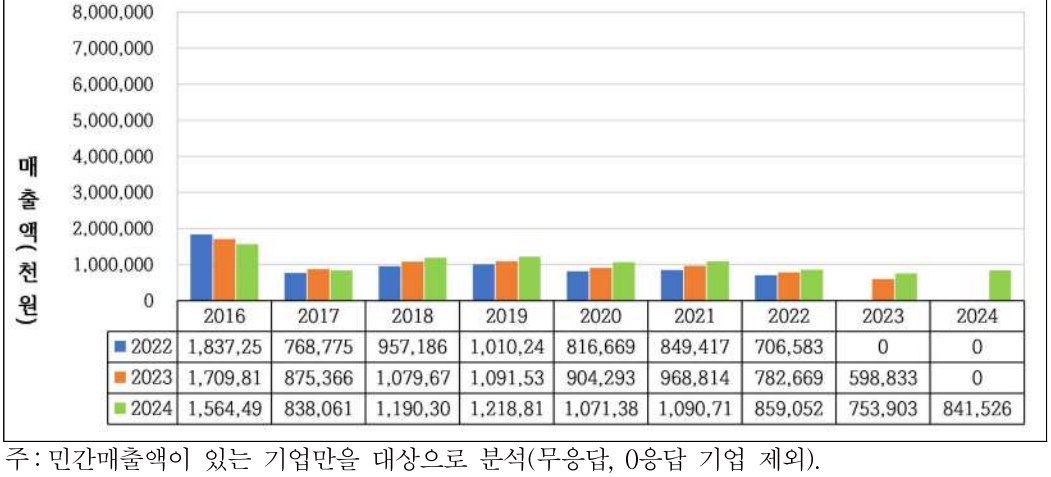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민간매출액을 살펴본다. 아래 [그림 4-19]에서는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민간매출액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2013년 인증기업을 제외하면, 2007년 인증기업이 대체로 높은 평균 매출액을 보인다. 2013년 인증기업의 민간매출액 평균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대로 민간매출액이 월등히 큰 특정기업의 영향으로 평균값이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외 인증연도의 사회적기업의 민간매출액은 2009년(약 6억 7천만 원), 2023년(약 7억 5천만 원)을 제외하고 대체로 10억 원 안팎의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된다.

[그림 4-19] 인증연도별 평균 민간매출액

(단위 : 천 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2	2,549,96	1,112,73	549,370	1,332,71	1,768,99	951,266	7,861,94	1,402,49	821,768
2023	2,763,48	1,536,20	690,533	1,443,05	1,263,42	666,624	7,786,33	1,490,42	980,138
2024	2,963,22	1,755,24	666,585	1,673,44	1,346,07	1,098,59	8,850,77	1,561,69	1,024,16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2	1,837,25	768,775	957,186	1,010,24	816,669	849,417	706,583	0	0
2023	1,709,81	875,366	1,079,67	1,091,53	904,293	968,814	782,669	598,833	0
2024	1,564,49	838,061	1,190,30	1,218,81	1,071,38	1,090,71	859,052	753,903	841,526

주 : 민간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인증유형별로 최근 3년간의 사회적기업의 평균 민간매출액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4-20]과 같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기타(창의·혁신)형이 다른 인증유형에 비해 평균 민간매출액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앞서 설명한 민간매출액 규모가 월등히 큰 특정 사회적기업이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인증되어 있어 극단값이 유형별 평균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지역사회공헌형은 2023년에 감소하였다가 2024년에는 증가하였다. 혼합형은 2023년에 증가하였다가 2024년에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4-20] 인증유형별 평균 민간매출액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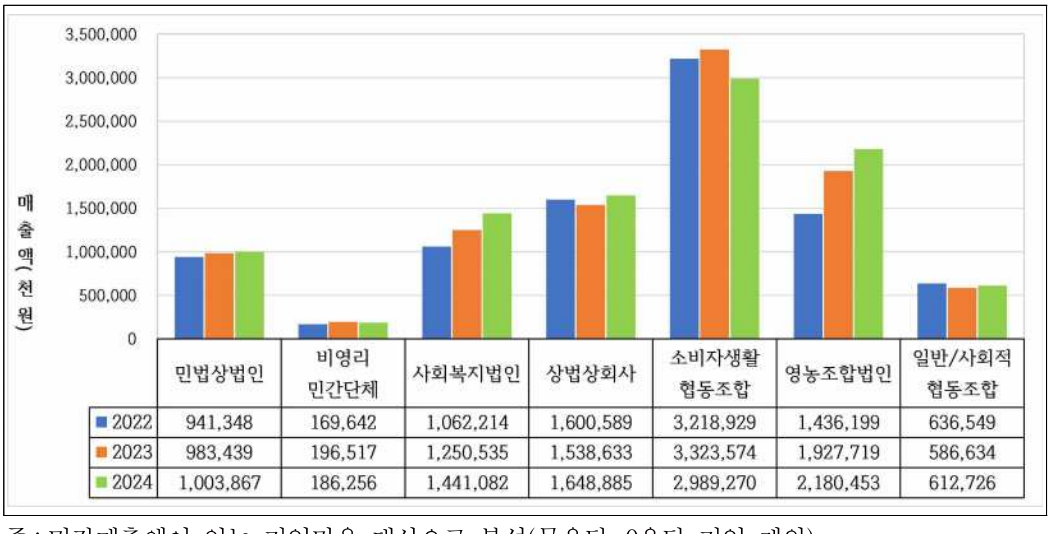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창의 · 혁신)형	지역사회공헌형
2022	1,209,738	439,280	468,666	3,557,683	815,669
2023	1,233,464	452,629	527,271	3,459,250	739,533
2024	1,341,410	469,833	492,736	3,753,001	776,513

주 : 민간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마지막으로 조직형태별 평균 민간매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4-21]과 같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의 민간매출액이 다른 조직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협동조합은 2023년까지 증가하였다가 2024년에 감소하였다. 반면, 일반/사회적협동조합과 상법상회사는 2023년에 감소한 이후 2024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민법상법인, 사회복지법인, 영농조합법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4-21] 조직형태별 평균 민간매출액

(단위 : 천 원)



	민법상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상법상회사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2022	941,348	169,642	1,062,214	1,600,589	3,218,929	1,436,199	636,549
2023	983,439	196,517	1,250,535	1,538,633	3,323,574	1,927,719	586,634
2024	1,003,867	186,256	1,441,082	1,648,885	2,989,270	2,180,453	612,726

주 : 민간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2. 영업이익(손실)

다음으로 2024년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은 2016년 회계처리 기준 변화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이 변경되었다. 즉, 2016년 이전 인증사회적기업의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은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어 영업이익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2016년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계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변경되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의 제17장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특정의 비용과 상계 처리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핵심 지원 항목인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해당 비용과 상계 처리하도록 회계처리 방식이 변경되었다.

〈참고〉 일반기업 회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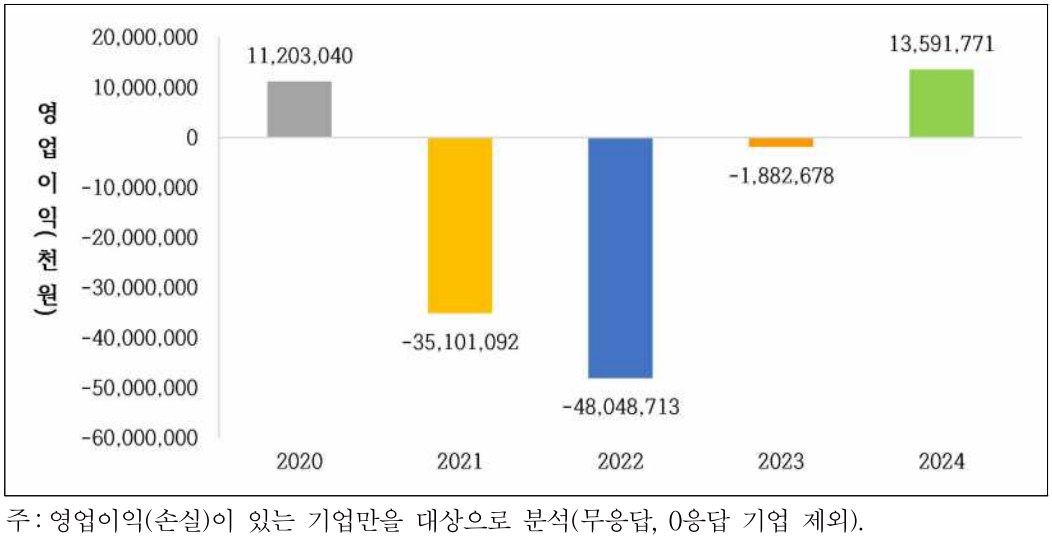
(제17장 정부 보조금의 회계처리) 수익 관련 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반면 수익 관련 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 한다.

다음의 [그림 4-22]는 2020~2024년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 총액을 나타낸 그림이다.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은 2020년 약 112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21년, 2022년, 2023년에는 각각 약 351억 원, 480억 원, 18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반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154억 원 증가하여 약 135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업이익 손실 및 하락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 침체로 가계 경제 악화, 수출 제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코로나19 종료로 방역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방역 및 소독 관련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노무비 절감 등 비용구조 재정비와 운영 효율화가 이루어져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2] 연도별 영업이익 총액

(전체 3,560개소,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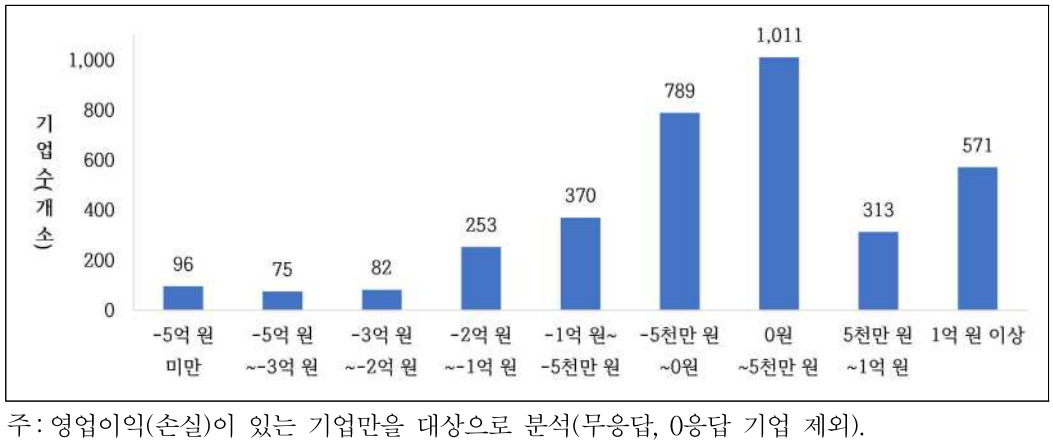
주 :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0, ,2021, 2022, 2023, 2024)

[그림 4-23]은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2024년도에는 전체 3,560개의 사회적기업 중 53.2%인 1,895개소가 영업이익을 보고하고, 46.8%인 1,665개소가 영업손실을 보고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도 영업이익이 0~5천만 원이라고 응답한 사회적기업이 28.4%(1,011개소)로 가장 많았고, -5천만~0원 사이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이 22.2%(789개소)로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5천만 원~1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고한 기업은 8.8%(313개소), 1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기업이 16.0%(571개소)로 나타났다. 반면에 -1억~-5천만 원의 영업손실을 보고한 경우는 10.4%(370개소)로 나타났고, -3억 원~-2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고한 경우는 2.3%(82개소), -5억 원~-3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고한 경우는 2.1%(75개소), -5억 원 미만의 영업손실을 보고한 경우도 2.7%(96개소)에 달했다.

[그림 4-23] 영업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전체 3,560개소, 단위 : 개소)



주 :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표 4-5>와 [그림 4-24]는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 분포 및 구간별 기업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의 영업실적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인다. 2022년 대비 2023년과 2024년에 영업이익을 기록한 기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0원~5천만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기업과 1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기록한 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4년 기준 영업이익을 기록한 기업 수는 1,895개소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반면 영업손실을 보고한 기업 수는 1,665개소로 감소하였다. 이는 사회적기업 전반의 영업성과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5> 연도별 영업이익(손실)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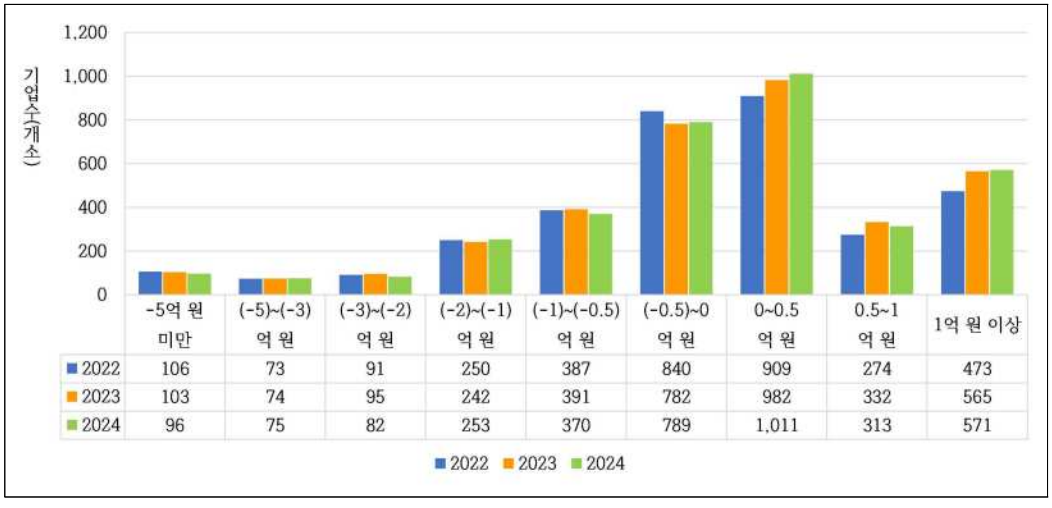
(단위 : 개소, %)

구분	2022		2023		2024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5억 원 미만	106	3.1	103	2.9	96	2.7
-5억 원 ~ -3억 원	73	2.1	74	2.1	75	2.1
-3억 원 ~ -2억 원	91	2.7	95	2.7	82	2.3
-2억 원 ~ -1억 원	250	7.3	242	6.8	253	7.1
-1억 원 ~ -5천만 원	387	11.4	391	11.0	370	10.4
-5천만 원 ~ 0원	840	24.7	782	21.9	789	22.2
0원 ~ 5천만 원	909	26.7	982	27.5	1,011	28.4
5천만 원 ~ 1억 원	274	8.1	332	9.3	313	8.8
1억 원 이상	473	13.9	565	15.8	571	16.0
합계	3,403	100.0	3,566	100.0	3,560	100.0

주 :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그림 4-24] 연도 및 영업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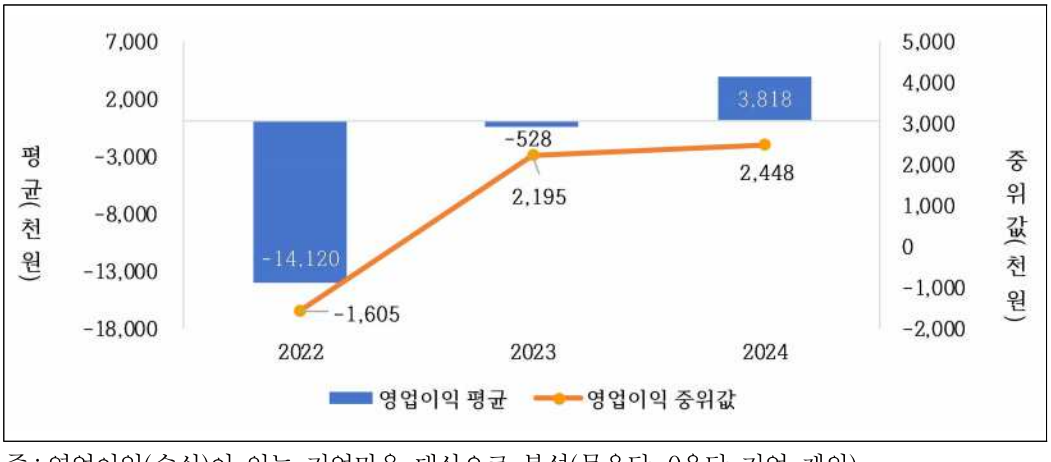


주 :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앞서 영업이익 총액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최근 3년 동안 사회적기업의 영업손실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으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영업이익 평균과 중위값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 4-25]와 같이, 평균 영업이익은 2022년 약 -14백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회복한 후, 2024년 약 4백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영업이익(손실)의 중위값 역시 2022년에 약 -2백만 원에서, 2023년 약 2백만 원, 2024년 약 24백만 원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4-25] 영업이익(손실)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주 :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한편, <표 4-6>는 영업이익(손실)의 평균과 중위값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했는데, 지역별로 영업이익(손실)의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다. 31개소의 사회적기업이 분포된 세종을 제외하면, 평균 영업이익이 0원보다 높게 나타난 지역은 대전이 약 1억 4백만 원(115개소)으로 가장 높았고, 경남 약 4천만 원(190개소), 인천 약 3천 4백만 원(198개소), 광주 약 2천 4백만 원(153개소), 충남 약 1천 7백만 원(159개소), 경북 약 7백만 원(265개소), 전남 약 5백만 원(198개소), 울산 약 2백만 원(113개소), 서울 약 4십만 원(583개소)으로 총 9개 지역이 0보다 큰 평균 영업이익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영업손실이 나타난 지역은 제주가 약 -5천 2백만 원(93개소)으로 가장 컸으며, 세종 약 -2천 5백만 원(31개소), 대구 약 -2천 5백만 원(131개소), 경기 약 -1천 4백만 원(701개소), 부산 약 -1천만 원(174개소), 강원 약 -8백만 원(193개소),

충북 약 -4백만 원(150개소), 전북 약 -2백만 원(219개소)의 순으로 총 8개 지역에서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 영업이익(손실)의 중위값은 광주, 전북, 전남, 울산, 경기, 경북, 인천, 부산, 충북, 경남, 제주, 충남이 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 대전, 서울, 대구, 세종은 중위값이 0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은 평균과 중위값 모두 큰 손실을 기록한 지역으로 확인된다.

<표 4-6> 지역별 영업이익(손실)

(단위 : 천 원, 개소)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420	583	-3,381
부산	-10,238	174	2,769
대구	-25,032	131	-5,915
인천	33,829	198	3,097
광주	24,178	153	10,012
대전	103,949	115	-2,527
울산	2,472	113	7,996
세종	-25,095	31	-27,455
경기	-13,699	701	3,589
강원	-7,650	193	-1,392
충북	-3,663	150	1,739
충남	16,537	159	571
전북	-1,504	219	9,942
전남	5,451	198	9,101
경북	7,154	265	3,295
경남	39,786	190	1,192
제주	-51,542	93	1,095
전체	3,818	1,895	2,448

주 :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그림 4-26]은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손실)이다. 2007년을 제외하면 초창기에 인증받은 기업들은 최근 3년간 대체로 영업손실을 보고하고 있다. 반면, 2022년과 2023년처럼 안정되지 않은 시기를 제외하면, 비교적 최근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들은 영업이익을 보고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2013년과 2018년, 2020년에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들은 2022~2024년 최근 3년간 꾸준히 영업이익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4-26] 인증연도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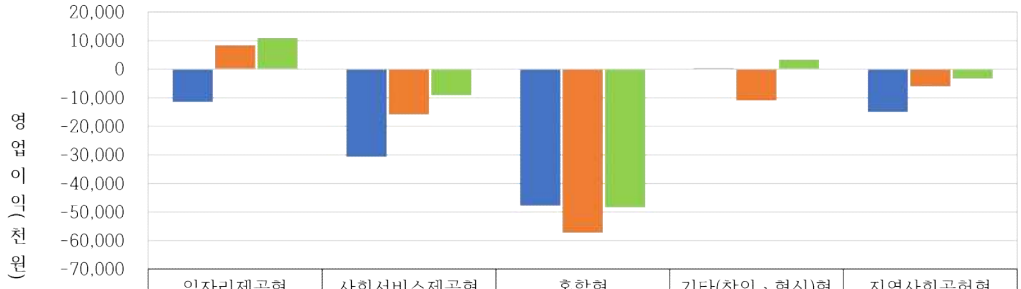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주 :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그림 4-27]은 인증유형별 평균 영업이익(손실)을 정리한 것으로, 2024년 기준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에서 손실이 감소하거나 흑자로 전환되는 유형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일자리제공형, 기타(창의·혁신)형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그림 4-27] 인증유형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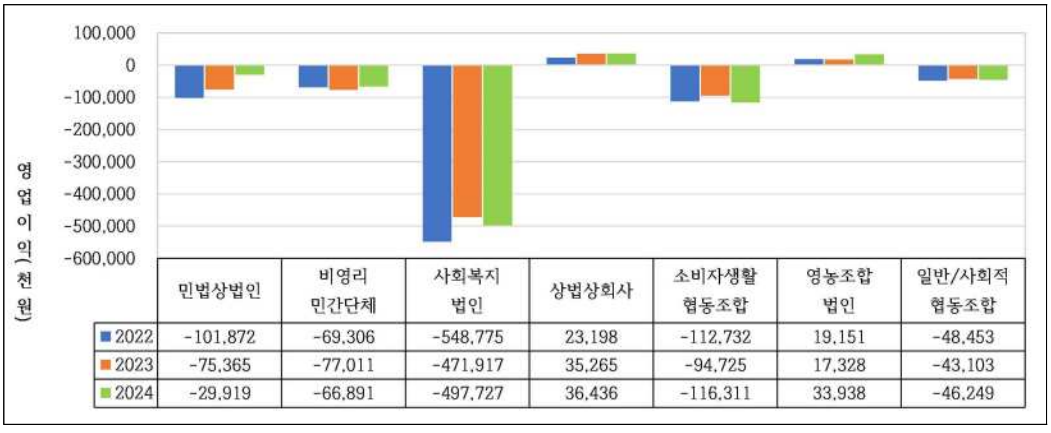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지역사회공헌형
2022	-11,542	-30,759	-47,761	368	-15,049
2023	8,431	-15,982	-57,254	-11,038	-6,038
2024	10,886	-9,204	-48,357	3,362	-3,326

주 :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그림 4-28]은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이익(손실)을 나타낸 것이다. 상법상회사와 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적기업은 모두 영업손실을 보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형에서는 손실 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상법상회사의 경우, 평균 영업이익은 2022년 약 2천 3백만 원, 2023년 약 3천 5백만 원, 2024년 약 3천 6백만 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였다. 영농조합법인은 2022년 약 1천 9백만 원, 2023년 약 1천 7백만 원, 2024년 약 3천 4백만 원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지법인은 2024년 약 -5억 원으로 가장 큰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는 2024년 약 -6천 7백만 원으로 소폭 손실이 감소했으나, 전반적으로 여전히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23년에는 영업손실이 감소했으나, 2024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4-28]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단위 : 천 원)



	민법상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상법상회사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영농조합 법인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2022	-101,872	-69,306	-548,775	23,198	-112,732	19,151	-48,453
2023	-75,365	-77,011	-471,917	35,265	-94,725	17,328	-43,103
2024	-29,919	-66,891	-497,727	36,436	-116,311	33,938	-46,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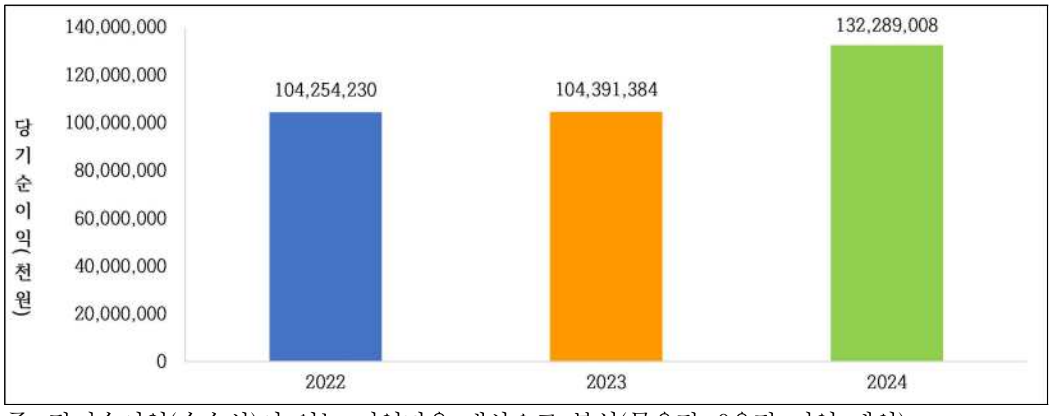
주 :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3. 당기순이익(손실)

다음으로는 사회적기업들의 당기순이익(손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의 [그림 4-29]는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총액을 나타낸 그림이다. 2024년 사회적기업은 전년 대비 약 26.7% 증가한 1천 3백 2십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3년에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다가 2024년도 뚜렷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4-29]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총액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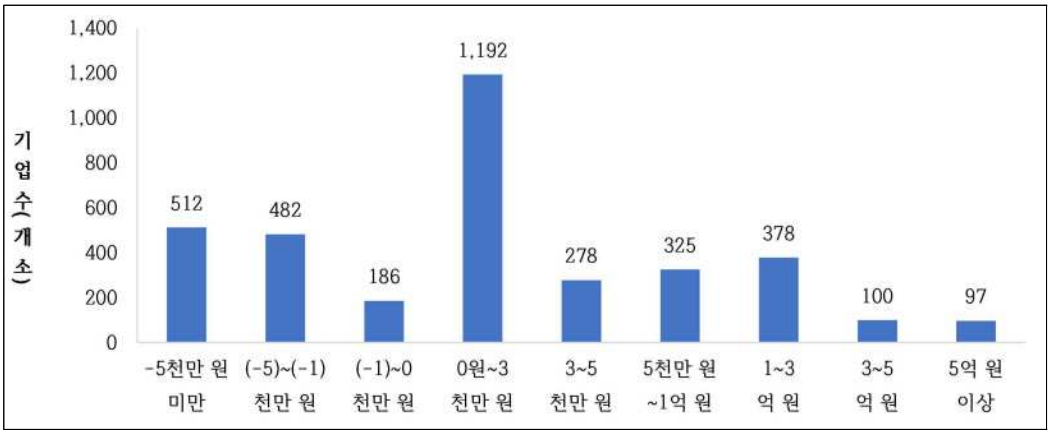
주 :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그림 4-30]은 당기순이익(손실)의 분포와 분포별 기업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3,550개소 중 0~3천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이 33.6%(1,192개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5천만 원 미만의 당기순손실을 보고한 기업이 14.4%(512개소), 5천만 원~1천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보고한 기업이 13.6%(482개소)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은 2.8%(100개소), 5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은 2.7%(97개소)로 나타났다.

[그림 4-30] 당기순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전체 3,550개소, 단위 : 개소)



주 :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표 4-7>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분포

(단위 :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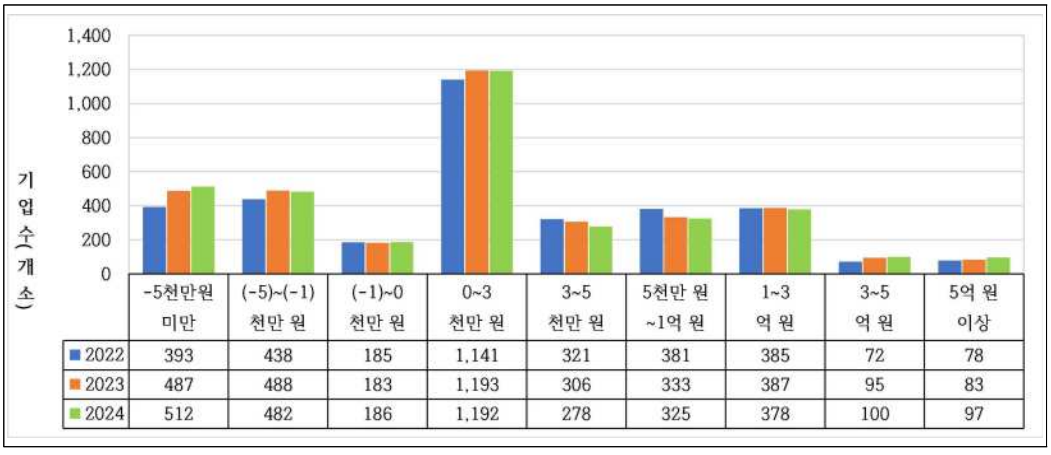
구분	2022		2023		2024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5천만 원 미만	393	11.6	487	13.7	512	14.4
-5천만 원 ~ -1천만 원	438	12.9	488	13.7	482	13.6
-1천만 원 ~0원	185	5.5	183	5.1	186	5.2
0원 ~ 3천만 원	1,141	33.6	1,193	33.6	1,192	33.6
3천만 원 ~ 5천만 원	321	9.5	306	8.6	278	7.8
5천만 원 ~ 1억 원	381	11.2	333	9.4	325	9.2
1억 원 ~ 3억 원	385	11.3	387	10.9	378	10.6
3억 원 ~ 5억 원	72	2.1	95	2.7	100	2.8
5억 원 이상	78	2.3	83	2.3	97	2.7
합계	3,394	100.0	3,555	100.0	3,550	100.0

주 :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연도별로 당기순이익(손실)의 기업별 분포의 변화를 다음 [그림 4-31]에 제시하였다.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손실)의 분포는 구간별 비중에서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양상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0원~3천만 원 구간은 2024년 1,192개소로 전년도(1,193개소)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손실 구간인 -5천만 원 미만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1천만 원~0원 구간도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다만 이들 손실 구간은 전체 대비 비중에서는 큰 변화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3천만 원~ 5천만 원과 5천만 원~1억 원 구간은 2023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 4-31] 연도 및 당기순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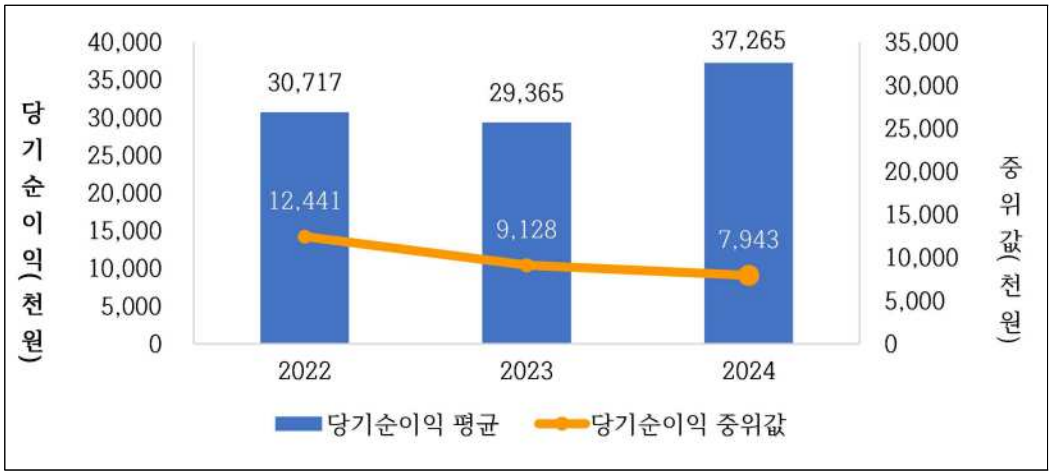
	-5천만원 미만	(-5)~(-1) 천만 원	(-1)~0 천만 원	0~3 천만 원	3~5 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1~3 억 원	3~5 억 원	5억 원 이상
2022	393	438	185	1,141	321	381	385	72	78
2023	487	488	183	1,193	306	333	387	95	83
2024	512	482	186	1,192	278	325	378	100	97

주 :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아래 [그림 4-32]는 당기순이익(손실)의 평균 및 중위값을 연도별로 분석한 내용이다. 사회적기업의 평균 당기순이익(손실)은 2022년 약 3천 1백만 원에서 2023년에는 약 2천 9백만 원으로 소폭 감소한 뒤, 2024년에는 약 3천 7백만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중위값은 2022년 약 1천 2백만 원에서 2023년 약 9백 1십만 원, 2024년에는 약 7백 9십만 원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4-32] 당기순이익(손실)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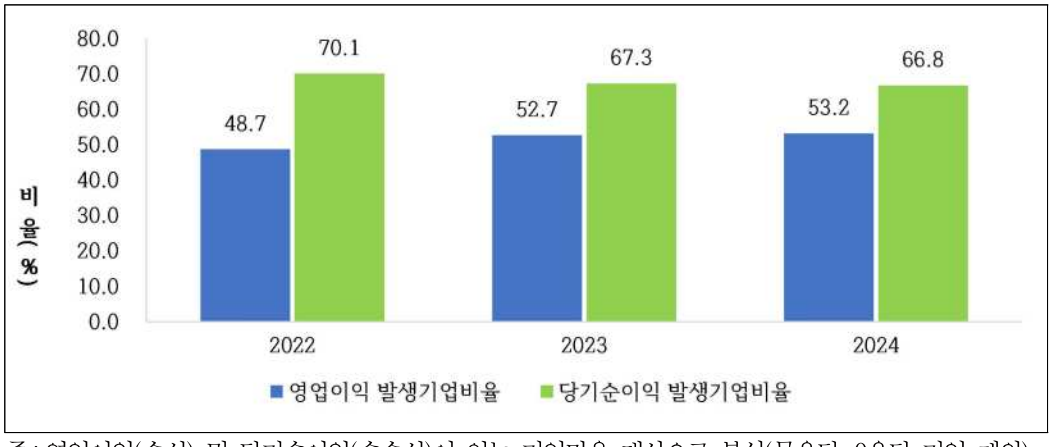


주 :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아래 [그림 4-33]은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과 당기순이익(손실)의 발생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영업이익을 보고한 기업의 비율은 2022년 48.7%에서 2023년 52.7%, 2024년에는 53.2%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반면, 당기순이익 발생기업 비율은 2022년 70.1%에서 2023년 67.3%, 2024년 66.8%로 감소하였다. 다만 이러한 변화를 기업의 경영 환경 및 성과의 변화라고 성급하게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4-33] 영업이익(영업손실) 및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발생 비교

(단위 : %)



주 : 영업이익(손실) 및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아래 <표 4-8>은 2024년 사회적기업 당기순이익(손실)의 평균과 중위값을 지역에 따라 분류한 결과로, 대전(약 1억 2천 6백만 원), 서울(약 6천 1백만 원) 순으로 당기순이익(손실)이 높았으며, 대구(약 1천만 원), 세종(약 9천만 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중위값으로 살펴보면, 전북(약 1천 2백만 원), 전남(약 1천 2백만 원), 경기(약 1천 1백만 원), 광주(약 1천만 원) 순으로 높았으며, 반면에 세종(약 4십만 원)이 중위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지역별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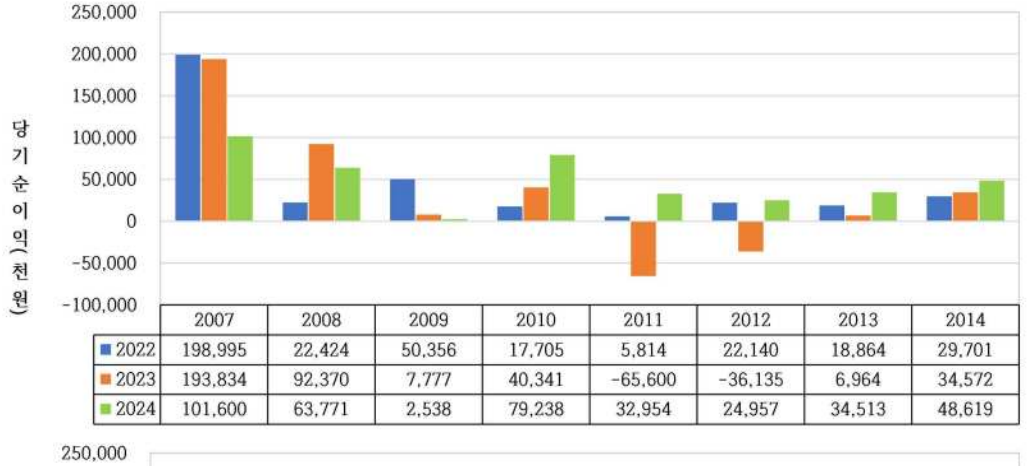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61,195	583	9,405
부산	9,540	173	3,913
대구	1,019	131	1,521
인천	33,216	196	4,890
광주	45,378	152	10,389
대전	126,493	115	2,536
울산	23,934	112	7,747
세종	9,285	31	358
경기	29,728	699	11,056
강원	35,981	192	8,574
충북	33,788	150	5,190
충남	28,078	159	5,391
전북	37,305	218	12,426
전남	23,507	198	11,892
경북	24,682	263	5,360
경남	42,852	191	6,056
제주	35,968	93	6,734
전체	37,265	3,656	7,943

주 :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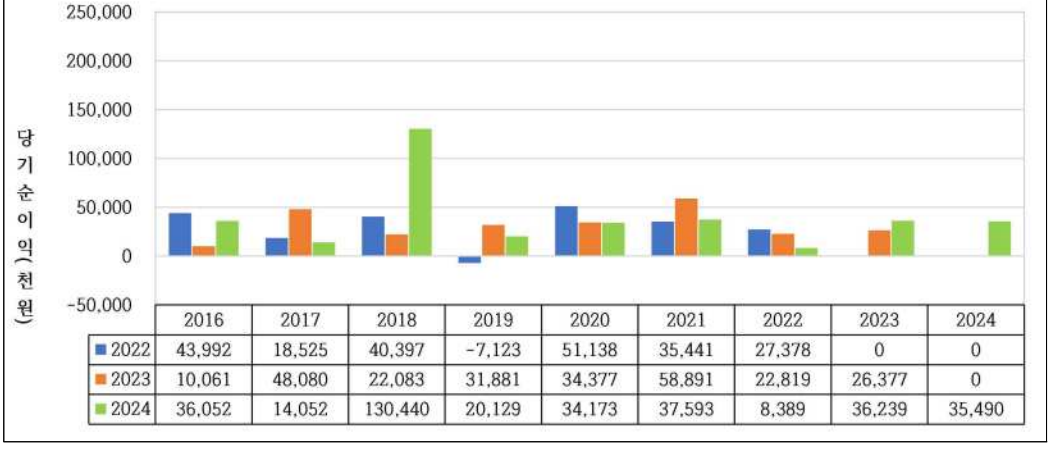
아래 [그림 4-34]는 최근 3년간의 평균 당기순이익(손실)을 인증연도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인증연도별 추세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2022년에서 2024년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순이익 흐름을 보였으나 일부 연도에서는 감소세가 확인되었다. 특히, 2007년 인증기업의 경우 평균이 2023년 약 1억 9천만원에서 2024년에는 약 1억 1백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2017년 인증기업의 경우 평균이 2023년 약 4천 8백만원에서 2024년에는 약 1천 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는 일부 특정 기업의 대규모 손실이 평균에 영향을 미친 결과일 수 있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림 4-34] 인증연도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단위 : 천 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22	198,995	22,424	50,356	17,705	5,814	22,140	18,864	29,701
2023	193,834	92,370	7,777	40,341	-65,600	-36,135	6,964	34,572
2024	101,600	63,771	2,538	79,238	32,954	24,957	34,513	48,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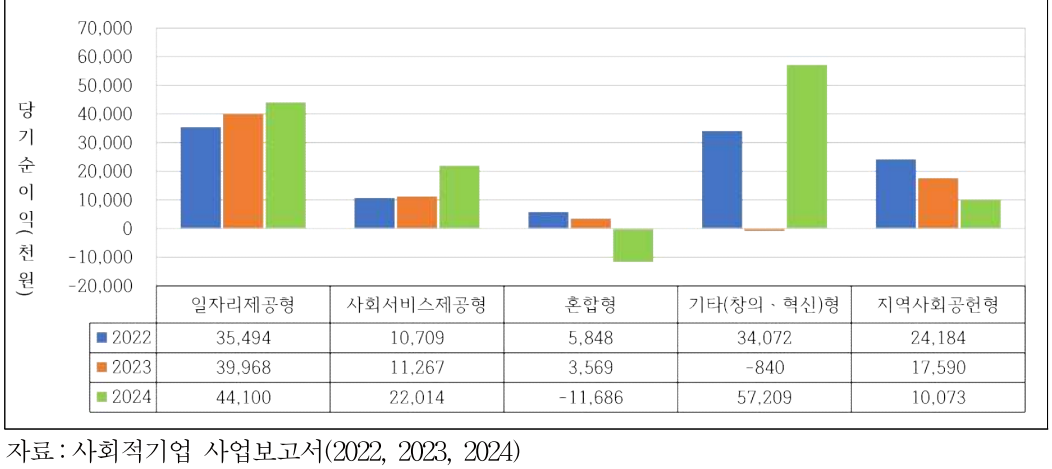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2	43,992	18,525	40,397	-7,123	51,138	35,441	27,378	0	0
2023	10,061	48,080	22,083	31,881	34,377	58,891	22,819	26,377	0
2024	36,052	14,052	130,440	20,129	34,173	37,593	8,389	36,239	35,490

주 :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아래 [그림 4-35]는 최근 3년간의 인증유형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기타(창의·혁신)형의 수익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타(창의·혁신)형은 2023년 약 8십만 원의 손실에서 2024년에는 약 5천 7백만 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반면, 혼합형은 2024년 평균 당기순손실 약 1천 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큰폭 감소하며 적자 구간에 진입했다. 지역사회공헌형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감소하여, 2024년에는 평균 약 1천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그림 4-35] 인증유형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단위 : 천 원)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창의 · 혁신)형	지역사회공헌형
2022	35,494	10,709	5,848	34,072	24,184
2023	39,968	11,267	3,569	-840	17,590
2024	44,100	22,014	-11,686	57,209	10,073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아래 [그림 4-36]은 최근 3년간 조직형태에 따른 평균 당기순이익(손실)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민법상법인, 상법상회사,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이 최근 3년간 꾸준하게 당기순이익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또한 2022년에는 음의 성장을 보였다가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23년 당기순손실 폭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흑자로 전환하였다. 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꾸준히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여 2024년 손실 구간에 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표 부가분석 4-1>과 <표 부가분석 4-2>에서는 앞서 정리한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의 총액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4-36] 조직형태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단위 : 천 원)

	민법상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상법상회사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영농조합 법인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2022	22,892	8,304	-89,205	39,359	-69,901	38,491	17,706
2023	53,906	4,678	37,704	33,076	-52,130	-21,916	14,031
2024	66,255	-13,589	39,632	40,929	-102,951	31,377	16,829

주 :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재정성과분석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22, 2023, 2024)

<표 부가분석 4-1> 재정성과 총액(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단위 : 천 원)

항목			2022	2023	2024
매출액	전체총액		6,854,081,778	7,285,120,389	7,698,604,614
	인증연도	2007	151,874,286	161,429,494	150,998,590
		2008	185,451,232	221,860,548	236,320,841
		2009	84,806,327	76,720,330	85,321,556
		2010	242,490,014	258,991,336	269,030,742
		2011	271,511,754	265,229,800	253,071,852
		2012	216,031,339	183,832,458	217,484,560
		2013	1,277,027,585	1,188,635,986	1,149,217,507
		2014	400,830,149	427,069,060	434,888,276
		2015	386,998,418	398,143,018	411,460,976
		2016	572,630,697	558,605,049	552,742,742
		2017	351,561,507	373,178,804	365,843,108
		2018	562,228,646	577,635,503	544,411,281
		2019	563,416,813	557,137,506	575,858,610
		2020	624,657,108	654,823,490	665,393,040
		2021	593,724,697	661,442,176	673,791,496
		2022	368,841,204	398,676,392	423,606,142
		2023	-	321,709,439	376,900,755
		2024	-	-	312,262,540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4,695,283,872	5,104,193,701	5,408,451,449
		사회서비스제공형	249,248,672	313,422,006	366,954,940
		혼합형	194,428,060	211,982,011	227,434,081
		기타형	1,361,503,770	1,289,471,088	1,301,594,939
		지역사회공헌형	353,617,403	366,051,583	394,169,203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716,912,751	747,783,314	795,125,541
		비영리민간단체	22,941,489	27,021,913	27,877,171
		사회복지법인	165,371,443	183,715,269	181,052,037
		상법상회사	5,046,861,057	5,342,416,274	5,553,322,55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6,666,808	37,830,936	30,030,625
		영농조합법인	194,299,147	206,768,822	231,515,804

항목			2022	2023	2024
		일반/사회적협동조합	671,029,083	739,583,861	879,680,878
		기타	-	-	-
공공 매출	전체총액		2,905,701,435	3,201,460,255	3,477,906,486
	인증 연도	2007	80,475,179	84,052,034	70,991,511
		2008	95,320,036	97,427,934	102,922,435
		2009	64,479,636	51,170,597	59,991,342
		2010	93,226,494	104,584,982	115,073,918
		2011	137,068,227	167,945,940	153,462,405
		2012	127,563,609	123,836,315	126,301,627
		2013	137,044,944	129,694,728	122,528,231
		2014	177,833,960	206,486,129	224,059,292
		2015	257,980,861	251,122,356	267,053,372
		2016	232,738,184	262,806,496	303,987,963
		2017	208,569,435	231,369,565	236,781,781
		2018	343,990,297	354,142,036	319,443,614
		2019	256,300,973	256,964,637	279,686,609
		2020	342,089,733	358,215,477	346,120,121
		2021	238,668,224	270,041,129	287,679,603
		2022	112,351,641	126,307,570	157,299,903
		2023	-	125,292,329	152,991,608
		2024	-	-	151,531,152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2,378,634,913	2,591,627,363	2,780,630,237
		사회서비스제공형	155,242,654	203,433,190	247,617,317
		혼합형	113,348,883	123,927,710	148,596,339
		기타형	123,430,204	137,540,688	134,411,776
		지역사회공헌형	135,044,781	144,931,304	166,650,817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501,344,037	532,410,117	583,309,617
		비영리민간단체	13,950,474	17,392,581	19,681,902
		사회복지법인	92,078,701	96,177,848	85,940,617
		상법상회사	1,893,700,660	2,094,361,720	2,202,787,77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258,591	1,271,619	137,929
		영농조합법인	32,008,667	29,418,685	24,372,74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71,360,307	430,427,685	561,675,903
		기타	-	-	-
민간 매출	전체총액		3,948,380,342	4,083,660,134	4,220,698,127
	인증 연도	2007	71,399,107	77,377,460	80,007,079
		2008	90,131,196	124,432,614	133,398,406
		2009	20,326,691	25,549,733	25,330,214
		2010	149,263,520	154,406,354	153,956,824
		2011	134,443,528	97,283,860	99,609,446

항목			2022	2023	2024
민간 매출	인증 연도	2012	88,467,730	59,996,143	91,182,933
		2013	1,139,982,641	1,058,941,258	1,026,689,276
		2014	222,996,188	220,582,931	210,828,984
		2015	129,017,557	147,020,661	144,407,603
		2016	339,892,513	295,798,554	248,754,779
		2017	142,992,072	141,809,239	129,061,328
		2018	218,238,349	223,493,467	224,967,667
		2019	307,115,840	300,172,869	296,172,001
		2020	282,567,375	296,608,013	319,272,919
		2021	355,056,473	391,401,047	386,111,893
		2022	256,489,563	272,368,822	266,306,240
		2023	-	196,417,110	223,909,147
		2024	-	-	160,731,388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2,316,648,959	2,512,566,339	2,627,821,212
		사회서비스제공형	94,006,019	109,988,816	119,337,624
		혼합형	81,079,177	88,054,301	78,837,742
		기타형	1,238,073,565	1,151,930,400	1,167,183,164
		지역사회공헌형	218,572,622	221,120,279	227,518,386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215,568,714	215,373,197	211,815,924
		비영리민간단체	8,991,015	9,629,331	8,195,269
		사회복지법인	73,292,742	87,537,421	95,111,421
		상법상회사	3,153,160,397	3,248,054,554	3,350,534,78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5,408,218	36,559,317	29,892,695
		영농조합법인	162,290,480	177,350,137	207,143,063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99,668,776	309,156,176	318,004,975
		기타	-	-	-
영업 이익	전체총액		-48,048,714	-1,882,678	13,591,771
	인증 연도	2007	1,468,543	527,725	70,655
		2008	-13,942,147	-8,616,615	-10,633,651
		2009	-3,783,918	-5,691,493	-2,717,916
		2010	-6,653,204	-4,429,421	-3,620,062
		2011	-8,291,970	-12,601,135	-8,957,753
		2012	-7,423,171	-9,595,949	-7,669,039
		2013	3,305,798	1,357,915	3,204,703
		2014	-1,098,851	-379,647	4,498,268
		2015	2,803,948	4,700,799	1,322,652
		2016	-705,570	4,212,696	7,219,494
		2017	-4,111,456	6,098,359	1,472,053
		2018	4,731,230	875,895	8,794,140
		2019	-13,927,675	8,212,873	4,442,651

항목			2022	2023	2024
	인증 연도	2020	6,940,170	5,401,037	6,164,801
		2021	-3,311,160	11,363,556	8,679,016
		2022	-4,049,280	-965,992	-4,795,313
		2023	-	-2,353,281	1,905,180
		2024	-	-	4,211,895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26,188,057	20,081,511	25,679,648
		사회서비스제공형	-8,151,144	-4,826,530	-2,982,224
		혼합형	-9,408,913	-11,164,497	-9,187,913
		기타형	138,724	-4,028,919	1,189,975
		지역사회공헌형	-4,439,323	-1,944,243	-1,107,715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30,459,819	-22,609,545	-8,885,906
		비영리민간단체	-4,089,028	-4,081,603	-3,411,458
		사회복지법인	-40,060,606	-34,449,939	-34,343,166
		상법상회사	52,868,524	85,023,773	87,301,60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240,048	-1,041,971	-1,163,107
		영농조합법인	2,259,828	1,784,803	3,461,631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7,327,565	-26,508,197	-29,367,825
		기타	-	-	-
당기 순이익	전체총액		104,254,230	104,391,384	132,289,008
	인증 연도	2007	6,566,839	6,008,861	3,047,995
		2008	2,175,174	8,128,597	5,548,063
		2009	2,316,359	342,168	109,136
		2010	2,195,436	4,639,184	8,478,417
		2011	529,037	-5,772,835	2,834,036
		2012	2,324,713	-3,541,189	2,370,920
		2013	3,320,095	1,100,319	5,038,961
		2014	5,554,032	5,808,026	7,535,878
		2015	7,758,511	1,455,843	213,677
		2016	9,194,226	1,941,856	6,705,591
		2017	4,038,344	9,135,210	2,515,332
		2018	11,149,497	5,586,915	30,131,548
		2019	-2,521,600	10,329,287	6,018,715
		2020	20,813,190	13,235,260	12,131,310
		2021	17,259,675	27,089,655	15,826,862
		2022	11,580,702	9,355,877	3,154,407
		2023	-	9,548,349	12,429,993
		2024	-	-	8,198,168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80,359,433	95,003,662	103,811,013
		사회서비스제공형	2,805,666	3,368,850	7,110,617
		혼합형	1,157,892	695,995	-2,208,668

항목			2022	2023	2024
		기타형	12,845,201	-305,842	20,251,896
		지역사회공헌형	7,086,037	5,628,720	3,324,150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6,775,976	16,063,974	19,545,277
		비영리민간단체	489,915	238,566	-679,437
		사회복지법인	-6,333,520	2,639,264	2,615,742
		상법상회사	89,580,669	79,679,295	97,983,53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68,916	-573,432	-1,029,511
		영농조합법인	4,541,895	-2,257,395	3,200,469
		일반/사회적협동조합	9,968,212	8,601,113	10,652,931
		기타	-	-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 지역 및 표준산업분류별 분석(2024)

<표 부가분석 4-2> 재정성과 총액 분석(지역, 표준산업분류별)

(단위 : 천 원)

매출액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48,210,287	213,064,091	126,937,445	360,379,586	240,855,399	216,830,860	134,420,266	60,808,585	1,686,520,895	299,512,180	279,187,414	220,248,508	357,946,594	254,535,046	521,454,286	275,443,442	102,249,729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정보통신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운수업(H)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E)
		260,931,428	323,685,548	113,660,766	1,733,532,718	643,934,908	701,642,482	83,716,344	191,262,998	16,921,937	181,067,869	2,920,893,893	145,046,965	44,935,115	-	21,341,755	72,928,626	223,101,261
공공 매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96,040,552	116,263,845	64,989,345	203,934,833	124,075,587	81,316,833	57,524,750	22,509,817	918,604,312	187,432,570	117,787,459	126,741,833	160,652,829	92,150,123	157,356,596	119,962,609	30,562,594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정보통신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운수업(H)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E)
		171,224,763	213,266,218	17,381,494	302,229,953	397,192,216	340,874,082	23,720,574	92,968,807	2,311,686	85,376,780	1,526,391,788	51,505,785	18,780,702	-	6,339,378	60,448,709	167,893,554
민간 매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52,169,735	96,800,246	61,948,100	156,444,753	116,779,813	135,514,027	76,895,516	38,298,768	767,916,583	112,079,610	161,399,955	93,506,675	197,293,764	162,384,923	364,097,690	155,480,833	71,687,135

<표 부가분석 4-2> 계속

(단위 : 천 원)

민간 매출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정보통신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운수업(H)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E)
		89,706,665	110,419,330	96,279,272	1,451,302,766	246,742,692	360,768,400	59,995,770	98,294,191	14,610,251	95,691,090	1,394,502,105	93,541,181	26,154,413	0	15,002,378	12,479,917	55,207,707
영업 이익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5,038	-1,730,290	-3,179,037	6,664,265	3,626,707	11,746,263	259,585	-777,938	-9,534,289	-1,338,737	-523,799	2,563,223	-323,317	1,057,571	1,867,089	7,360,494	-4,381,057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정보통신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운수업(H)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E)
		6,495,204	-8,256,198	-1,188,223	665,043	-6,267,599	3,583,231	-3,737,716	-12,921,575	1,576,520	-2,327,232	29,127,726	7,323,449	-3,913,090	-	-2,816,022	1,598,306	4,649,947
당기순 이익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4,207,906	1,602,638	129,476	6,477,074	6,761,259	14,293,665	2,489,113	287,836	20,631,464	6,260,664	4,831,675	4,352,153	7,983,294	4,560,350	6,392,732	7,970,421	3,057,289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정보통신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운수업(H)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E)
		8,890,074	1,469,296	187,969	3,229,225	10,076,306	11,093,882	-1,589,531	-2,827,516	1,305,985	-3,599,609	79,368,935	10,241,933	895,289	-	7,673,179	1,732,733	4,140,858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제2절 지출 : 비용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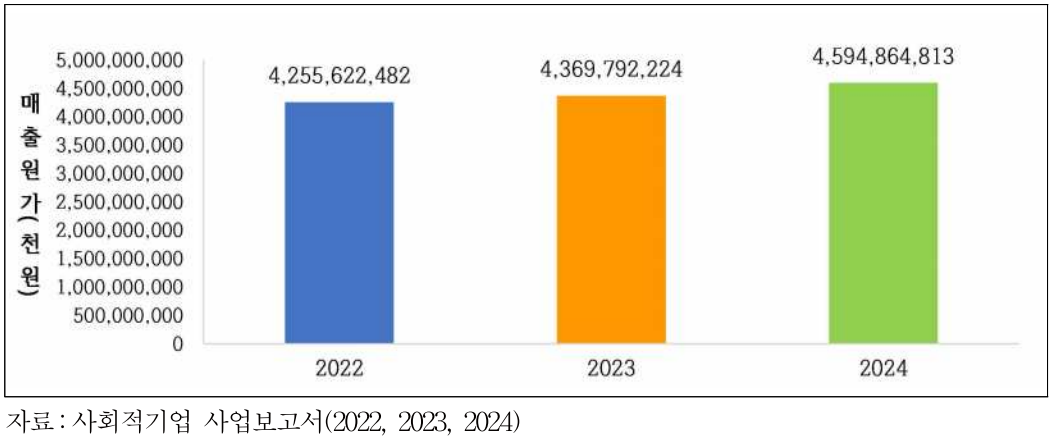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앞서 수입구조에 대한 분석에 이어 사회적기업의 비용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업보고서 양식에서 비용구조로 구분하여 분석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표들로는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경비 포함), 영업외비용, 인건비(노무비 포함)가 있다.

1. 매출원가

다음 [그림4-37]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최근 3년간 매출원가 총액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2024년의 매출원가 총액은 약 4조 5천 9백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천억 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2023~2024년 사이의 매출원가 증가액인 약 1천억 원보다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매출원가 총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4-37] 연도별 매출원가 금액

(단위 : 천 원)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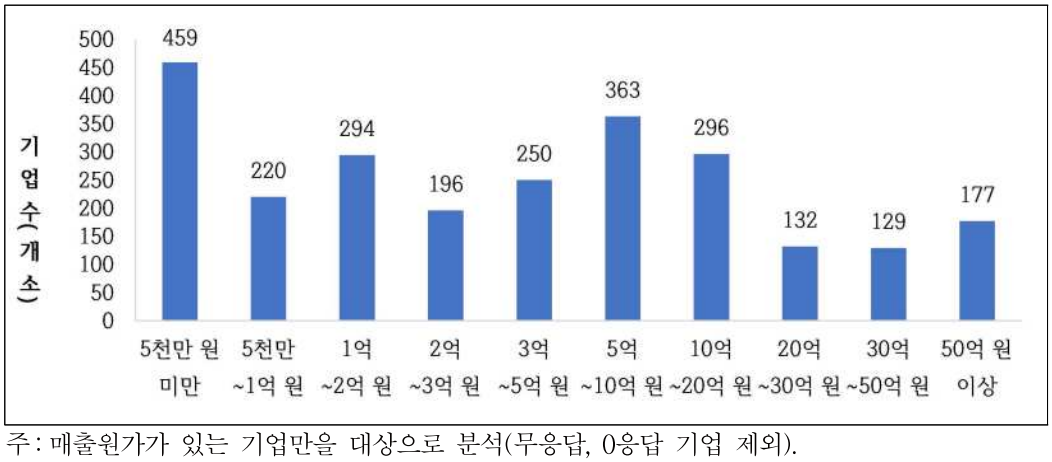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 4-38]은 매출원가의 분포와 분포별 기업 수를 제시하였다. 먼저 매출원가를 보고한 전체 2,516개소 중 2024년도 매출원가가 5천만 원 미만이라고 보고한 사회적기업이 18.2%(459개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5억~10

억 원이 14.4%(363개소), 10억~20억 원이 11.8%(296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원가가 50억 원 이상인 사회적기업도 7.0%(177개소)로 나타났다.

3억 원을 기준으로 전체 사회적기업 중 3억 원 미만의 매출원가를 보고한 경우는 46.5%(1,169개소)이며, 3억 원 이상이 53.5%(1,347개소)로 나타났다.

[그림 4-38] 매출원가 분포별 기업 수

(단위 : 개소)



주 :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표 4-9> 연도별 매출원가 비중 비교

(단위 : 개소, %)

구분	2022		2023		2024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5천만 원 미만	451	18.5	460	18.2	459	18.2
5천만 ~ 1억 원	232	9.5	228	9.0	220	8.7
1억 ~ 2억 원	273	11.2	281	11.1	294	11.7
2억 ~ 3억 원	184	7.6	188	7.4	196	7.8
3억 ~ 5억 원	258	10.6	263	10.4	250	9.9
5억 ~ 10억 원	352	14.4	387	15.3	363	14.4
10억 ~ 20억 원	292	12.0	302	12.0	296	11.8
20억 ~ 30억 원	114	4.7	114	4.5	132	5.2
30억 ~ 50억 원	123	5.0	125	4.9	129	5.1
50억 원 이상	158	6.5	179	7.1	177	7.0
합계	2,437	100.0	2,527	100.0	2,516	100.0

주 :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다음 [그림4-39]는 최근 3년간의 매출원가 평균과 중위값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매출원가 평균은 2023년 약 17억 3천만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24년 다시 약 18억 2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매출원가의 중위값은 2023년 약 3억 7천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가 2024년 약 1억 1천만 원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4-39] 연도별 매출원가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주 :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다음 [그림4-40]은 연도별 매출액(평균 및 중위값)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평균 기준일 때,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2022년 56.0%, 2023년 55.3%, 2024년 56.1%로 60% 미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2022년 61.7%, 2023년 60.8%, 2024년에는 61.7%로 매년 60% 이상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추세가 보인다.

[그림 4-40] 연도별 매출액(평균 및 중위값) 대비 매출원가 비중

(단위 : %)

주 :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표 4-10>은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원가 및 매출액 평균/중위값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비교한 결과이다. 서울의 경우 매출원가의 평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약 44억 7천만 원), 평균 매출원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약 7억 8천만 원)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매출액 평균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살펴보면, 경남과 제주(62.3%)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세종을 제외하고 대전이 48.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매출원가의 중위값은 경기(약 5억 3천만 원), 경북(약 4억 6천만 원), 충북(약 4억 5천만 원), 대구(약 4억 3천만 원)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부산(약 2억 2천만 원)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원가 비교

(단위 : 천 원, 개소, %)

지역	항목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매출원가	4,465,752	351	417,120
	매출원가 비중	54.0	351	55.6
부산	매출원가	922,796	113	223,078
	매출원가 비중	49.0	113	42.7
대구	매출원가	779,083	78	433,043
	매출원가 비중	57.2	78	91.5
인천	매출원가	1,463,072	146	297,275
	매출원가 비중	57.2	146	51.0
광주	매출원가	1,319,018	114	306,444
	매출원가 비중	49.1	114	50.5
대전	매출원가	915,122	77	232,009
	매출원가 비중	48.0	77	43.8
울산	매출원가	975,926	75	378,375
	매출원가 비중	57.1	75	44.9
세종	매출원가	1,344,553	21	423,832
	매출원가 비중	57.7	21	47.7
경기	매출원가	1,828,674	484	534,114
	매출원가 비중	57.7	484	53.7
강원	매출원가	1,486,016	124	269,293
	매출원가 비중	54.0	124	47.9
충북	매출원가	1,493,216	112	452,207
	매출원가 비중	56.7	112	58.3
충남	매출원가	1,117,622	119	297,790
	매출원가 비중	54.1	119	51.4
전북	매출원가	1,299,682	156	288,800
	매출원가 비중	52.7	156	47.3
전남	매출원가	1,063,681	163	298,554
	매출원가 비중	60.0	163	62.8
경북	매출원가	1,841,705	199	461,050
	매출원가 비중	61.8	199	64.2
경남	매출원가	1,283,454	128	370,368
	매출원가 비중	62.3	128	70.6
제주	매출원가	892,455	56	332,925
	매출원가 비중	62.3	56	51.8
전체	매출원가	1,826,258	2,516	374,326
	매출원가 비중	56.1	2,516	55.2

주 :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평균 매출원가 및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사회적기업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표 4-11>에서 제시하였다. 우선 인증연도가 2013년, 기타(창의·혁신)형의 매출원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매출이 큰 특정 기업의 극단값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이다. 그 외 인증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증기업의 매출원가 평균이 최근 3년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인증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창의·혁신)형이 2022년 약 50억 6천만 원, 2023년 약 47억 8천만 원, 2024년 약 48억 5천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매출원가를 보고하였다.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은 일자리제공형이 최근 3년간 59.7~60.8%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별 분류를 살펴보자면, 최근 3년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약 23억~26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매출원가를 안정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매출원가의 비중은 사회복지법인 최근 3년간 약 83.6~94.9% 내외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1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매출원가 및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

(단위 : 천 원, %)

구분		2022		2023		2024	
		매출원가	매출원가비중	매출원가	매출원가비중	매출원가	매출원가비중
인증연도	2007	3,607,019	64.5	4,481,451	71.5	3,091,010	61.3
	2008	1,475,909	68.4	1,506,433	67.5	1,552,262	77.7
	2009	1,203,761	55.3	928,859	53.6	1,050,429	50.8
	2010	1,910,699	61.3	2,099,715	59.2	2,474,885	62.0
	2011	2,508,269	72.6	2,723,074	73.4	2,556,503	69.3
	2012	1,795,229	58.1	1,452,660	55.1	1,916,225	51.4
	2013	8,857,171	63.7	8,991,013	62.4	9,574,397	61.8
	2014	1,634,022	56.9	1,905,005	57.7	2,049,390	58.4
	2015	1,459,456	54.3	1,569,368	56.6	1,814,732	56.6
	2016	2,531,302	53.9	2,620,745	55.5	2,702,518	56.3
	2017	1,427,434	57.0	1,709,537	56.5	1,732,743	56.5
	2018	1,526,900	57.8	1,665,689	56.0	1,787,756	57.3
	2019	1,347,641	54.9	1,347,008	56.1	1,549,666	56.2
	2020	1,087,698	51.7	1,253,880	53.5	1,273,865	54.5
	2021	971,501	55.7	1,111,774	53.9	1,164,491	55.9
	2022	634,111	49.6	668,160	48.6	843,502	51.5
	2023	-	-	718,572	50.6	898,096	52.0
	2024	-	-	-	-	1,167,381	51.5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657,557	60.6	1,693,344	59.7	1,812,578	60.8
	사회서비스제공형	235,208	30.6	252,000	29.8	278,314	31.5
	혼합형	424,961	45.7	417,644	43.3	514,684	44.5
	기타(창의・혁신)형	5,056,363	39.4	4,779,926	42.2	4,847,020	38.3
	지역사회공헌형	906,131	54.8	861,504	53.6	908,741	54.6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2,391,643	66.4	2,512,510	70.1	2,787,979	69.0
	비영리민간단체	194,382	48.1	204,983	55.7	197,652	51.7
	사회복지법인	1,972,627	84.4	1,915,512	83.6	1,619,811	94.9
	상법상회사	1,934,284	55.6	1,883,435	54.7	1,982,012	55.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638,092	71.8	2,660,967	74.0	2,294,286	72.7
	영농조합법인	1,293,751	68.0	1,596,959	65.1	1,873,883	65.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771,176	45.1	750,572	44.7	831,541	46.9
	기타	-	-	-	-	-	-

주 :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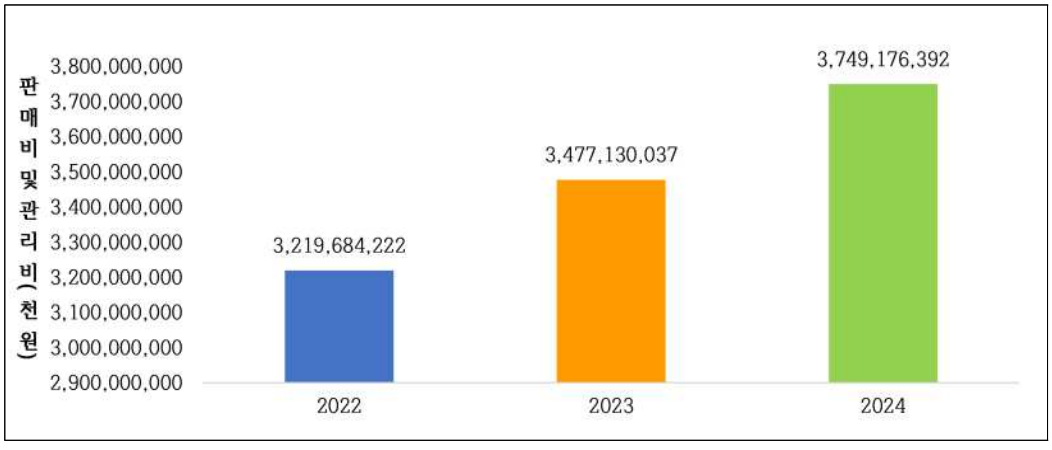
2. 판매비 및 관리비(경비 포함)

다음으로 판매비 및 관리비 지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증사회적기업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제조원가명세서의 경비를 포함한 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아래 [그림 4-41]에는 사회적기업 최근 3년간 판매비 및 관리비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2024년 사회적기업의 판매비 및 관리비는 약 3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천 7백억 원이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4-41] 연도별 판매비 및 관리비 금액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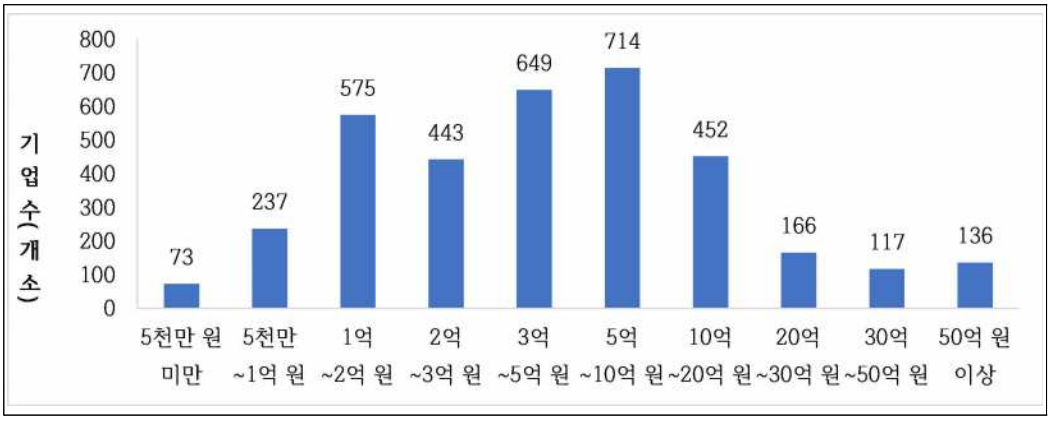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그림 4-42]는 사회적기업의 2024년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도와 분포별 기업 수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 3,562개소 중 5억~10억 원 사이의 판매비 및 관리비를 지출한 사회적기업이 20.0%, 714개소로 가장 많았고, 3억~5억 원 18.2%(649개소), 1억~2억 원 16.1%(575개소) 순으로 판매비 및 관리비 지출을 보고하는 사회적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4-42]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별 기업 수

(단위 : 개소)



주 : 판관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표 4-12> 연도별 판매비 및 관리비 비중

(단위 :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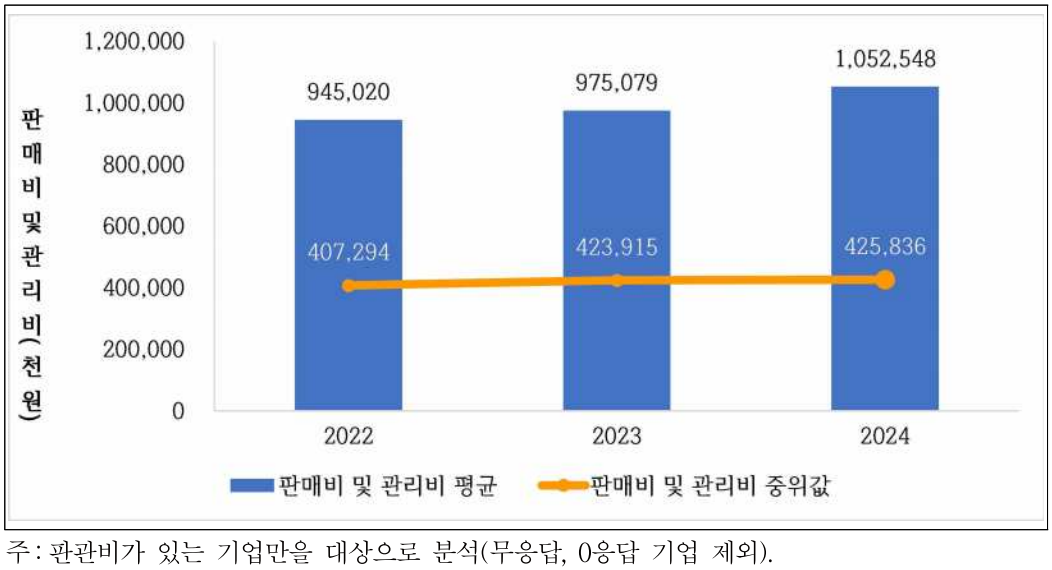
구분	2022		2023		2024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5천만 원 미만	74	2.2	66	1.9	73	2.0
5천만 ~ 1억 원	224	6.6	215	6.0	237	6.7
1억 ~ 2억 원	566	16.6	549	15.4	575	16.1
2억 ~ 3억 원	441	12.9	488	13.7	443	12.4
3억 ~ 5억 원	641	18.8	682	19.1	649	18.2
5억 ~ 10억 원	688	20.2	729	20.4	714	20.0
10억 ~ 20억 원	442	13.0	458	12.8	452	12.7
20억 ~ 30억 원	115	3.4	147	4.1	166	4.7
30억 ~ 50억 원	117	3.4	122	3.4	117	3.3
50억 원 이상	99	2.9	110	3.1	136	3.8
합계	3,407	100.0	3,566	100.0	3,562	100.0

주 : 판관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다음의 [그림 4-43]에는 판매비 및 관리비의 평균과 중위값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평균값은 2022년 약 9억 5천만 원, 2023년 약 9억 8천만 원, 2024년에는 10억 5천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중위값은 2022년 약 4억 1천만 원, 2023년 약 4억 2천만 원, 2024년에 약 4억 3천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4-43]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주 : 판관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아래 <표 4-13>은 판매비 및 관리비의 평균과 중위값을 지역에 따라 분류한 내용이다.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약 16억 9천만 원), 경기(약 13억 9천만 원)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남(약 5억 5천만 원), 대구(약 6억 1천만 원), 충남(약 6억 7천만 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종을 제외하고, 서울(약 5억 6천만 원), 경기(약 5억 6천만 원)는 5억 원을 넘어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비 및 관리비 수준을 보이는 반면, 전남(약 2억 5천만 원)과 강원(약 3억 7천만 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고하여 지역별로 판매비 및 관리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지역별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개소)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1,687,588	559	559,241
부산	794,470	169	386,433
대구	608,279	127	388,925
인천	867,185	197	387,692
광주	685,279	150	439,902
대전	1,278,028	114	374,990
울산	700,340	105	460,273
세종	1,183,168	31	550,754
경기	1,385,349	697	558,936
강원	789,407	175	366,781
충북	989,746	143	427,259
충남	665,856	155	327,267
전북	871,178	215	399,378
전남	547,474	193	251,147
경북	877,171	261	392,903
경남	710,241	186	334,865
제주	732,631	85	423,064
전체	1,052,548	3562	425,836

주 : 판관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아래 <표 4-14>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에 따른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를 연도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인증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24년 기준 2007년 인증기업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판매비 및 관리비를 보고하였고, 2011년, 2013년, 2015년, 2018년 인증기업을 제외한 모든 인증연도의 기업이 전년 대비 판매비 및 관리비가 증가하였다.

인증유형의 경우, 2024년을 기준으로 일자리제공형(약 11억 1천만 원)과 사회서비스제공형(약 10억 6천만 원), 기타(창의·혁신)형(약 10억 2천만 원), 혼합형(약 10억 원)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지역사회공헌형은 3년간 가장 낮은 수준의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를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이 2024년 약 19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영리민간단체가 약 5억 5천만 원, 영농조합법인이 약 6억 3천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비 및 관리비 수준을 보였다.

<표 4-14>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

(단위 : 천 원)

구분		2022	2023	2024
인증연도	2007	2,634,685	3,103,484	3,376,800
	2008	1,238,218	1,719,367	1,870,920
	2009	1,384,071	1,450,708	1,497,484
	2010	1,198,910	1,133,655	1,352,923
	2011	1,528,427	1,352,865	1,320,271
	2012	1,060,228	1,102,389	1,193,410
	2013	1,318,054	1,442,355	1,397,636
	2014	1,183,333	1,351,314	1,510,039
	2015	1,096,192	1,260,042	1,257,580
	2016	1,196,934	1,090,253	1,325,997
	2017	803,855	962,920	1,042,337
	2018	1,076,889	1,225,565	1,213,898
	2019	870,112	904,806	1,007,157
	2020	846,040	915,709	1,068,376
	2021	654,368	745,998	897,784
	2022	492,937	569,815	629,130
	2023	-	487,218	567,373
	2024	-	-	714,955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009,357	1,040,828	1,114,293
	사회서비스제공형	889,271	961,440	1,055,784
	혼합형	820,551	937,625	997,076
	기타(창의・혁신)형	901,167	962,501	1,016,770
	지역사회공헌형	641,434	539,736	681,602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1,441,702	1,430,194	1,502,898
	비영리민간단체	393,959	533,344	546,245
	사회복지법인	1,361,893	1,670,784	1,947,229
	상법상회사	932,515	965,731	1,008,85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47,812	1,114,840	1,054,516
	영농조합법인	494,965	586,052	631,609
	일반/사회적협동조합	828,419	807,103	1,017,866
	기타	-	-	-

주 : 판관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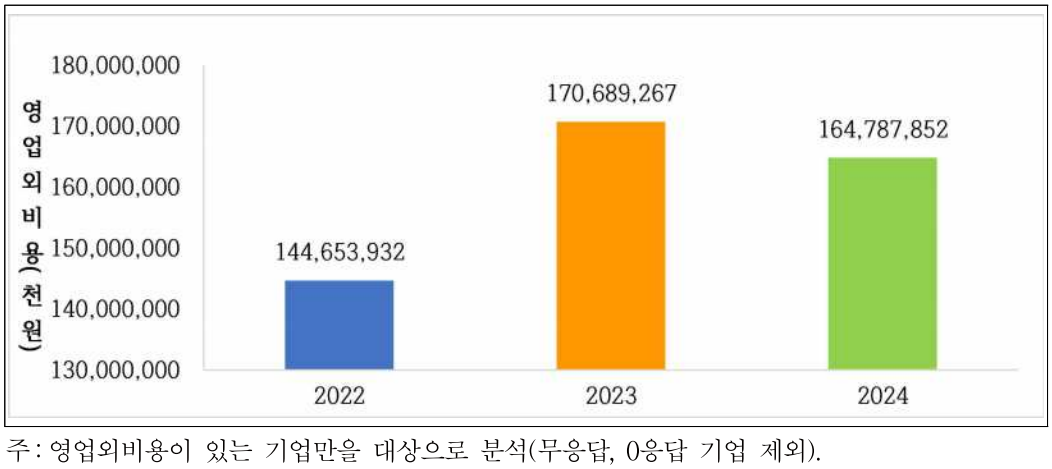
3. 영업외비용

다음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의 영업외비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주된 경영활동 이외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이자비용(지급이자와 할인료 및 사채이자 포함), 이연자산상각비,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매출할인,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잡손실 등이 모두 포함된다(www.hometax.go.kr).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에 의하면, 영업외비용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그대로 기입하도록 되어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

먼저, 최근 3년간 인증사회적기업의 영업외비용 변화 추이는 다음 [그림 4-44]와 같다. 2024년 영업외비용 총액은 약 1천 6백억 원으로, 2023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4] 영업외비용 총액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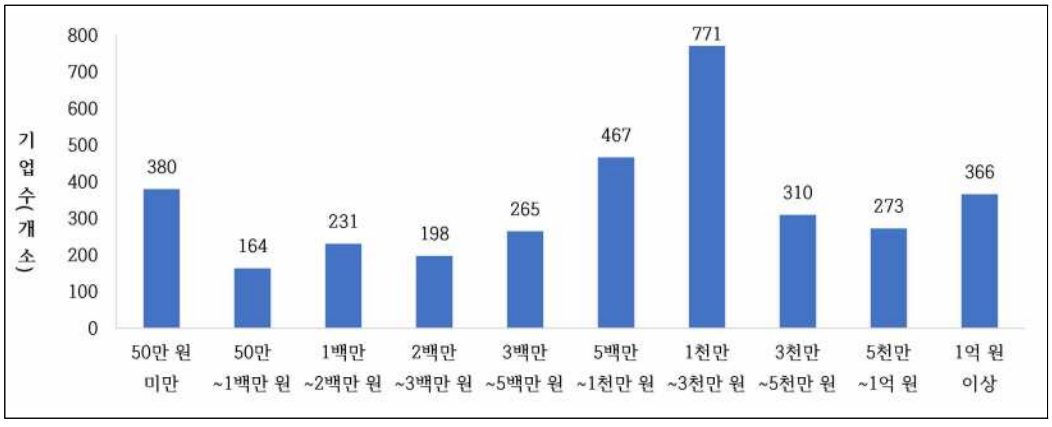


주 : 영업외비용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다음 [그림 4-45]는 영업외비용의 분포별 기업 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3,425개소의 기업이 영업외비용을 보고하였다. 그중 2024년도 영업외비용이 1천만~3천만 원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771개소(22.5%)이며, 5백~1천만 원으로 응답한 기업이 467개소(13.6%), 50만 원 미만이 380개소(11.1%)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5] 영업외비용 분포별 기업 수

(단위 : 개소, 3,425개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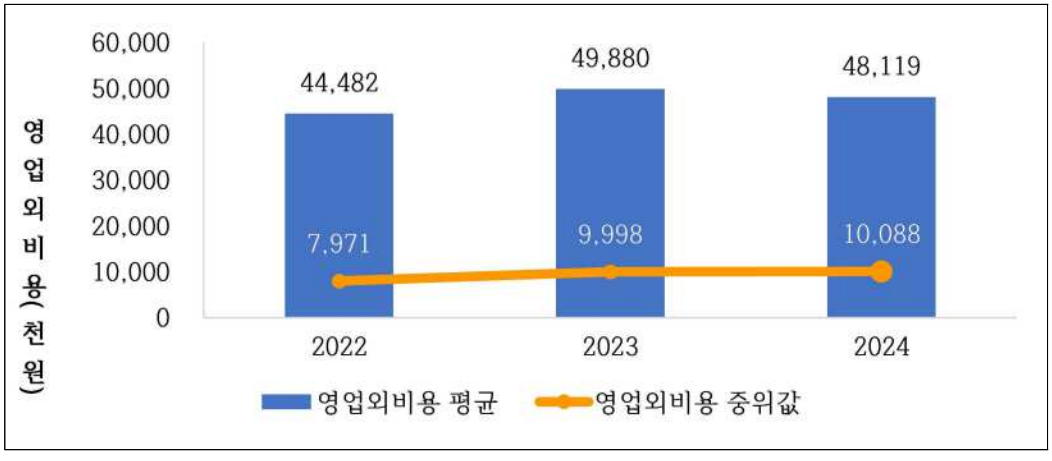


주 : 영업외비용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아래 [그림 4-46]은 최근 3년간의 영업외비용의 평균과 중위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24년 영업외비용 기업별 평균은 약 4천 8백만 원이며, 2023년 약 5천만 원에서 소폭 감소하였다. 중위값은 2022년 약 8백만 원에서 2023년 약 1천만 원, 2024년 약 1천만 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46] 연도별 영업외비용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주 : 영업외비용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영업외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4-15>와 같다. 평균 영업외비용의 경우 서울(약 7천 4백만 원), 대전(약 6천 6백만 원), 인천(약 5천 8백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영업외비용 평균을 보고한 지역은 대구(약 1천 8백만 원), 세종(약 2천만 원), 충남(약 2천 4백만 원) 순서로 나타나 지역별로 영업외비용이 차이가 있었다. 중위값은 경북(약 1천 4백만 원), 세종(약 1천 3백만 원), 광주(약 1천 2백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약 6백만 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15>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영업외비용 비교

(단위 : 천 원, 개소)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74,422	535	10,289
부산	34,689	163	10,009
대구	18,365	123	8,731
인천	57,805	194	10,919
광주	44,601	136	12,434
대전	65,716	111	7,381
울산	29,168	102	11,350
세종	20,175	30	12,847
경기	51,861	677	11,076
강원	29,986	168	6,197
충북	41,400	136	9,614
충남	24,371	147	9,334
전북	49,560	203	9,975
전남	46,107	181	9,036
경북	50,631	254	13,859
경남	30,160	182	6,048
제주	33,834	83	12,220
계	48,119	3425	10,088

주 : 영업외비용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마지막으로 <표 4-16>은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외비용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한 것이다. 먼저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2024년 영업외비용을 살펴보면 2007년, 2013년, 2015년 인증받은 기업 순으로 영업외비용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24년, 2023년, 2022년에 인증받은 기업 순으로 영업외비용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07년 및 2014년, 2016~2019년, 2021년, 2022에 인증받은 기업의 경우 영업외비용이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그 외 인증기업은 모두 전년 대비 영업외비용이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인증유형을 기준으로 2024년 영업외비용을 살펴보면 기타(창의·혁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서비스제공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영업외비용을 보고하였다. 기타(창의·혁신)형, 지역사회공헌형의 경우 영업외비용의 평균이 3개년 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조직형태를 기준으로 2024년 영업외비용을 살펴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약 6천 5백만 원의 평균 영업외비용을 보고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반대로 사회복지법인이 약 1천 9백만 원으로 가장 낮은 평균 영업외비용을 보고하였다.

민법상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상법상회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영업외비용은 3개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그 외 조직형태는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외비용

(단위 : 천 원)

구분		영업외비용		
		2022	2023	2024
인증연도	2007	85,932	65,093	122,536
	2008	75,715	86,720	40,136
	2009	31,454	47,067	40,328
	2010	60,981	77,989	76,477
	2011	88,531	102,434	76,159
	2012	27,949	60,684	19,944
	2013	105,122	122,901	93,090
	2014	43,833	46,394	69,135
	2015	45,264	59,458	51,653
	2016	94,692	64,811	79,190
	2017	28,666	39,350	40,785
	2018	57,863	66,351	77,580
	2019	42,998	51,340	55,479
	2020	30,289	42,639	40,870
	2021	24,298	31,672	40,427
	2022	14,975	23,550	27,747
	2023	-	28,716	24,886
	2024	-	-	23,478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42051.0	54266.8	51,651
	사회서비스제공형	21,483	21,905	21,688
	혼합형	71,549	25,476	24,334
	기타(창의・혁신)형	75,896	76,716	79,185
	지역사회공헌형	26,552	26,889	28,271
	민법상법인	38,336	46,383	59,383
조직형태	비영리민간단체	6,751	15,001	34,299
	사회복지법인	92,232	90,041	19,413
	상법상회사	48,325	52,278	52,33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42,965	54,577	64,708
	영농조합법인	32,339	88,478	47,445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2,182	33,686	30,093
	기타	-	-	-

주 : 영업외비용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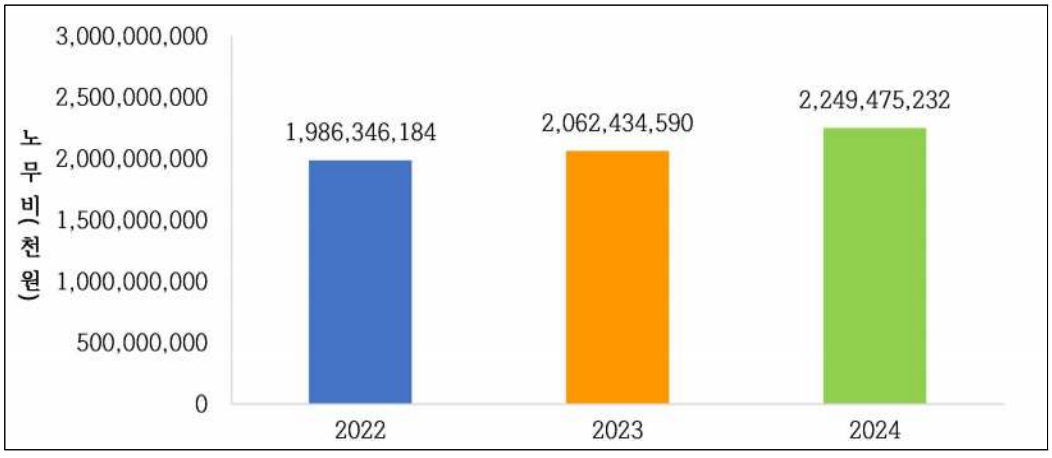
4. 노무비

사회적기업의 지출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마지막으로 활용된 지표는 노무비이다. 본 분석에 포함된 노무비는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 인건비와 제조원가명세서의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참고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 인건비는 인력비용, 임원급여, 직원급여, 상여금, 성과급, 잡급(일용급여), 제수당, 퇴직급여를 합산한 금액이며, 제조원가명세서의 노무비는 급여(임금), 상여금, 잡급(일용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먼저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의 노무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4-47]과 같이 2022년 약 1조 9천 9백억 원, 2023년 약 2조 6백억 원, 2024년 약 2조 2천 5백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4-47] 연도별 노무비 금액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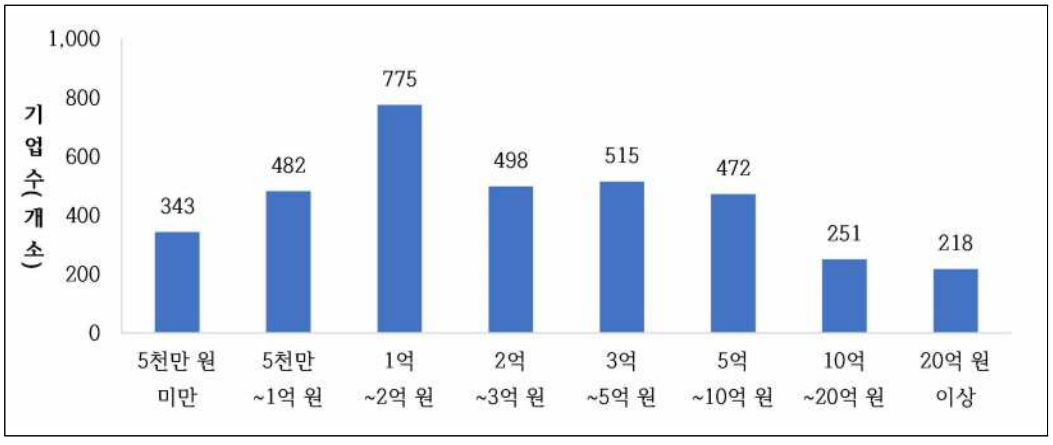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그림 4-48]은 2024년도 사회적기업의 노무비 분포와 분포별 기업 수를 나타낸 것이다. 노무비가 있다고 응답한 전체 3,554개 사회적기업 중 노무비가 1억~2억 원인 경우가 775개소(2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억~5억 원(515개소, 14.5%), 2억~3억 원(498개소, 14.0%)의 순서로 많았다. 그리고 노무비가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도 343개소(9.7%)가 있었으며, 20억 원 이상인 기업도 218개소(6.18%)를 차지하였다.

[그림 4-48] 노무비 분포별 기업 수

(단위 : 개소)



주 :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아래의 <표 4-17>은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의 노무비 분포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지난 3년간 전체적인 분포의 변화는 대체로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연도별 노무비 비중 비교

(단위 :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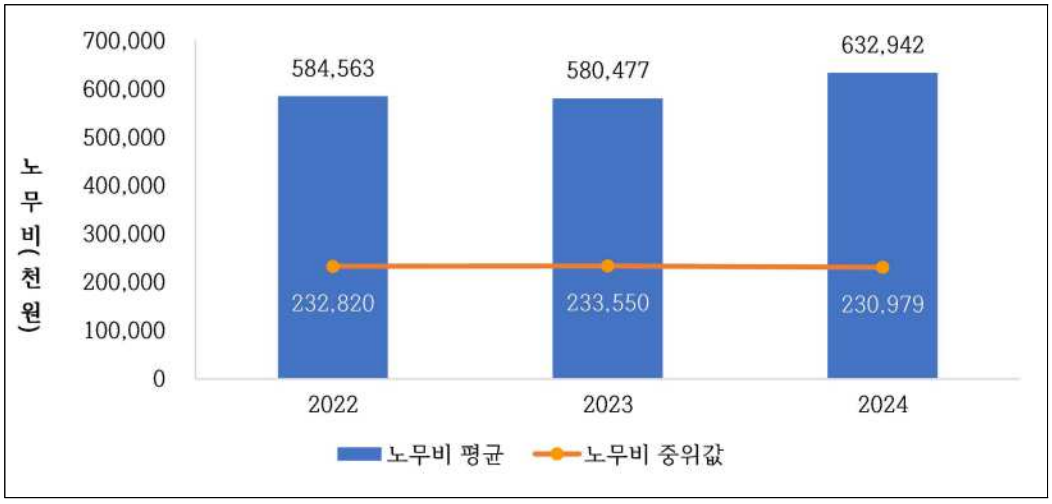
구분	2022		2023		2024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5천만 원 미만	240	7.1	265	7.5	343	9.7
5천만 ~ 1억 원	455	13.4	445	12.5	482	13.6
1억 ~ 2억 원	805	23.7	844	23.8	775	21.8
2억 ~ 3억 원	511	15.0	519	14.6	498	14.0
3억 ~ 5억 원	506	14.9	576	16.2	515	14.5
5억 ~ 10억 원	471	13.9	470	13.2	472	13.3
10억 ~ 20억 원	244	7.2	249	7.0	251	7.1
20억 원 이상	166	4.9	185	5.2	218	6.1
합계	3,398	100.0	3,553	100.0	3,554	100.0

주 :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그림 4-49]는 최근 3년간 노무비의 평균 및 중위값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노무비 평균은 2022년 5억 8천만 원에서 2023년에도 약 5억 8천만 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4년에는 약 6억 3천만원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위값 또한 3년간 큰 변동 없이 2억 3천만 원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4-49] 연도별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주 :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아래 <표 4-18>은 지역별로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을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기업 수가 적은 세종을 제외하면, 노무비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약 9억 2천만 원)이고, 강원(약 8억 3천만 원), 서울(약 8억 2천만 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무비 수준을 보고하였다. 반면, 노무비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전남(약 2억 7천만 원), 대구(약 3억 2천만 원), 광주(약 3억 8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종을 제외하면 경기(약 3억 1천만 원)가 가장 높았고, 충북(약 2억 6천만 원), 울산(약 2억 5천만 원) 순으로 상대적으로 노무비 수준이 높은 반면, 노무비 중위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전남(약 1억 4천만 원), 부산(약 1억 9천만 원), 충남(약 1억 9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4-18> 지역별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개소)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815,133	582	246,164
부산	397,465	174	187,453
대구	317,971	130	198,055
인천	510,648	198	200,685
광주	376,043	153	212,003
대전	734,581	115	219,835
울산	461,477	112	252,061
세종	1,161,183	31	264,163
경기	924,451	700	308,087
강원	830,440	192	218,897
충북	578,264	150	257,888
충남	403,561	159	194,031
전북	526,310	219	228,265
전남	269,560	198	140,634
경북	508,525	265	215,049
경남	521,131	190	205,671
제주	433,456	93	245,595
전체	632,942	3,661	230,979

주 :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표 4-19>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노무비

(단위 : 천 원)

구분		2022	2023	2024
인증 연도	2007	1,792,139	1,106,990	2,167,158
	2008	923,528	1,125,105	1,115,281
	2009	961,263	760,539	728,460
	2010	937,567	1,009,833	1,207,933
	2011	976,396	822,353	774,087
	2012	608,968	616,545	703,809
	2013	781,082	847,339	719,910
	2014	700,284	782,399	909,220
	2015	845,963	934,649	1,095,522
	2016	607,705	566,190	750,616
	2017	421,689	476,444	486,636
	2018	715,673	740,705	757,072
	2019	467,981	509,367	548,023
	2020	561,041	602,131	695,174
	2021	399,090	445,244	499,921
	2022	244,066	285,453	314,463
	2023	-	274,456	308,360
	2024	-	-	422,992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666,580	663,573	724,058
	사회서비스제공형	507,854	560,546	614,666
	혼합형	553,568	531,713	592,716
	기타(창의·혁신)형	407,507	359,506	404,259
	지역사회공헌형	270,883	266,161	269,891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701,537	575,392	765,239
	비영리민간단체	180,140	221,746	241,679
	사회복지법인	1,127,770	1,170,057	967,340
	상법상회사	594,803	590,641	628,67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66,930	2,276,766	641,539
	영농조합법인	257,347	292,086	316,531
	일반/사회적협동조합	518,987	521,547	634,075
	기타	-	-	-

주 :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위의 <표 4-19>는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에 따른 평균 노무비의 연도별 변화를 제시하였다. 먼저 인증연도별 기준으로 2024년 평균 노무비를 살펴보면, 2007년도 인증기업이 약 21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평균 노무비를 보고하였으며, 다음으로 2010년 인증기업이 약 12억 1천만 원, 2008년 인증기업이 약 11억 2천만 원의 평균 노무비를 보고하였다. 반면 2023년 인증기업은 약 3억 1천만 원, 2022년 인증기업이 약 3억 1천만 원으로 대체로 최근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노무비를 보고하였다.

인증유형별 기준 2024년 평균 노무비를 살펴보면, 일자리제공형의 노무비 평균이 약 7억 2천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지역사회공헌형은 약 2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평균 노무비 수준을 보였으며, 최근 3개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의 노무비를 나타냈다.

조직형태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노무비 수준을 기록하였고, 2022년 약 11억 3천만 원에서 2023년 약 11억 7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에는 9억 7천만원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3개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의 노무비 평균을 보고 하였으며, 2022년 1억 8천만 원에서 2023년 2억 2천만 원, 2024년에는 2억 4천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앞서 언급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 노무비의 총액을 비교하기 쉽게 정리한 내용을 다음의 <표 부가분석 4-3>과 <표 부가분석 4-4>를 통해 제시하였다.

지출총액분석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22, 2023, 2024)

<표 부가분석 4-3> 지출총액(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단위 : 천 원)

항목			2022	2023	2024
매출원가	전체총액		4,255,622,482	4,369,792,224	4,594,864,813
	인증연도	2007	72,140,380	76,184,664	58,729,185
		2008	95,934,055	93,398,869	97,792,475
		2009	31,297,779	24,150,330	27,311,158
		2010	141,391,725	149,079,799	170,767,069
		2011	165,545,755	179,722,896	163,616,167
		2012	122,075,588	94,422,886	120,722,145
		2013	1,071,717,662	980,020,452	967,014,076
		2014	217,324,947	236,220,666	231,581,106
		2015	189,729,266	189,893,537	212,323,628
		2016	397,414,355	372,145,837	370,244,975
		2017	228,389,435	237,625,683	232,187,506
		2018	322,175,922	323,143,747	309,281,819
		2019	338,257,911	311,158,960	326,979,591
		2020	330,660,251	356,102,031	340,121,848
		2021	341,968,218	372,444,392	352,840,880
		2022	189,599,232	194,434,449	225,214,952
		2023	-	179,643,024	220,033,434
		2024	-	-	168,102,797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912,328,433	3,095,432,167	3,304,329,243
		사회서비스제공형	29,165,748	34,020,041	37,572,456
		혼합형	46,745,704	45,940,787	54,556,497
		기타형	1,051,723,518	979,884,732	969,404,001
		지역사회공헌형	215,659,079	214,514,496	229,002,617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404,187,724	427,126,646	451,652,658
		비영리민간단체	3,693,253	3,484,712	3,360,077
		사회복지법인	124,275,523	118,761,745	93,949,026
		상법상회사	3,261,203,059	3,339,330,168	3,512,124,67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6,380,923	26,609,667	20,648,572

항목			2022	2023	2024
		영농조합법인	143,606,402	156,502,010	178,018,838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92,275,598	297,977,276	335,110,963
		기타	-	-	-
판매비 및 관리비	전체총액		3,219,684,222	3,477,130,037	3,749,176,392
	인증 연도	2007	86,944,617	96,207,995	101,304,001
		2008	118,868,917	154,743,037	166,511,865
		2009	62,283,208	63,831,151	65,889,293
		2010	145,068,166	130,370,331	144,762,788
		2011	139,086,842	121,757,812	116,183,851
		2012	110,263,660	108,034,094	113,373,923
		2013	230,659,458	230,776,833	206,850,201
		2014	217,733,325	228,372,125	235,566,092
		2015	223,623,093	238,147,971	227,622,070
		2016	247,765,340	211,509,155	247,961,396
		2017	173,632,784	181,991,866	186,578,288
		2018	293,990,732	311,293,490	280,410,507
		2019	304,539,033	293,157,202	301,139,856
		2020	341,800,017	352,548,118	379,273,573
		2021	315,405,574	343,904,887	378,864,988
		2022	208,019,456	233,624,004	236,552,743
		2023	-	176,859,965	195,176,384
		2024	-	-	165,154,573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2,290,232,062	2,479,252,889	2,629,730,767
		사회서비스제공형	235,656,765	290,354,999	342,074,153
		혼합형	163,289,711	182,836,817	189,444,415
		기타형	340,641,307	350,350,537	360,953,520
		지역사회공헌형	189,864,377	174,334,794	226,973,536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432,510,477	430,488,532	447,863,515
		비영리민간단체	24,031,500	28,267,243	28,404,745
		사회복지법인	100,780,111	121,967,259	134,358,802
		상법상회사	2,125,202,122	2,327,412,123	2,416,217,36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1,525,933	12,263,240	10,545,159
		영농조합법인	58,405,927	60,363,346	64,424,165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67,228,153	496,368,293	647,362,647
		기타	4,553,491	-	-
	전체총액		1,986,346,184	2,062,434,590	2,249,475,232
	인증 연도	2007	59,140,586	34,316,675	65,014,744
		2008	87,735,192	100,134,305	99,260,002
		2009	43,256,840	32,703,183	32,052,236
		2010	112,508,091	115,120,982	129,248,780

항목			2022	2023	2024
노무비		2011	88,852,014	74,011,764	68,119,686
		2012	63,332,630	59,804,829	66,861,844
		2013	136,689,297	135,574,229	106,546,698
		2014	128,152,059	130,660,637	141,838,266
		2015	170,884,617	176,648,681	198,289,455
		2016	125,794,909	109,840,843	140,365,258
		2017	90,241,357	89,571,539	87,107,797
		2018	193,947,432	187,398,385	174,883,594
		2019	163,793,432	164,525,548	163,858,872
		2020	226,660,369	231,218,309	245,396,317
		2021	192,361,600	204,812,016	209,967,023
		2022	102,995,759	116,464,971	117,609,056
		2023	-	99,627,695	105,767,432
		2024	-	-	97,288,172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510,469,831	1,573,994,245	1,705,880,702
		사회서비스제공형	133,565,573	168,724,331	198,537,005
		혼합형	108,499,378	103,152,274	112,616,001
		기타형	153,630,173	130,860,024	143,107,669
		지역사회공헌형	80,181,229	85,703,717	89,333,855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210,461,152	170,891,287	227,276,127
		비영리민간단체	10,988,520	11,752,548	12,567,327
		사회복지법인	83,454,945	85,414,159	65,779,101
		상법상회사	1,352,582,614	1,419,309,298	1,503,781,76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336,231	25,044,431	6,415,392
		영농조합법인	29,852,261	29,792,792	32,286,178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91,670,462	320,230,075	401,369,337
		기타	2,700,824	-	-
영업외 비용	전체총액		144,653,932	170,689,267	164,787,852
	인증 연도	2007	2,749,811	1,822,604	3,063,393
		2008	6,435,773	7,024,285	3,150,897
		2009	1,321,064	1,929,761	1,532,468
		2010	6,646,906	8,188,885	7,647,676
		2011	6,993,980	7,784,996	6,016,525
		2012	2,655,132	5,522,245	1,755,105
		2013	17,345,081	18,435,166	12,939,541
		2014	7,626,886	7,515,764	10,301,074
		2015	8,645,473	10,643,004	9,039,259
		2016	18,938,498	12,378,818	13,937,491
		2017	5,962,463	7,240,414	7,259,690
		2018	15,565,201	16,654,055	17,688,167

항목			2022	2023	2024
		2019	14,318,369	15,864,163	15,700,551
		2020	11,964,243	15,946,951	14,263,456
		2021	11,420,082	14,252,189	16,696,308
		2022	6,064,969	9,349,376	10,321,971
		2023	-	10,136,589	8,262,148
		2024	-	-	5,212,133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92,048,550	125,356,397	117,899,963
		사회서비스제공형	5,220,471	6,177,150	6,614,958
		혼합형	12,950,439	4,560,146	4,331,477
		기타형	26,867,219	26,313,706	26,922,865
		지역사회공헌형	7,567,254	8,281,868	9,018,589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10,389,029	12,291,433	16,152,139
		비영리민간단체	297,024	600,022	1,440,552
		사회복지법인	5,533,948	5,042,282	1,009,019
		상법상회사	106,895,899	123,689,591	122,510,68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472,610	600,347	647,077
		영농조합법인	3,751,322	8,759,317	4,791,965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7,314,100	19,706,275	18,236,414
		기타	-	-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 지역 및 표준산업분류별 분석(2024)

<표 부가분석 4-4> 지출총액(지역, 표준산업분류별)

(단위 : 천 원)

매출원가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67,478,920	104,275,982	60,768,505	213,608,470	150,368,080	70,464,410	73,194,418	28,235,605	885,078,202	184,266,010	167,240,147	132,997,019	202,750,327	173,379,931	366,499,257	164,282,085	49,977,495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정보통신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운수업(H)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E)
		184,420,436	57,085,257	87,131,094	1,410,369,086	56,643,808	246,746,242	51,396,587	21,896,597	12,568,418	46,379,563	2,248,258,586	56,442,084	8,690,842	-	4,407,396	49,555,513	52,863,304
관관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43,361,606	134,265,415	77,251,413	170,835,538	102,791,809	145,695,195	73,535,740	36,678,220	965,588,189	138,146,156	141,533,691	103,207,737	187,303,167	105,662,416	228,941,583	132,104,884	62,273,631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정보통신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운수업(H)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E)
		123,096,787	294,968,982	36,522,516	367,123,228	597,442,057	503,897,729	41,385,716	190,816,241	8,806,829	147,988,031	1,027,937,597	103,481,467	42,462,411	-	19,830,670	63,598,475	179,822,654
노무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54,843,954	67,171,588	40,064,350	100,597,629	56,406,388	83,007,632	47,998,605	35,996,675	642,493,368	144,496,640	82,691,756	62,551,930	113,156,739	52,025,029	132,724,981	96,409,201	36,843,765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정보통신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운수업(H)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E)
		72,673,505	135,015,683	19,331,193	158,543,857	467,991,583	477,841,211	31,426,207	62,403,569	1,890,459	66,213,488	530,757,741	44,035,661	23,302,024	-	5,844,283	13,308,554	138,901,214
영업외비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9,815,544	5,654,349	2,258,845	11,214,237	6,065,747	7,294,423	2,975,116	605,236	35,109,944	5,037,635	5,630,448	3,582,586	10,060,625	8,345,311	12,860,295	5,489,174	2,788,336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정보통신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운수업(H)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E)
		4,435,298	8,140,925	4,084,190	23,419,187	10,448,837	9,130,852	2,689,570	7,433,699	744,294	6,247,172	72,957,144	6,331,192	961,383	-	2,501,279	1,065,255	4,247,575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제3절 기타 성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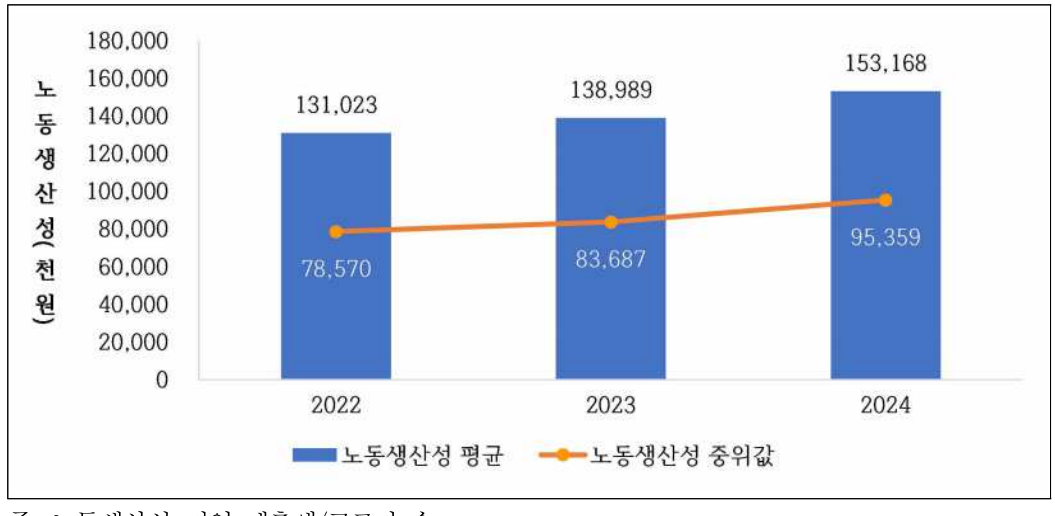
앞서 제1절과 제2절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지표로서 재정성과와 비용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절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또 다른 차원에서의 경제적 성과로 분류 가능한 노동생산성과 일반인 고용지표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1. 노동생산성

먼저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1인당 매출액으로 측정되는데, 다음 [그림 4-50]에 평균 노동생산성과 중위값을 연도별로 분석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2022~2024년 동안 노동생산성의 평균값 및 중위값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24년 노동생산성의 평균은 약 1억 5천만 원, 중위값은 약 9천 5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4-50] 연도별 노동생산성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주: 노동생산성=기업 매출액/근로자 수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아래 <표 4-20>은 지역별 노동생산성의 평균 및 중위값을 나타낸 것이다. 평균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경북, 전남(약 1억 8천만 원), 서울(약 1억 7천만 원)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세종을 제외하면 대전(약 1억 1천만 원), 제주(약 1억 2천만 원)이었다. 노동생산성의 중위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약 1억 1천만 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약 7천 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4-20> 지역별 노동생산성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지역	노동생산성 평균	노동생산성 중위값
서울	168,796	98,017
부산	147,709	85,145
대구	134,596	94,075
인천	140,267	95,011
광주	150,626	94,666
대전	112,786	76,492
울산	150,687	86,532
세종	98,481	72,164
경기	152,249	95,711
강원	124,157	80,775
충북	156,834	108,917
충남	164,229	114,566
전북	151,824	91,181
전남	175,737	102,024
경북	175,960	110,237
경남	155,872	83,429
제주	115,447	80,343
전체	153,168	95,359

주: 노동생산성=기업 매출액/근로자 수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표 4-21>은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평균 노동생산성을 보다 세분화시켜, 이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4-2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노동생산성

(단위 : 천 원)

		2022	2023	2024
인증연도	2007	103,822	109,119	98,347
	2008	85,217	98,367	116,365
	2009	89,109	77,264	88,208
	2010	87,649	101,578	110,121
	2011	114,846	128,141	137,201
	2012	126,210	139,280	129,853
	2013	156,659	165,769	185,348
	2014	156,921	165,201	170,627
	2015	134,528	146,901	158,950
	2016	211,567	226,641	210,562
	2017	148,458	161,399	155,854
	2018	150,303	164,565	181,835
	2019	129,229	152,767	160,929
	2020	127,020	142,162	164,526
	2021	109,785	121,624	151,816
	2022	110,482	116,020	138,941
	2023	-	101,831	131,746
	2024	-	-	138,351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37,629	146,488	158,300
	사회서비스제공형	89,088	99,585	120,790
	혼합형	86,197	88,465	98,992
	기타(창의・혁신)형	127,459	132,713	148,597
	지역사회공헌형	151,848	157,098	183,612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108,116	110,708	119,060
	비영리민간단체	66,244	77,124	70,309
	사회복지법인	52,485	74,298	67,320
	상법상회사	141,649	150,204	164,72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45,149	244,412	173,647
	영농조합법인	204,795	245,202	280,673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01,360	102,821	121,643
	기타	-	-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인증연도별로 2024년 평균 노동생산성을 살펴보면, 2016년 인증기업(약 2억 1천만 원)이 가장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였고, 다음으로 2013년 인증기업(약 1억 9천만 원)과 2018년 인증기업(약 1억 8천만 원)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09년 인증기업이 약 8천 9백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07년 인증기업이 약 9천 8백만 원, 2010년 인증기업이 약 1억 1천만 원 수준을 보였다.

인증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최근 3개년 노동생산성이 모든 인증유형에서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였다. 2024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공헌형이 약 1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혼합형이 약 9천 9백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4년 기준으로 영농조합법인이 약 28억 원으로 가장 높은 노동생산성 수준을 보였으며, 사회복지법인이 약 6천 7백만 원으로 가장 낮은 노동생산성 수준을 보였다. 민법상법인, 상법상회사, 영농조합법인,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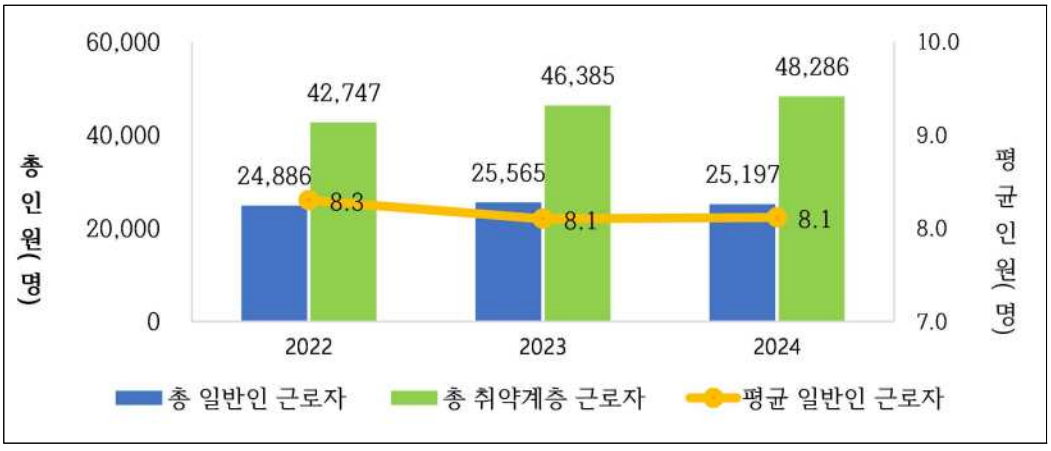
2. 일반인 근로자 고용효과

사회적기업 경제적 성과의 마지막 측정으로, 이하에서는 일반인 근로자의 고용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4-51]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총 일반인 근로자 수, 취약계층 근로자 수,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최근 3년간 총 일반인 근로자와 총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총 일반인 근로자 수는 2022년 24,886명, 2023년 25,565명 증가하였으며, 2024년 25,197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총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2022년 42,747명, 2023명 46,385명, 2024년 48,286명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평균 일반인 근로자의 수는 2022년도에 8.3명, 2023년과 2024년 8.1명으로 최근 3개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그림 4-51] 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 명)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다음에 제시된 <표 4-22>는 지역별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를 설명하고 있다.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에서 세종 지역을 제외하고 10명 이상을 나타낸 곳은 서울(11.9명), 경기(10.4명)이었다. 반면, 전남(4.4명), 대구(4.5명), 충남(4.9명), 인천(5.5명), 울산(5.6명), 광주(5.9명)은 평균 6명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를 보고하였다.

<표 4-22> 지역별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

(단위 : 명)

지역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	지역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
전체	8.1	경기	10.4
서울	11.9	강원	9.9
부산	6.8	충북	7.2
대구	4.5	충남	4.9
인천	5.5	전북	6.5
광주	5.9	전남	4.4
대전	7.0	경북	7.6
울산	5.6	경남	6.6
세종	9.1	제주	6.0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다음의 <표 4-23>에서는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의 수와 평균을 살펴보고 이를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인증연도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평균 근로자 수가 많고, 최근 인증기업일수록 평균 근로자 수가 적은 경향을 보였다. 2024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인증연도는 2007년 인증기업으로 평균 근로자 수 28.7명이었으며, 2022년, 2023년 인증기업은 평균 근로자 수가 4.4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 명)

구분	2022		2023		2024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2007	898	28.1	891	30.7	831	28.7
2008	1,164	13.5	1,130	14.5	1,139	14.6
2009	661	15.7	719	17.5	634	15.9
2010	1,318	13.0	1247	12.3	1,212	12.2
2011	911	11.2	823	10.6	836	10.7
2012	836	9.5	699	8.6	694	9.1
2013	1,656	10.8	1,664	12.1	1,255	9.8
2014	1,570	9.8	1,413	9.6	1,420	10.5
2015	2,003	11.1	1,950	11.7	1,917	12.0
2016	1,543	8.5	1,415	8.1	1,267	7.6
2017	1,137	6.0	1,076	6.4	1,000	6.5
2018	1,884	8.1	1,787	7.9	1,765	8.5
2019	2,125	7.0	2,054	7.3	1,936	7.4
2020	2,932	8.0	2,917	8.6	2,718	8.9
2021	2,681	6.2	2,808	6.7	2,625	7.1
2022	1,567	4.1	1,621	4.4	1,464	4.4
2023	-	-	1,351	4.1	1,298	4.4
2024	-	-	-	-	1,186	6.0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다음의 <표 4-24>는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수와 평균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최근 3년간 총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자리제공형이 총근로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지역사회공헌형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로자 수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지역사회공헌형이 3개년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을 기준으로 총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일자리제공형(16,465명), 사회서비스제공형(3,304명), 기타(창의·혁신)형(2,717명) 순으로 많았으며, 평균 근로자 수는 사회서비스제공형(11.5명), 혼합형(9.8명), 기타(창의·혁신)형(8.7명) 순으로 많았다.

<표 4-24>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 명)

	2022		2023		2024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일자리제공형	16,154	8.0	16,734	7.8	16,465	7.9
사회서비스제공형	2,575	10.7	2,964	10.9	3,304	11.5
혼합형	1,761	11.1	1,666	10.7	1,513	9.8
기타(창의 · 혁신)형	2,993	8.5	2,879	8.6	2,717	8.7
지역사회공헌형	1,403	5.8	1,322	4.9	1,198	4.4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조직형태에 따라 일반인 근로자 수와 평균을 구분한 내용은 다음의 <표 4-25>에서 제시하였다. 최근 3년간 상법상회사에서 고용한 총 일반인 근로자 수가 2022년 15,492명, 2023년 15,908명, 2024년 15,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24년 기준 일반/사회적협동조합과 민법상법인도 각각 5,437명과 2,929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총 일반인 근로자 수는 3년간 각각 144명, 143명, 91명으로 가장 적었다.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사회복지법인이 2024년 평균 1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농조합법인이 평균 4.4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4-25>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 명)

	2022		2023		2024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민법상법인	3,110	11.5	3,040	11.1	2,929	10.5
비영리민간단체	207	4.1	204	4.4	197	4.6
사회복지법인	712	10.0	705	10.2	722	10.6
상법상회사	15,492	7.6	15,908	7.4	15,473	7.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44	13.1	143	14.3	91	9.1
영농조합법인	393	4.3	350	4.2	348	4.4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828	9.8	5,215	9.6	5,437	10.0
기타	-	-	-	-	-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표 4-26>은 지역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평균 근로시간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약 275만 원, 평균 근로시간은 35.3시간으로 나타났다. 세종을 제외하고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강원이 약 340만 원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이 약 215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 근로시간은 부산 31.0시간, 서울 33.9시간, 울산 34.3시간 순으로 적었으며, 강원 37.8시간, 대전 37.4시간, 제주 37.3시간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지역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천 원, 시간)

지역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서울	2,631	33.9
부산	2,145	31.0
대구	2,226	34.4
인천	2,515	34.7
광주	2,598	36.1
대전	2,876	37.4
울산	2,357	34.3
세종	2,189	32.8
경기	2,900	35.5
강원	3,397	37.8
충북	2,822	36.4
충남	2,562	35.0
전북	2,730	36.6
전남	2,584	36.5
경북	3,125	36.6
경남	2,531	35.9
제주	2,759	37.3
전체	2,752	35.3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다음 <표 4-27>은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을 나타낸다. 2024년을 기준으로 2010년 인증기업이 일반인 근로자의 가장 높은 평균임금(약 330만 원)을 보고하였고, 2016년 인증기업이 가장 긴 평균 근로시간(37.3시간)을 보고하였다. 최근 3년 동안 평균임금은 2010~2012년, 2014~2015년, 2019년 인증기업을 제외하면, 대체로 매년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평균 근로시간은 대체로 최근 3년 동안 38시간 미만으로 큰 폭의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표 4-27>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천 원, 시간)

연도	2022		2023		2024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2007	2,584	34.0	2,720	35.5	2,745	35.2
2008	2,597	34.1	2,814	34.5	2,837	34.4
2009	2,213	32.8	2,325	31.2	2,392	30.4
2010	3,047	35.6	2,999	35.6	3,296	37.1
2011	2,826	37.0	2,908	37.0	2,855	36.9
2012	2,753	37.1	3,024	36.5	2,980	35.9
2013	2,491	35.1	2,625	35.4	2,890	36.7
2014	2,442	34.6	2,566	34.4	2,465	34.2
2015	3,026	35.4	3,194	34.7	3,021	34.8
2016	2,657	37.6	2,687	37.3	2,815	37.3
2017	2,558	37.3	2,679	36.6	2,760	36.4
2018	2,604	35.4	2,782	36.5	2,813	35.8
2019	2,569	36.0	2,558	34.8	2,632	34.8
2020	2,770	36.5	2,866	35.9	3,059	35.8
2021	2,299	34.9	2,366	35.2	2,452	33.7
2022	2,341	36.1	2,401	36.0	2,460	35.6
2023	-	-	2,493	36.2	2,576	36.2
2024	-	-	-	-	2,402	33.2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표 4-28>은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이다. 2024년도를 기준으로, 기타(창의・혁신)형이 가장 높은 평균임금(약 291만 원)을 보고하였고, 평균 근로시간 역시 36.2시간으로 가장 긴 평균 근로시간을 보고하였다.

<표 4-28>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천 원, 시간)

	2022		2023		2024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일자리제공형	2,764	36.5	2,821	36.2	2,884	35.9
사회서비스제공형	2,097	32.4	2,149	32.3	2,164	31.9
혼합형	2,035	31.8	2,360	32.4	2,426	33.2
기타(창의・혁신)형	2,652	35.9	2,813	36.0	2,911	36.2
지역사회공헌형	2,470	36.7	2,514	36.9	2,597	35.8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아래 <표 4-29>는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평균 근로시간이다. 2024년도를 기준으로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높은 평균임금(약 375만 원)과 가장 긴 평균 근로시간(약 38.9시간)을 보고한 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가장 낮은 평균 임금(약 210만 원)과 가장 낮은 평균 근로시간(약 31.7시간)을 보고하였다.

<표 4-29>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천 원, 시간)

	2022		2023		2024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민법상법인	2,399	34.1	2,595	35.0	2,714	35.1
비영리민간단체	1,958	32.8	2,198	33.3	2,436	34.1
사회복지법인	3,464	39.1	3,639	38.6	3,746	38.9
상법상회사	2,779	36.6	2,840	36.2	2,900	36.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942	32.1	1,887	31.0	2,093	31.7
영농조합법인	2,491	38.7	2,644	38.4	2,592	38.3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155	33.3	2,233	33.3	2,249	32.4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마지막으로 <표 부가분석 4-5>와 <표 부가분석 4-6>에는 앞서 정리한 유급 근로자의 임금수준,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을 일반근로자와 취약근로자로 나누어 다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유급근로자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22, 2023, 2024)

<표 부가분석 4-5> 전체 유급근로자(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단위 : 천 원)

항목			2022	2023	2024
전체 유급 근로자 수	전체 유급근로자 수		67,633	71,950	73,483
	인증연도	2007	1,927	1,943	1,983
		2008	3,493	3,628	3,708
		2009	2,307	2,592	2,396
		2010	3,739	3,742	3,957
		2011	2,621	2,538	2,601
		2012	2,197	2,255	2,241
		2013	4,825	4,730	3,761
		2014	4,700	4,585	4,779
		2015	5,414	5,372	5,450
		2016	4,047	3,996	3,824
		2017	2,845	2,738	2,559
		2018	5,793	6,048	6,125
		2019	5,486	5,381	5,103
		2020	7,519	7,687	7,357
		2021	7,064	7,401	7,097
		2022	3,656	3,950	3,833
		2023		3,364	3,399
		2024	-	-	3,310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50,854	54,128	55,449
		사회서비스제공형	5,362	6,279	7,414
		혼합형	4,866	5,061	4,454
		기타형	4,162	4,068	3,857
		지역사회공헌형	2,389	2,414	2,309
		민법상법인	8,134	8,314	8,278

항목			2022	2023	2024
	조직형태	비영리민간단체	429	443	432
		사회복지법인	3,055	2,947	2,920
		상법상회사	42,614	44,796	44,90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13	320	322
		영농조합법인	892	873	79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2,196	14,257	15,835
		기타	-	-	-
전체 유급 근로자 평균 임금	전체 평균임금		2,156	2,213	2,244
	인증연도	2007	2,250	2,336	2,389
		2008	1,936	2,026	2,052
		2009	1,826	1,915	2,002
		2010	2,546	2,471	2,652
		2011	2,143	2,186	2,161
		2012	2,222	2,209	2,152
		2013	1,887	1,988	2,137
		2014	1,982	2,044	1,969
		2015	2,623	2,749	2,602
		2016	2,146	2,200	2,230
		2017	2,199	2,294	2,370
		2018	2,081	2,158	2,177
		2019	2,115	2,142	2,223
		2020	2,363	2,470	2,619
		2021	1,976	2,023	2,082
		2022	2,062	2,116	2,135
		2023	-	2,115	2,115
		2024	-	-	1,958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191	2,239	2,265
		사회서비스제공형	1,858	1,919	1,898
		혼합형	1,732	1,882	2,040
		기타형	2,518	2,659	2,752
		지역사회공헌형	2,315	2,347	2,381
		민법상법인	1,894	1,977	2,067
		비영리민간단체	1,695	1,881	2,033

항목			2022	2023	2024
	조직형태	사회복지법인	1,870	1,964	2,019
		상법상회사	2,322	2,387	2,43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791	1,802	1,706
		영농조합법인	2,313	2,420	2,44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835	1,863	1,851
		기타	-	-	-
전체 유급 근로자 평균 근로 시간	전체 평균근로시간		32.9	32.5	32.2
	인증연도	2007	32.2	33.5	33.0
		2008	30.3	29.5	29.5
		2009	29.5	28.5	28.1
		2010	33.2	33.1	34.7
		2011	33.7	34.0	33.9
		2012	33.7	31.7	30.7
		2013	30.6	30.2	32.1
		2014	31.6	30.3	31.0
		2015	34.8	34.5	33.9
		2016	34.0	33.9	33.7
		2017	34.0	33.2	33.2
		2018	32.3	33.1	32.4
		2019	32.8	31.8	32.4
		2020	34.3	33.6	33.1
		2021	33.0	32.4	31.2
		2022	34.1	34.3	33.4
		2023	-	33.3	32.8
		2024	-	-	29.5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33.4	32.9	32.6
		사회서비스제공형	29.7	30.1	29.3
		혼합형	28.3	27.8	29.7
		기타형	34.8	34.3	34.5
		지역사회공헌형	35.8	35.8	34.1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30.6	30.2	30.3
		비영리민간단체	29.4	29.2	29.7
		사회복지법인	32.3	31.8	32.2

항목			2022	2023	2024
		상법상회사	34.0	33.7	33.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1.6	31.1	28.3
		영농조합법인	37.7	37.2	36.8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0.4	30.1	29.0
		기타	-	-	-
전체 취약 근로자 수	전체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42,747	46,385	48,286
	인증연도	2007	1,029	1,052	1,152
		2008	2,329	2,498	2,569
		2009	1,646	1,873	1,762
		2010	2,421	2,495	2,745
		2011	1,710	1,715	1,765
		2012	1,361	1,556	1,547
		2013	3,170	3,066	2,506
		2014	3,130	3,172	3,359
		2015	3,411	3,422	3,533
		2016	2,504	2,581	2,557
		2017	1,708	1,662	1,559
		2018	3,909	4,261	4,360
		2019	3,361	3,327	3,167
		2020	4,586	4,770	4,639
		2021	4,383	4,593	4,472
		2022	2089.0	2,329	2,369
		2023	-	2,013	2,101
		2024	-	-	2,124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34,700	37,394	38,984
		사회서비스제공형	2,787	3,315	4,110
		혼합형	3,105	3,395	2,941
		기타형	1,169	1,189	1,140
		지역사회공헌형	986	1,092	1,111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5,024	5,274	5,349
		비영리민간단체	222	239	235
		사회복지법인	2,343	2,242	2,198
		상법상회사	27,122	28,888	29,431

항목			2022	2023	202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69	177	231
		영농조합법인	499	523	444
		일반/사회적협동조합	7,368	9,042	10,398
		기타	-	-	-
전체 취약 근로자 평균 임금	전체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1,890	1,947	1,979
	인증연도	2007	1,958	2,010	2,133
		2008	1,606	1,670	1,703
		2009	1,670	1,757	1,861
		2010	2,273	2,207	2,368
		2011	1,779	1,840	1,833
		2012	1,896	1,843	1,781
		2013	1,571	1,642	1,760
		2014	1,751	1,811	1,759
		2015	2,386	2,495	2,375
		2016	1,831	1,933	1,940
		2017	1,960	2,045	2,120
		2018	1,829	1,896	1,919
		2019	1,829	1,885	1,972
		2020	2,103	2,228	2,361
		2021	1,779	1,813	1,865
		2022	1853.0	1,918	1,934
		2023	-	1,860	1,830
		2024	-	-	1,711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924	1,979	2,004
		사회서비스제공형	1,637	1,713	1,685
		혼합형	1,560	1,647	1,842
		기타형	2,177	2,284	2,374
		지역사회공헌형	2,095	2,145	2,149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1,582	1,620	1,714
		비영리민간단체	1,450	1,611	1,699
		사회복지법인	1,385	1,437	1,452
		상법상회사	2,062	2,138	2,18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662	1,734	1,524

항목			2022	2023	2024
		영농조합법인	2,172	2,270	2,32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626	1,650	1,643
		기타	-	-	-
전체 취약 근로자 평균 근로 시간	전체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근로시간		31.3	30.8	30.7
	인증연도	2007	30.7	31.8	31.5
		2008	28.4	27.3	27.3
		2009	28.2	27.5	27.3
		2010	31.9	31.8	33.6
		2011	32.0	32.6	32.5
		2012	31.7	29.5	28.3
		2013	28.3	27.4	29.8
		2014	30.0	28.5	29.6
		2015	34.4	34.4	33.4
		2016	31.8	32.0	32.0
		2017	31.8	31.0	31.2
		2018	30.9	31.6	31.0
		2019	30.7	30.0	31.0
		2020	32.9	32.2	31.4
		2021	31.9	30.7	29.7
		2022	32.5	33.1	32.1
		2023	-	31.3	30.6
		2024	-	-	27.4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31.9	31.5	31.2
		사회서비스제공형	27.1	28.2	27.2
		혼합형	26.3	25.6	27.8
		기타형	31.9	30.1	30.4
		지역사회공헌형	34.4	34.4	32.1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28.5	27.4	27.7
		비영리민간단체	26.3	25.7	26.0
		사회복지법인	30.2	29.7	30.0
		상법상회사	32.6	32.3	32.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1.2	31.3	26.8
		영농조합법인	36.9	36.4	35.6

항목			2022	2023	2024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8.4	28.2	27.2
		기타	-	-	-
전체 일반인 근로자 수	전체 일반인 유급근로자 수		24,886	25,565	25,197
	인증연도	2007	898	891	831
		2008	1,164	1,130	1,139
		2009	661	719	634
		2010	1,318	1,247	1,212
		2011	911	823	836
		2012	836	699	694
		2013	1,655	1,664	1,255
		2014	1,570	1,413	1,420
		2015	2,003	1,950	1,917
		2016	1,543	1,415	1,267
		2017	1,137	1,076	1,000
		2018	1,884	1,787	1,765
		2019	2,125	2,054	1,936
		2020	2,933	2,917	2,718
		2021	2,681	2,808	2,625
		2022	1,567	1,621	1,464
		2023	-	1,351	1,298
		2024	-	-	1,186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6,154	16,734	16,465
		사회서비스제공형	2,575	2,964	3,304
		혼합형	1,761	1,666	1,513
		기타형	2,993	2,879	2,717
		지역사회공헌형	1,403	1,322	1,198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3,110	3,040	2,929
		비영리민간단체	207	204	197
		사회복지법인	712	705	722
		상법상회사	15,492	15,908	15,47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44	143	91
		영농조합법인	393	350	348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828	5,215	5,437

항목			2022	2023	2024
		기타	-	-	-
전체 일반인 근로자 평균 임금	전체 일반인 유급근로자 평균임금		2,614	2,696	2,752
	인증연도	2007	2,584	2,720	2,745
		2008	2,597	2,814	2,837
		2009	2,213	2,325	2,392
		2010	3,047	2,999	3,296
		2011	2,826	2,908	2,855
		2012	2,753	3,024	2,980
		2013	2,491	2,625	2,890
		2014	2,442	2,566	2,465
		2015	3,026	3,194	3,021
		2016	2,657	2,687	2,815
		2017	2,558	2,679	2,760
		2018	2,604	2,782	2,813
		2019	2,569	2,558	2,632
		2020	2,770	2,866	3,059
		2021	2,299	2,366	2,452
		2022	2,341	2,401	2,460
		2023	-	2,493	2,576
		2024	-	-	2,402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764	2,821	2,884
		사회서비스제공형	2,097	2,149	2,164
		혼합형	2,035	2,360	2,426
		기타형	2,652	2,813	2,911
		지역사회공헌형	2,470	2,514	2,597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2,399	2,595	2,714
		비영리민간단체	1,958	2,198	2,436
		사회복지법인	3,464	3,639	3,746
		상법상회사	2,779	2,840	2,9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942	1,887	2,093
		영농조합법인	2,491	2,644	2,59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155	2,233	2,249
		기타	-	-	-

항목			2022	2023	2024
전체 일반인 근로자 평균 근로 시간	전체 일반인 유급근로자 평균근로시간		35.7	35.5	35.3
	인증연도	2007	34.0	35.5	35.2
		2008	34.1	34.5	34.4
		2009	32.8	31.2	30.4
		2010	35.6	35.6	37.1
		2011	37.0	37.0	36.9
		2012	37.1	36.5	35.9
		2013	35.1	35.4	36.7
		2014	34.6	34.4	34.2
		2015	35.4	34.7	34.8
		2016	37.6	37.3	37.3
		2017	37.3	36.6	36.4
		2018	35.4	36.5	35.8
		2019	36.0	34.8	34.8
		2020	36.5	35.9	35.8
		2021	34.9	35.2	33.7
		2022	36.1	36.0	35.6
		2023	-	36.2	36.2
		2024	-	-	33.2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36.5	36.2	35.9
		사회서비스제공형	32.4	32.3	31.9
		혼합형	31.8	32.4	33.2
		기타형	35.9	36.0	36.2
		지역사회공헌형	36.7	36.9	35.8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34.1	35.0	35.1
		비영리민간단체	32.8	33.3	34.1
		사회복지법인	39.1	38.6	38.9
		상법상회사	36.6	36.2	36.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2.1	31.0	31.7
		영농조합법인	38.7	38.4	38.3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3.3	33.3	32.4
		기타	-	-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표 부가분석 4-6> 전체 유급근로자(지역, 표준산업분류별)

(단위 : 명, 천 원, 시간)

전체 유급 근로자 수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865	2,729	1,308	3,474	1,918	2,167	1,438	1,298	20,355	3,904	2,369	1,856	2,998	1,584	4,033	2,925	1,262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정보통신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운수업(H)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E)
		1,370	3,528	628	4,511	20,506	17,115	1,165	1,748	45	1,561	16,612	1,042	913	-	151	341	2,247
전체 유급 근로자 평균임금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35	1,811	1,950	1,942	2,126	2,339	2,018	1,926	2,339	3,092	2,261	2,132	2,292	2,270	2,768	2,148	2,185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정보통신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운수업(H)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E)
		2,635	2,149	1,980	2,383	1,840	2,265	2,041	2,209	2,877	2,892	2,231	2,630	1,856	-	2,675	2,416	5,157
전체 유급 근로자 평균시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0.5	28.9	31.5	30.3	31.9	35.2	32.9	31.7	33.2	35.3	31.7	31.4	32.8	34.2	33.8	32.6	32.9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정보통신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운수업(H)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E)
		36.5	31.7	33.5	33.9	29.1	32.9	31.6	32.9	38.9	35.5	33.2	34.4	30.3	-	37.8	37.6	40.0

<표 부가분석 4-6> 계속

(단위 : 명, 천 원, 시간)

전체 취약 근로자 수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886	1,759	806	2,553	1,121	1,478	918	1,024	13,913	2,401	1,479	1,214	1,785	862	2,332	1,952	803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정보통신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운수업(H)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E)
		743	1,524	411	2,180	14,700	13,656	674	700	22	608	10,573	442	630	-	78	227	1,118
전체 취약 근로자 평균임금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43	1,626	1,780	1,736	1,791	2,089	1,826	1,855	2,073	2,900	1,924	1,905	1,995	2,007	2,509	1,958	1,856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정보통신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운수업(H)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E)
		2,349	1,808	1,806	2,073	1,737	2,117	1,804	1,829	2,924	2,505	1,794	2,083	1,643	-	2,336	2,311	5,030
전체 취약 근로자 평균시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8.8	27.8	29.7	28.8	29.0	34.2	32.1	31.4	32.2	33.7	28.9	29.5	30.3	32.2	31.8	30.9	30.5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정보통신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운수업(H)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E)
		35.1	28.3	31.5	31.7	28.3	32.5	29.7	28.6	39.8	32.2	30.4	31.0	28.7	-	37.5	37.2	39.6

<표 부가분석 4-6> 계속

(단위 : 명, 천 원, 시간)

일반인 근로자 수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979	970	502	921	797	689	520	274	6,442	1,503	890	642	1,213	722	1,701	973	459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정보통신업 (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운수업(H)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E)
		627	2,004	217	2,331	5,806	3,459	491	1,048	23	953	6,039	600	283	-	73	114	1,129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631	2,145	2,226	2,515	2,598	2,876	2,357	2,189	2,900	3,397	2,822	2,562	2,730	2,584	3,125	2,531	2,759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정보통신업 (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운수업(H)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E)
		2,974	2,408	2,310	2,673	2,100	2,851	2,366	2,464	2,832	3,140	2,996	3,033	2,330	-	3,038	2,624	5,283
일반인 근로자 평균시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3.9	31.0	34.4	34.7	36.1	37.4	34.3	32.8	35.5	37.8	36.4	35.0	36.6	36.5	36.6	35.9	37.3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정보통신업 (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운수업(H)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E)
		38.2	34.2	37.2	36.0	31.2	34.1	34.2	35.7	38.0	37.6	38.0	36.9	33.9	-	38.2	38.4	40.4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제5장 요약 및 결과해석

이상에서 본 연구는 사업보고서 행정자료를 활용해 2022~2024년 인증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성과를 다면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를 최근 변화에 초점을 두어 요약해 보면 다음 <표 5-1>과 같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인증사회적기업의 현황이나 성과는 일부 등락이 있으나 대체로 지난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된다. 구성에 있어 예년과 같이 상법상회사와 일자리제공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원금 총액은 민간지원금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반면, 정부지원금은 감소하였다.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2023년 3,588개소에서 2024년 2,086개소로 감소하였고, 지원금 평균과 중위값은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소재한 기업의 지원금 총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형태별로는 기타(창의 · 혁신)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 근로자 총인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평균 근로자 수와 평균 취약계층 근로자 수 모두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완화 등으로 인해 2024년 기업당 고용이 증가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평균 임금은 취약계층, 일반인 모두 상승하는 경향을 지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경우 각각 소폭의 등락은 있었으나 2023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제적 성과에서는 총매출액 및 평균, 중위값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영업이익(손실)은 최근 3개년간 지속되던 손실구간을 벗어났으며, 전년 대비 약 154억 원 증가하여 약 135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유형별 평균 영업이익(손실)을 살펴보면 일자리제공형(1,088만 원)과 기타(창의 · 혁신)형(336만 원)의 경우, 영업이익을 보고했으나, 다른 인증유형은 그렇지 않았다. 혼합형(-4,836만 원)이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서비스제공형(-920만 원), 지역사회공헌형(-332만 원) 순으로 손실이 컸다. 당기순이익(손실)의 경우에 당기순이익 총액과 평균은 증가하였으나, 중위값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2024 사회적기업 기초 통계 분석 요약

구분	분석결과
사회적기업 일반 현황	•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은 2023년에 비해 32개의 사회적기업이 증가해, 2024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은 3,669개소 • 인증연도별로는 2022년 및 2023년에 비해 2024년의 인증 기업 수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 • 인증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66.0%), 조직형태별로는 상법상회사(67.2%)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지원금 및 기타영업외 수익	• 사회적기업 전체의 지원금 총액은 290,085,973천 원으로 2023년에 비해 약 18.5% 감소했으며, 지원금 총액 중 정부지원금이 69.5%를 차지하고 있음 • 지원금을 받는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전체평균은 약 139,063천 원이고 중위값은 37,740천 원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함. 정부지원의 경우에는 평균 114,868천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중위값은 36,039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함
취약계층 및 일반인 고용	•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2024년 기준 48,28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기업당 평균 근로자 수는 2023년 보다 증가함(14.8명). 과거에 인증되었던 기업, 인증유형에서 일자리제공형 및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형태에서는 상법상회사가 기업당 취약계층 유급 근로자가 많음 •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인 근로자 수는 2024년 기준 25,197명. 기업당 평균 근로자 수는 2023년과 동일함(8.1명). 과거에 인증되었던 기업, 인증유형에서 일자리제공형, 조직형태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에서 기업당 일반인 근로자 수가 많음 • 취약계층 평균임금(1,979천 원) 및 평균근로시간(31시간)은 202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일반인 평균임금은 약 2,752천 원으로 2023년에 비해 증가, 평균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2023년에 비해 소폭 감소. 일반인 평균임금 대비 취약계층 평균임금은 2023년과 비슷한 수준임(71.9%)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수는 2024년 1,748개소로 2023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은 전체인원 6,048,119명, 중위값 177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함. 이 수치는 관련 자료의 여러 한계로 인해 해석의 주의를 요함 •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기업의 2024년 총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은 2,978,007명, 중위값은 722명으로 나타남. 2023년에 비해 총 수혜 인원과 중위값 모두 증가함. 이 수치는 관련 자료의 여러 한계로 인해 해석의 주의를 요함 • 시계열자료 기술분석 결과, 총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의 경우 2023년에 비해 증가함

<표 5-1>의 계속

구분	분석결과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	• 이사회를 활용하는 기업은 3,284개소, 기타회의체(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를 활용하는 주체는 735개소임. 2024년 이사회에 근로자대표 참여비율은 20.0%, 수혜자 참여비율은 10.9%,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비율은 20.9%로 나타났고, 기타 회의체에 근로자대표 참여비율은 25.0%, 수혜자 참여비율은 14.0%, 지역사회구성원 참여비율은 16.6%로 나타남. 2023년 대비 이사회의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함
사회적 목적 재투자	• 응답기업 중 사회적 목적 재투자를 보고한 기업은 총 2,485개소이며, 전체 재투자액은 380,256,589천 원으로 나타남 • 기업 수로는 근로자 처우개선과 사회서비스 제공, 총금액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일자리 창출의 경우 기업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투자 금액이 컸던 반면, 지역사회 재투자에는 기업 수는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재투자 금액은 가장 적었음
수입 구조	• 사회적기업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 7,698,604,614천 원을 보임. 매출액 평균은 2,163,137천 원, 중위값은 677,637천 원으로 모두 증가함. 지역마다 민간시장매출과 공공시장매출 간 비중 차이가 있었음 • 2024년 영업이익 총액 13,591,771천 원, 평균 및 중위값은 각각 3,818천 원, 2,448천 원임.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총액이나 평균, 중위값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당기순이익 총액은 132,289,008천 원, 평균은 37,265천 원으로 증가하였고, 중위값은 7,943천 원으로 다소 감소함. 당기순이익을 나타낸 기업의 비율은 66.8%로 전년대비 감소함
지출 구조	• 매출원가 총액은 4,594,864,813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매출원가 평균(1,826,258천 원)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중위값(114,232천 원)은 감소함 • 판매관리비(경비 포함) 총액은 3,749,176,392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2023년에 비해 평균(1,052,548천 원)과 중위값(425,836천 원)으로 모두 증가함 • 영업외비용 총액은 170,689,267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2023년에 비해 영업외비용 평균(48,119천 원)은 감소하였으나, 중위값(10,088천 원)은 증가함 • 노무비 총액은 2,249,475,232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2023년에 비해 노무비 평균(632,942천 원)은 증가했으나, 중위값(230,979천 원)은 감소함
노동생산성	• 노동생산성(1인당 매출액)은 2023년에 비해 증가하여 2024년 평균 153,168천 원, 중위값도 증가하여 95,359천 원을 나타냄

마지막으로 최근 3년 동안 나타난 사회적기업 경영 상태의 변화 추세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양극화 현황'과 '비용-수익 구조'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기업 경영 현황을 대표하는 5개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상위 20% 사회적기업과 하위 20% 사회적기업의 실적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모든 지표의 평균 실적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회서비스제공인원만 2023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다시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한편 상위 20기업의 평균값을 하위 20% 기업의 평균값으로 나눈 양극화 지수(A/B)는 모든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기업별 대응 역량의 차이가 뚜렷해지고, 그 결과 역량이 높은 기업은 성과를 빠르게 회복한 반면 역량이 작은 기업은 회복이 더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5-2> 주요 지표별 평균 실적 및 양극화 지수 (2022~2024)

지표	구분	2022	2023	2024
고용	전체평균	20.0	20.1	20.5
	상위20%(A)	70.2	72.2	77.6
	하위20%(B)	2.3	2.3	2.2
	A/B	30.7	31.5	35.2
사회서비스 제공인원	전체평균	4,451	3,141	3,460
	상위20%(A)	20,965	14,717	16,342
	하위20%(B)	11.7	6.0	5.4
	A/B	1,791	2,463	3,025
매출	전체평균	2,017,093	2,044,085	2,163,137
	상위20%(A)	7,614,791	7,657,985	8,206,062
	하위20%(B)	117,226	123,945	116,659
	A/B	65.0	61.8	70.3
영업 이익	전체평균	-14,120	-518	3,818
	상위20%(A)	273,357	298,226	316,047
	하위20%(B)	-328,938	-302,190	-299,902
	A/B	-0.8	-1.0	-1.1
당기 순이익	전체평균	30,717	28,798	37,265
	상위20%(A)	260,649	275,597	310,408
	하위20%(B)	-161,165	-172,184	-163,271
	A/B	-1.6	-1.6	-1.9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2, 2023, 2024)

즉, 사회적기업의 전반적 경영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 간 대응력과 자원 격차로 인해 성과의 편차가 오히려 커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역량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5-2>에서는 사회적기업의 핵심적인 수입 항목과 비용 항목을 종합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분석의 시사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과 매출 규모가 유사한 소기업과 비교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기업은 전체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도 소기업보다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약계층 고용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의 결과라기보다, 인적자원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고용 안정성을 중시하는 노동친화적 경영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수치를 보면, 사회적기업의 노동생산성(근로자수 대비 매출액)은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사회적기업이 낮은 생산성을 감수하면서도 취약계층 고용을 유지하고, 동시에 조직 혁신과 인적 역량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기업은 생산성 자체보다는 고용 유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시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내부 효율성을 높여가는 노동친화적 혁신형 조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사회적기업은 매출 증가에 속에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고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유사한 규모의 소기업은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외부 환경 변화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회복탄력성(resilence)을 발휘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경영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본연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면서도 경영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3> 사회적기업 및 소기업 수입-비용구조 요약 (평균) (2021~2024)

(단위 : 천 원)

유형	항목	2021	2022	2023	2024	증가율 ('21-'23)	증가율 ('21-'24)
사회적 기업	매출액(A)	1,951,014	2,017,687	2,044,085	2,163,137	2.4%	5.3%
	매출원가	1,242,259	1,252,759	1,226,092	1,291,055	-0.7%	1.9%
	판관비	720,214	779,087	817,989	868,269	6.6%	9.8%
	인건비(B)	419,420	447,823	452,344	475,578	3.9%	6.5%
	영업이익	-11,460	-14,144	-528	3,819	-	-
	당기순이익	25,566	30,690	29,291	37,170	7.0%	20.6%
	B/A	21.5	22.2	22.1	22.0	-	-
소기업 전체	매출액	1,537,644	1,767,683	1,539,721	-	0.1%	-
	매출원가	1,076,761	1,201,605	1,029,970	-	-2.2%	-
	판관비	401,010	470,253	471,441	-	8.4%	-
	인건비	165,318	186,644	168,804	-	1.0%	-
	영업이익	59,874	95,825	38,310	-	-20.0%	-
	당기순이익	53,961	80,992	8,016	-	-61.5%	-
	B/A	10.8	10.6	11.0	-	-	-

주1 : 소기업 전체 = 소기업 제조업 + 소기업 서비스업

주2 : 사회적기업 인건비=인력비용+임원급여+직원급여+상여금+성과급+잡급(일용급여)+제수당+퇴직급여, 소기업 인건비=급여+퇴직금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2024), 중소기업 실태조사(2021, 2022, 2023, 2024)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23). “제4차 사회적 기본계획(‘23~‘27) 발표”
관계부처 합동(2021). “문재인 정부 4년반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
중소기업 실태조사(2022), “2022년(21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종합보고서)”
중소기업 실태조사(2023), “2023년(22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종합보고서)”
중소기업 실태조사(2024), “2024년(23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종합보고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1), “2020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2), “2021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3), “2022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3b),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4), “2023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2024년 사회적기업 기초 통계 분석

발 행 인: 정승국
발 행 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6~8층
대표전화: 031-697-7700
팩　　스: 031-697-7889
홈페이지: http://www.socialenterprise.or.kr
인 쇄 처: 새한기획(02-2264-1010)

ISBN: 979-11-92212-49-4(93330)

비매품/무료
93330
9 791192 212494
ISBN 979-11-92212-49-4

<비매품>

※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전제 및 복제할 수 없으며 책자의 내용 및 활용에 관한 문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사회적기업 기초 통계 분석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